*일러두기

1. 조사개요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2015년 9월에 마을조사단을 구성하여, 전주시의 33개 행정동에 대한 마을 조사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도별 조사공간

33개 행정동에 대한 조사는 2015년 9월의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4차년도 조사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도별 조사 대상 동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조사동의 선정은 마을조사단의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시대별 전주시의 성장과정과 동별 공동체의 변화 및 지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동 조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팔복동)	8개동 조사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삼천3동, 효자4동, 진북동, 덕진동, 동산동)	11개동 조사 (중화산1·2동, 효자1·2·3동, 서신동, 인후1·2·3동, 금암1·2동)	10개동 조사 (평화1·2동,삼천1·2동, 우아1·2동, 호성동, 송천1·2동, 조촌동,)

3. 마을조사서 구성

전주시 33개동 마을조사서는 총 4장으로, 1장은 마을조사의 개요, 2장은 각 동의 역사 · 문화자원에 대한 문헌조사정리, 3장은 각 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수집 및 분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구술이 담겨진 면담보고서가 생생한 날 것으로 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각 동의 역사 · 문화자원의 근거자료

전주시 33개 행정동의 문화자원과 역사에 대한 내용은『전주부사(全州府史)』,『전주시사(全州市史)』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주역사박물관 및 유관기관의 자료와 전주에 대한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저서 등을 참고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내용을 각 동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일부, 문헌상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구자의 해석을 추가했습니다.

5. 문헌 · 사진자료의 출처

본 마을조사서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사진자료들은 전주를 다루고 있는 각종 문헌과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집된 것이며, 일부 사진과 자료는 마을조사단의 조사활동 기간에 촬영 및 수집되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각주에 명기하였습니다.

6. 마을조사서 내용의 초점

전주시 33개 행정동에 대한 기억의 풍경은 전주 도시 공동체의 삶의 공간인 동네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의 고유성과 다양한 해석의 여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시대적 변천과정에서 층층이 누적된 시민의 진솔한 삶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인터뷰한 면담보고서를 기초로 시민들의 정서와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간(장소 · 경관), 사건, 생활(풍속), 산업별로 분류하여 시민들의 관점을 충분히 살려 기록하고 시민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 구술의 정보이용동의

전주시 33개 행정동 시민들의 인터뷰 구술내용은 공개와 비공개 구술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구술자 및 구술에 대한 정보이용동의 여부는 정보이용동의서와 추가적인 음성동의를 녹취하여 기록 정리했습니다.

8. 저작권 소유

전주시 33개 행정동 마을조사서의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본 마을조사서가 전주시 공동체가 다양하게 활성화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전주시 마을조사 “동심(洞心)찾기”
팔복동 마을조사서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전주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중심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발행처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발행인	김승수((재)전주문화재단 이사장)
사업총괄	정정숙((재)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장 걸((재)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소민호((재)전주문화재단 前 경영지원팀장) 최준범((재)전주문화재단 前 경영지원팀장) 이은혜((재)전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총괄P.M	소영식
선임연구원	차상민
연구원	이창환
조사연구원	김다희
조사연구원	박다영
이야기팀장	김윤주
현장조사원	김태양(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혜민(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지원(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주소	55045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교동) 전주한벽문화관 www.jjcf.or.kr
전화	063)283-9220
팩스	063)283-9383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에 참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문위원
장명수(前 전북대학교 총장)
김현숙(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나종우(전주문화원장)
박혜숙(전주시의회 의원, 前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임 환(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前 전무이사)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이정덕(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최상철(연백당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문위원
김병수(전주시 前 전통문화과장, 現 문화정책과장)
김병용(전북작가회의 회장)
김진돈(전주문화원 국장)
김창주((재)전주문화재단)
이성영(스페이스 모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우연(전주시 정책연구원)
조성실(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진명숙(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신진연구원)
최기춘(삼천문화의집 관장)

행정지원
김병수(전주시 前 전통문화과장, 現 문화정책과장)
강병구(전주시 前 문화콘텐츠팀장)
홍명균(전주시 前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정상택(중앙동장)
임형재(풍남동장)
박병국(노송동장)
이경엽(팔복동장)
박준성(중앙동주민센터)
손진권(풍남동주민센터)
황재연(노송동주민센터)
진영록(팔복동주민센터)

도움주신 분들
박혜숙(전주시의회 前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소순명(전주시의회 前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규(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김명지(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김순정(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백영규(전주시의회 前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오평근(전주시의회 前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이기동(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現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허승복(전주시의회 의원)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김윤철(전주시의회 의원)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김진욱(전주시의회 의원) - 팔복동
송상준(전주시의회 의원) - 팔복동
송정훈(전주시의회 의원) - 팔복동
전수진(디자인협동조합 도트)
김대환(SELF POWER STATION)
유정석(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도움을 주신 분들의 직책과 소속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함

목 차

Ⅰ. 조사 소개

1. 팔복동 조사목적 ····· 11
2. 팔복동 조사개요 ····· 11
3. 팔복동 조사 참여 인력 ····· 12
4. 팔복동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 ····· 12
5. 마을조사단 구성 및 실행구조 ····· 17
6. 참고문헌 및 면담자 목록 ····· 18

Ⅱ. 팔복동의 역사문화자원

1. 팔복동 개관 ····· 23
2. 팔복동의 유래와 주요지명 ····· 28
   1) 팔복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30
   2) 팔복동 일대의 주요 자연 지명 ····· 34
3. 팔복동의 어제 (선사시대~근·현대사) ····· 36
   1) 선사시대(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 ····· 36
   2) 원삼국(마한)~삼국시대 ····· 37
   3) 통일신라~후백제 ····· 38
   4) 고려시대 ····· 39
   5) 조선시대 ····· 40
   6)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 41
   7) 해방 이후~현재 ····· 43
4. 팔복동의 문화자원 ····· 45
   1) 유형문화재 ····· 45
   2) 무형문화재 ····· 61
   3) 근대문화재 및 기타 건축자산 ····· 62
   4) 민속신앙 ····· 64
   5) 전설 ····· 64
   6) 역사적 인물 ····· 65
5. 팔복동의 생활·민속 ····· 69
   1) 놀이 및 축제 ····· 69
   2) 민속 ····· 69

3) 세시풍속 ····· 69
6. 팔복동의 자연 · 생태 환경 ····· 70
7. 팔복동의 주요 도로망 체계 ····· 74
8. 팔복동의 주요 공간 체계 ····· 83
9. 팔복동의 인구 · 가구 · 산업 현황 ····· 87
1) 팔복동의 인구 및 가구현황 ····· 87
2) 팔복동의 주요 산업과 종사자 현황 ····· 89
10. 팔복동의 주요 각종시설 및 주민시설 현황 ····· 92
11. 기존 정책 현황 및 주민 주도형 사업 현황 ····· 95

Ⅲ. 팔복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1. 팔복동 이야기 분석 ····· 105
1) 이야기 추출·선별 및 분류 ····· 105
2) 팔복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항목 분석방향 ····· 106
2. 팔복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 ····· 113
1) 시대생활상 ····· 113
2) 시대생활공간묘사 ····· 116
3)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 117
4) 자연, 마을지명 유래 ····· 119
5) 역사관련 시설, 설화 ····· 121
6) 공장, 공업단지 ····· 122
7) 민원, 취약한 기반시설 ····· 124
8) 에피소드, 사건, 추억, 인물 ····· 126
9) 그 외의 이야기 ····· 127
3. 키워드와 구술 내용으로 본 팔복동의 특징과 기억의 지형 ····· 129
1) 전주의 중심적인 공단지역 팔복동 ····· 129
2) 농촌에서 공단으로의 '천지개벽' 팔복동 ····· 130
3) 공단의 쇠퇴 그리고 공업단지와 주택지의 경계의 모호함 ····· 132
4) 팔복동 주민들의 삶의 변화 ····· 134
5) 팔복동의 다양성을 찾고 이를 활용하기 ····· 136

Ⅳ. 부록 (면담보고서)

1. 김경자 면담보고서 ····· 142
2. 김순옥 면담보고서 ····· 144
3. 김재순 면담보고서 ····· 146
4. 김정옥 면담보고서 ····· 150
5. 김춘식 면담보고서 ····· 152
6. 노봉순 면담보고서 ····· 157

7. 박근규 면담보고서 ·····159
8. 박상철 면담보고서 ·····161
9. 박옥엽 면담보고서 ·····164
10. 박점순 면담보고서 ·····167
11. 배춘자 면담보고서 ·····169
12. 서길섭 면담보고서 ·····171
13. 소규용 면담보고서 ·····173
14. 송봉수 면담보고서 ·····175
15. 송옥순 면담보고서 ·····178
16. 송충덕 면담보고서 ·····182
17. 오한길 면담보고서 ·····185
18. 윈혜연 면담보고서 ·····188
19. 유기호 면담보고서 ·····190
20. 유영자 면담보고서 ·····192
21. 이동선 면담보고서 ·····196
22. 이분례 면담보고서 ·····200
23. 이쌍지 면담보고서 ·····203
24. 이옥녀 면담보고서 ·····205
25. 임병근 면담보고서 ·····207
26. 정옥례 면담보고서 ·····209
27. 정찬모 면담보고서 ·····211
28. 정효남 면담보고서 ·····213
29. 조영교 면담보고서 ·····218
30. 조윤례 면담보고서 ·····220
31. 조춘자 면담보고서 ·····222
32. 최정오 면담보고서 ·····225
33. 최태림 면담보고서 ·····228
34. 한오목례 면담보고서 ·····232



1900년대 전주시 전경





면담모습(동곡경로당)



팔복동 백제탕 입구



팔복동 추천경로당

Ⅰ. 조사 소개

1. 팔복동 조사 목적
2. 팔복동 조사 개요
3. 팔복동 조사 참여 인력
4. 팔복동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
5. 마을조사단 구성 및 실행구조
6. 참고문헌 및 면담 대상자 목록

Ⅰ. 조사 소개

전주시 마을조사는 2015년도 9월에 시작하였으며 전주시에 속한 33개동을 4년차에 걸쳐서 전주시민의 과거의 기억과 기억 속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각 동의 다양한 지표와 문화자원, 그 안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주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주시의 다양한 사업과 시민활동의 기반자료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1. 팔복동 조사목적

- 팔복동 주민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 플랫폼 확보
- 팔복동에 거주하는 시민을 알아가고, 팔복동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팔복동의 동네 이야기와 장소 콘텐츠를 구상하고 이야기와 장소 조사를 통한 고유한 데이터를 구축
- 고유한 마을(동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시민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고자 함
- 기존 정책 및 학술조사에서 좀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 플랫폼 구성
- 전주시에 적합한 마을(동네) 조사연구모델 개발 및 진행

> 시민이 이야기하고 직접 써 내려 가는 전주의 동네 이야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을조사에 대한 팔복동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조사단과 시민들과의 읽기+듣기+만남+수집을 통한 이야기 수집, 시민사회의 활용과 마을 이야기의 전승을 목적으로 함

2. 팔복동 조사개요

- 사업기간 : 2015. 9.~2015. 12.
- 대상지
  - 행정동 : 팔복동
  - 법정동 :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4가
- 조사대상
  - 팔복동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지 않지만 지역을 아는 시민

- 팔복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이주하였던 다양한 계층의 시민
- 팔복동을 중심으로 제조업, 상업, 문화활동을 하는 운영자 혹은 시민
- 팔복동을 고향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 타지에 거주하는 타 지역 시민
- 전주의 일제강점기 이전 혹은 그 이전에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령자

• 조사내용

- 기초문헌조사
  기존의 문헌과 학술자료, 시정 자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전주시가 아닌 팔복동을 중심 대상으로 한 문헌자료의 참고 및 재구성하여 기술
- 시민이야기워크숍
  팔복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각 통장, 자생단체 회원, 지역에 관심과 지식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기초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요 공간과 동의 주요 면담 대상자 추천받기
- 심층면담조사
  기초문헌조사와 시민이야기워크숍에서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원이 찾아가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기록

3. 팔복동 조사 참여 인력

• 팔복동 기초문헌조사 및 보고서 작성/심층면담조사
소영식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PM)
차상민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선임연구원)
이창환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연구원)
김다희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박다영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김태양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생)
김혜민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생)
박지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생)

4. 팔복동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

1) 2015년 조사대상지 4개동 선정

• 기간 : 2015. 9.~2015. 10.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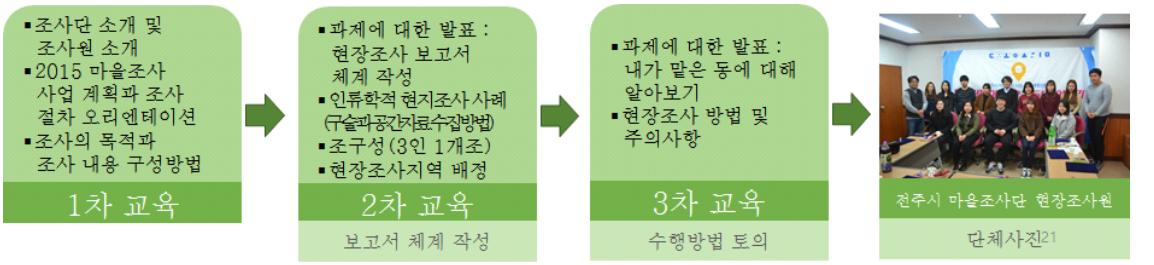
- 2015년 조사 대상 행정동 선정을 위한 후보 대상 행정동 8개동 기초 조사 및 분석
- 조사 대상 동은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 동에 대한 논의 후 선정

2) 2015년도 4개동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 기간 : 2015. 10.
- 내용
  - 기초문헌작성과 관련 조사대상 행정동의 전반적인 기초지형 확인 및 주요 지점에 대한 길과 공간을 인지하는 과정
  - 현장답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 기초문헌조사 과정 중에 활용
  - 현장답사를 통해 이어서 진행될 이야기 워크숍과 현장 심층면담조사의 적응력과 활동력을 높임
- 팔복동 일정
  - 현장답사 : 2015. 10.

3) 2015년도 4개동 현장조사원 선발 및 교육

- 기간 : 2015. 10 ~ 2015. 11
- 내용
  - 12명의 인원으로 구성, 3인 1조로 역할분담(맵핑, 인터뷰, 녹취)
  - 마을 및 주민 이야기, 공간 및 장소 위치에 대한 현장자료 수집 및 정리
  - 3회 차의 교육과정 진행 후 현장조사 실시



2015년도 현장조사원 교육 진행 과정

4) 2015년도 4개동 기초문헌조사 및 내용 작성

- 기간 : 2015. 11.~2016. 3.
- 내용
  - 조사대상 행정동의 현황과 과거 기록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활용 및 보고서에 게시
  - 기존의 전주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서술하였던 방식을 벗어나 동 중심의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 다양한 기록물에 팔복동의 이야기를 뽑아내어 다시 편집하고 서술구조를 정립

- 팔복동 일정
  - 1차 기초문헌 내용 작성 : 2015. 11.~2015. 12.
  - 기초문헌 최종 수정 및 편집 : 2016. 1.~2016. 3.

5) 2015년도 4개동 워크숍 진행

- 기간 : 2015. 11.~2015. 12.
- 내용
  - 조사대상 행정동의 시민과 모여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의 이야기와 추억의 공간 듣기
  -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자생단체, 통장 모임 등을 방문, 마을조사 워크숍 홍보 진행
  - 홍보 후 2회 차에 걸쳐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지도와 주요 책자를 활용 시민들이 기억하는 공간, 인물, 이야기 추천받기 진행
- 팔복동 일정
  - 홍보 활동 : 2015. 11. 25(수) 오후 14:00
  - 1차 이야기 워크숍 : 2015. 12. 03(목) 오전 10:00
  - 2차 이야기 워크숍 : 2015. 12. 10(목) 오후 14:00





팔복동 이야기 워크숍 모습

6) 팔복동 심층 면담조사

- 기간 : 2015. 12.~2016. 01.
- 내용
  - 이야기 워크숍과 기초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그리고 팔복동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들어가 면담하여 주요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과정
  - 직접 기록 및 이야기 녹음을 통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수집
  - 이야기 속의 주요 공간에 대한 사진 촬영
  - 팔복동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옛 사진, 책, 문서, 물건 등을 조사
- 조사과정 : 사전조사/현장조사/현장조사 자료 정리
- 사전조사
  - 심층면담조사 계획 수립

- 조사지역의 현황, 면담대상자 선정, 질문지 작성, 조사일정 등을 논의
- 조사지역의 현황 : 현장답사, 기초문헌조사 내용, 주민워크숍 내용 비교 검토하여 파악
- 면담대상자 선정 : 주민워크숍 주민 연락처 및 참여자, 주민추천인 등을 선정

• 현장조사
- 조사인원 : 현장 조사원 및 연구원 3인 1조로 구성
- 조사준비 : 면담대상자와 방문 약속 잡기, 조사도구 지참
- 조사도구 : 녹음기, 사진기, 필기도구, 질문지, 지도(전주시 도로명주소안내지도 팔복동)
- 조사방법 :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 현장조사 자료 정리
- 현장조사 자료는 면담보고서/음성자료/사진자료/영상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 면담보고서 작성 : 날짜, 조사 장소, 조사자, 대상자 선정이유, 면담대상자 정보, 열쇳말, 면담 요약, 사진 등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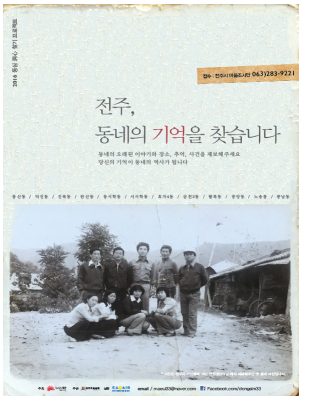


팔복동 일원 현장 면담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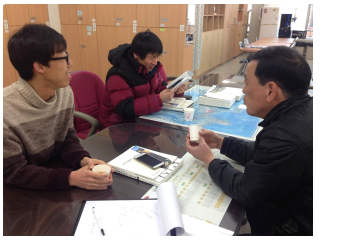
7) 2015년도 이야기캠페인

• 기간 : 2015. 10.~2015. 12.

• 내용
- 마을조사단만의 이야기 수집 및 조사의 한정된 조사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수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야기 수집활동을 독려하고자 이야기 캠페인 진행
-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수집한 후 마을조사단의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
-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사진, 일기, 가계부, 당시의 전단지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과정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 출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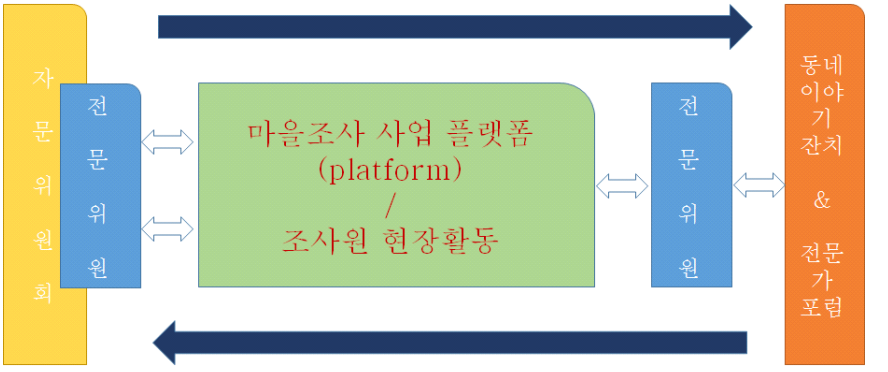
8) 팔복동 마을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기간 : 2015. 12.~2016. 3.
- 내용
  - 조사 내용 결과를 공공에 공개하고 시민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
  - 2015년도 4개동에 대한 기초문헌, 심층면담조사 내용 등을 정리 및 종합 후 분석하여 조사서 최종 제출, 조사서를 통해 각 동의 현황과 차후 필요한 관점 등을 제시
  -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활동 및 문화, 예술, 도시재생 등 다양한 기반자료로 활용 가능

9)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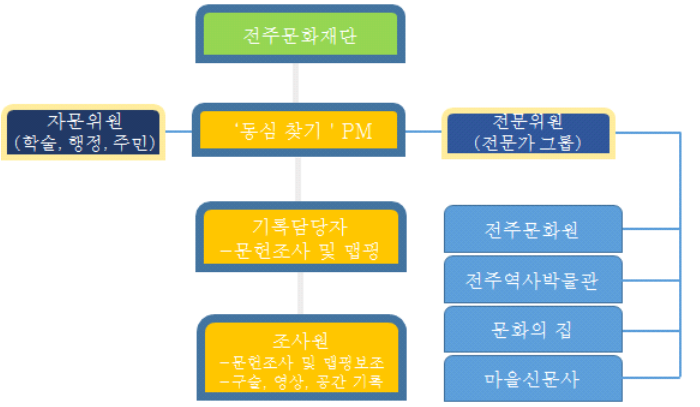
- 기간 : 2015. 9.~2015. 12.
- 내용 : 조사 내용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검토, 협업
  - 마을조사단의 각 동 조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협업 진행
  - 역사학, 인류학, 도시공학, 건축학 등의 전공을 가진 학술 전문가, 현장실무 전문가로 구성

10) 2015년 마을조사 조사전략



5. 마을조사단 구성 및 실행구조

- 2015년 마을조사단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요건 : 도시계획,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건축학, 정책 등의 학술적 전문가
- 역 할 : 조사방향 및 조사지역 설정, 마을조사사업 학술, 방법론 자문

전문위원회 구성

- 구성요건 : 도시계획,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건축학, 정책 등의 현장실무 전문가
- 역 할 :마을조사사업 실무 및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조사원구성

- 구성요건 :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도시계획 등의 전공학생
- 역 할 : 공간, 영상, 구술 기록 및 정리, 문헌조사 및 맵핑보조

자문기관

- 구성요건 : 전주시 소재기관 중 전문적인 학술연구 및 주민 연계기관
- 역 할 : 조사관련 자료 전달 및 확충, 자문위원화연계학술자료교류및검토

- 2015년 마을조사단 실행구조



6. 참고문헌 및 면담자 목록

- 참고문헌 목록

〈표 1〉 주요 참고문헌 목록

자료발간 형태	자료성격	목록
단행본 및 보고서	인문학	전북도민일보, 1998,『위대한 어머니의 산 모악산』
		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 2001,『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010,『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완산구 서학동-』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010,『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덕진구 동산동-』
		전주역사박물관 발간 전주학 연구 창간호~제9집 참고(9권)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총서1~전주학총서33권 참고(총 33권)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 학술대회 자료 제1회 ~ 제18회 참고(총 18권)
		전주역사박물관, 2007,『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1890~1960년대-전주학총서13』
		최기우, 2011,『천년누리 산성마을 산성유람』, 산성공작소, 산성마을 공동운영위원회
	도시학	장명수, 1994,『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구술사	(재)전주문화재단, 2008,『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제1권 :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재)전주문화재단, 2008,『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제2권 :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격동시대 구술 실록(1945~1960)』
	사회학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지리/ 지명유래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
		변주승 역주, 2002,『여지도서』전라도 보유 Ⅰ, 디자인 흐름
		한글학회, 1991,『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논문	문화인류학	김희숙, 2010,『역사, 기억 그리고 향수의 정치』, 전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지역시민 발간물	생활공동체	김저운·한승헌, 2014,『50미터 안의 사람들-서학동 인생』,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조정란, 2016,『50미터 안의 사람들2-서학동 인생』,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지역사회	원수현, 2015,「내 인생의 동반자 “서서학동”」
이야기 지도	지역의 이야기	삼천문화의 집·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10,『계룡산지역삼천3동이야기지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주관 (사)전통예술원 모악, 2013, 『함대마을이야기지도(2013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우리가 만드는 삼천동이야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4,『전통과 자연의 도시 서학동 지도』
그 외 다수 문헌 수집 및 확인		

• 참고사이트 목록

〈표 2〉 주요 참고 사이트 목록

기관	사이트 주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국립전주박물관	http://jeonju.museum.go.kr/
농촌진흥청 흙토람	http://soil.rda.go.kr/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전주시청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전주역사박물관	http://www.jeonjumuseum.or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http://geoinfo.kigam.re.kr/
팔복동주민센터홈페이지	http://palbok.jeonju.go.kr/

• 면담 대상자 목록

〈표 3〉 면담 대상자 목록

면담 대상자	거주지	비 고
김경자	팔복동4가	시멘트 공장이야기
김순옥	팔복동2가	신복마을 이대 집 이야기
김재순	팔복동2가 동곡마을	동곡마을 옛 이야기
김정옥	팔복동2가 덕우마을	전주제지 일원 공간 변화
김춘식	팔복동2가 반룡리	반룡리 토박이
노봉순	팔복동2가 구주마을	구주마을 옛 모습
박근규	팔복동1가 신복마을	신복리, 상리 일대 옛 모습
박상철	팔복동1가	팔복동의 옛 모습
박옥엽	팔복동2가 새터마을	구주마을 일대 모습
박점순	팔복동2가	팔복동 일대 홍수 이야기
배춘자	팔복동4가 야전마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야기
서길섭	팔복동3가	전주페이퍼 공장 근무
소규용	팔복동2가 추천마을	신복리 당산나무 이야기
송봉수	팔복동2가	팔복동에 있었던 공장이야기
송옥순	팔복동4가 감수마을	팔복동의 혐오시설 이야기
송충덕	팔복동2가 유상리	팔복동에 있었던 시설
오한길	팔복동4가 야전마을	야전마을 이야기
원혜연	팔복동1가 신복마을	마을별 이야기

면담 대상자	거주지	비 고
유기호	팔복동2가	팔복동의 옛 모습
유영자	팔복동4가 감수마을	감수마을 일대 이야기
이동선	팔복동2가	팔복동의 옛 이야기
이분례	팔복동2가 추천마을	팔복동의 목욕탕 이야기
이쌍지	팔복동2가 상리	상리 일대의 논 이야기
이옥녀	팔복동2가 상리	추천마을 일대 당산 이야기
임병근	팔복동3가	팔복동의 지형변화
정옥례	팔복동2가 상리	상리마을 이야기
정찬모	팔복동2가	휴비스 공장 직원
정효남	팔복동2가 동곡마을	유제리, 동곡마을 일대
조영교	팔복동2가 추천마을	팔복동의 전성기
조윤례	팔복동2가 구주마을	구주마을 이야기
조춘자	팔복동4가 감수마을	삼수마을의 유래와 지명
최정오	팔복동2가 반룡리	반룡리 일대의 옛 모습
최태림	팔복동2가	태림부동산 운영
한오목례	팔복동2가 상리	상리마을 도축장 이야기

※ 총 34명 면담조사 진행 - 74개의 이야기 구조 수집, 면담보고서 34건

※ 공개에 동의한 면담자만 이름 공개, 부분적으로 주소지, 직업 등은 면담자 요청에 의해 비공개 된 부분 있음

Ⅱ. 팔복동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1. 팔복동 개관
2. 팔복동의 유래와 주요지명
3. 팔복동의 어제(선사시대~근·현대)
4. 팔복동의 문화자원
5. 팔복동의 생활·민속
6. 팔복동의 자연·생태 환경
7. 팔복동의 주요 도로망 체계
8. 팔복동의 주요 공간 체계
9. 팔복동의 인구·가구·산업 현황
10. 팔복동의 주요 각종시설 및 주민시설 현황
11. 기존 정책 현황 및 주민 주도형 사업 현황

Ⅱ. 팔복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1. 팔복동 개관

• 팔복동의 유래

팔복동은 본래 전주부성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외곽에 위치한 농촌 마을로, 행정구역상 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팔복동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1872년 조선시대 지방도를 살펴보면 팔복동의 유래가 되는 '팔(八)'이나 '복(福)'과 관련된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팔복동에 자리 잡고 있는 '신감', '상리', '추천리'의 마을 명칭이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때의 기록인 『전주부사』에서는 이동면 구주리에 대한 지명이 확인되고 조촌면에는 감천리, 유제리, 덕촌리의 지명이 확인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는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신복리에 대한 지명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그 외 주요 마을 이름들은 지명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동산농장'과 관련하여 마을들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일제강점기 중~후반기에 현재 알려진 마을들이 새로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팔복동은 기존 조촌면의 일부와 과거에는 전주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주하기 용이하지 않은 추천 인근 지역을 합쳐 현재 하나의 동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복동의 명확한 지명은 1957년 조촌면 일부가 전주시와 합쳐지면서 당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신복리와 조촌면 일대의 팔과정에서 '팔(八)'자를 따와서 팔복동이라고 하였다. 팔복동에서는 8명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8명의 선비는 홍남립, 이흥발, 이흥록, 필선 이기발, 장령 이후선, 진사 이생발, 선비 이순선, 송상주이다. 팔과정은 이 8명의 선비가 세운 정자라고 한다. 하지만 팔과정은 현재 추정되는 위치에 현대식으로 세워졌을 뿐 당시의 모습은 전하지 않는다.

1957년 이후 팔복동은 전주시의 외곽지역으로, 일부 영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동의 영역을 유지하였으며 각각의 주요한 마을을 중심으로 팔복동1가에서 팔복동3가로 나누었으며 1994년 동산동 내의 법정동인 고랑동에 포함되어 있는 감수마을 인근 지역이 편입되면서 팔복동1가의 일부를 편입하여 팔복동4가로 구획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팔복동은 총 4개의 법정동을 포함하여 그 영역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팔복동의 역사

팔복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교통의 요지’, ‘농촌의 모습’,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등이다.

팔복동이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주는 단초는 ‘호남대로 관련 기록’과 ‘원’의 존재였다. 조선시대의 호남대로는 전주부성의 서문지에서 나와 숲정이를 거쳐 현재의 하가지구 일대 그리고 팔복동 구주마을 일대~고랑동 일대의 나루터에서 강을 건넌 후 현재의 비비정 일대를 거쳐 삼례역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고지도 상에 잘 나타나 있다. 한양 도성까지 이동하는 호남대로 관련 기록이 있기는 하나, 팔복동 일대는 전주부성과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가 되기는 힘들었다. 조촌면의 유제리나 감천리, 동곡리와 같은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 풍경이 나타나면서 호남대로가 관통하는 길목이 팔복동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추천 일대에 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곳을 추천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팔복동의 구주마을 인근이 이러한 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 지방도에는 이 일대에 주막거리가 있었다고 언급되어 익산과 전주를 잇는 호남대로가 구주마을 일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팔복동은 일제강점기에도 교통의 요지였다. 팔복동이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주는 키워드는 ‘전군가도’와 ‘철도’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개설한 전군가도가 과거 호남대로와 중첩되며 팔복동을 지나갔는데, 현재 26번 국도와 동일한 노선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철도 교통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전북철도주식회사가 부설면허를 받아 1914년 10월 철길을 준공했다. 주요 철길은 현재 익산을 지나 삼례 그리고 철교를 건너 현재의 동산동-고랑동-팔복동4가-팔복동1가를 거쳐 기린대로를 따라 이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협궤식으로 개통을 했다. 1927년 10월에는 조선총독부가 이 철도를 매수하여 광궤로 개축하고, 경전북부선이라고 개칭했다. 팔복동에 철도가 들어서면서 철도 주변으로 새롭게 마을이 생겨났는데, 신복마을이 여기에 해당했다. 1919년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를 살펴보면 신복리가 철도 바로 옆에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팔복동은 인근 지역인 동산동의 ‘동산농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동산농장은 미쓰비시의 창업주인 이와자키 재벌에 의해 운영이 되었는데, 팔복동에 위치한 넓은 들판이 동산농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1945년 해방 이후 팔복동은 일제강점기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이 논과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팔복동은 아직 전주시가 아닌 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1957년에 팔복동이 완주군 조촌면에서 전주시 팔복동으로 동명이 개칭되고, 전주시 한 지역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전주시 편입 초기에도 팔복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띠었다. 1954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철도 시설과 전군가도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이었던 팔복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였다. 1968년에 전주제지는 현재 팔복동3가 일대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망이 정비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택 등이 건설되면서 팔복동에는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팔복동 1가를 중심으로는 1969년 삼양사에서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가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1985~1987년도에는 전주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총 180여개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섬유, 기계, 화학, 식품 등의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단이 들어서면서 팔복동의 많은 마을들이 해체되고 그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타지로 이주하게 된다. 반면에 구주마을, 신복마을 등은 주민들의 거주영역으로서 공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왔다.

현재는 전주 제1산업단지가 근 50여 년 간 이곳에 위치하면서 점차 시설의 노후화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공단을 떠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신복마을과 주변 일대에는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공단을 중심으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차후, 팔복동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팔복동의 역사에서 나타난 팔복동의 성격은 도시 산업화와 농촌 마을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팔복동 공단이 조성되면서 조용했던 농촌마을이었던 팔복동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팔복동에 있었던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하지만 일부 전통마을이 현재도 남아 있게 되면서 팔복공장단지 도시산업과 전통마을 공존은 팔복동의 특징이 되어갔다.

대한민국 산업이 경공업 중심이었던 1960년대~1970년대까지만 해도 팔복동 공단은 전주 핵심 산업지대였다. 이에 따라 팔복동에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팔복동은 1960~1970년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삶이 짙게 묻어나는 장소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꿈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구조 개편과 연관성이 있다. 대한민국 산업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공업 공장은 쇠락하고, 중화학 공장이 떠오르게 되었다. 팔복동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팔복동은 1994년 중화학공업단지 유치에 실패하였고, 팔복동 공단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공단이 급격히 쇠락하고, 혐오시설 등이 공단 주변에 입주하면서 팔복동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그나마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면서 전주첨단산업단지 및 탄소

산업밸리 등이 조성되고, 만성동과 동산동 그리고 팔복동2가 일대가 집중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팔복동 인근의 만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법조타운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팔복동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복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단의 역사와 공단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생활사, 노동운동 등을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팔복동 공단 이전 역사와 현재 팔복동 주민들의 생활사만으로는 팔복동의 특성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예전에 팔복동 공단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생생한 구술이나 팔복동 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팔복동 노동생활사, 노동운동사, 팔복동 공단의 장소성 등을 향후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팔복동을 구성하는 연결고리들이 연결되어 ‘총체적인 팔복동 읽기’가 가능해지리라 본다.

- 팔복동의 현황

현재 팔복동은 동의 성격상 전주의 주요 공업단지인 전주 제1공단과 전주 제2공단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과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편의 및 복지시설 등이 주요 시설로 확인된다. 주민들과 관련된 편의 시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 첨단산업단지 및 기타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기존의 팔복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 거주구역으로 구성된 동에 비해서 종교 및 주민편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관할 동 안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특이한 양상이다. 한때 팔복초등학교가 관내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 일대도 하이트의 물류센터가 위치하면서 동산동 안과 팔복동의 경계, 근접한 지역 일대에 팔복초등학교가 이전된 상황이다. 중·고등학교 또한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교육시설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동 내에 인구와 관련하여 학생의 분포가 거의 없어 동의 노령화의 진행 그리고 공장지대에 의해서 거주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팔복동은 공단과 주거지역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단의 활력,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 민·관의 주도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팔복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주도형 사업은 팔복동 정비사업(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팔복동 금학천 하천 정비사업,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팔복동 반룡마을 벽화마을 조성, 팔복동 야전마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2012~2015) 등이다.

팔복동 정비사업(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팔복동 금학천 하천 정비사업은 금학천을 생태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금학천은 노후 공단지역이면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이라고 한다.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은 철길 주변 폐공장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폐공장은 ㈜쏘렉스 공장으로, 예전에는 이 공장에서 카세트를 생산했었다. 현재는 이 공장 부지에 '팔복예술공장'을 세워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려는 도약을 하고 있다. 팔복예술공장과 철길 명소화 사업 등이 잘 시행된다면 팔복동 공단지대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일대가 새로운 문화 공간 및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 개소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팔복동 반룡마을 벽화마을 조성은 침체되어 있는 마을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팔복동 야전마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2012~2015)은 대표적인 침수지역 가운데 하나인 야전마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팔복동의 유래와 주요지명

팔복동은 본래 전주부성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었다. 전주부성 내는 도로를 통한 방리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면과 그 면에 속하는 리(里)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인위적이었으나 팔복동이 속한 조촌면 일원은 지형적인 부분과 치소(治所)와는 떨어져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명확한 방리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농사와 한국의 전통 마을 구조와 관련하여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피하고 용수의 구득이 용이하며, 농사를 짓는 땅과 가까운 지역의 점형의 촌락구조를 보였다.

〈표 4〉 전주시 팔복동의 연도별 행정구역명 변화

<table>
<tr><th>연도</th><th>구한말</th><th>1914</th><th>1930</th><th>1940</th><th>1946</th><th>1957</th><th>1957~
1993</th><th>1994</th><th>2005</th></tr>
<tr><td rowspan="3">행정명</td><td rowspan="3">전주부
조촌면
감천리
신감리
상리
추천리 등
자연부락</td><td rowspan="3">전주부
조촌면
덕촌리
감천리
유제리

이동면
구주리</td><td rowspan="3">변동없음</td><td rowspan="3">변동없음</td><td rowspan="2">신복리</td><td rowspan="2">팔복동1가</td><td rowspan="2">팔복동
1가</td><td>팔복동1가</td><td rowspan="3">팔복동</td></tr>
<tr><td>팔복동4가</td></tr>
<tr><td>동곡리 외
8개리</td><td>팔복동2가</td><td>팔복동
2가</td><td>팔복동2가</td></tr>
<tr><td>덕촌리
구주리</td><td>팔복동3가</td><td>팔복동3가</td><td>팔복동3가</td></tr>
</table>

팔복동이라는 지명은 본래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한 지명은 아니었다. 1872년 조선시대 지방도를 살펴보면 팔복동의 ‘팔(八)’ 그리고 ‘복(福)’과 관련된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팔복동의 마을지명 중에 하나인 ‘신감(新甘)’이라는 지명과 ‘상리(上里)’, 팔복동 일대의 전주천의 또 다른 이름에서 연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천리(楸川里)’의 마을명칭이 확인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기록인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대정 3년인 1914년 4월 1일 전라북도령 제2호에 의해서 전주부의 6개면에 대한 각각의 영역과 면에 속한 각 리(里)를 확정하였는데, 이동면 구주리에 대한 지명이 확인되고 조촌면에는 감천리, 유제리, 덕촌리의 지명이 확인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는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신복리에 대한 지명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그 외에 주요 마을 이름들은 지명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동산(東山)농장’과 관련하여 마을들이 새로이 재편되면서 일제강점기 중~후반기에 현재에 알려진 마을들이 새로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 결국 팔복동은 기존의

1) 이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일대의 동산농장과 관련하여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민들의

조촌면의 일부와 과거에는 전주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주하기 용이하지 않은 추천 인근 지역을 합쳐 현재의 하나의 동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복동의 명확한 지명은 1957년 조촌면 일부가 전주시와 병합되면서 당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신복리와 조촌면 일대의 팔과정에서 '팔(八)'자를 따와서 팔복동이라고 하였다. 1957년 이후 팔복동은 전주시의 외곽지역으로 일부 영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동의 영역을 유지하였으며 각각의 주요한 마을을 중심으로 팔복동1가에서 팔복동3가로 나누었으며 1994년 동산동의 고랑동에 포함되어있는 감수마을 인근 지역이 편입되면서 팔복동1가의 일부를 편입하여 팔복동4가를 구획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팔복동은 총 4개의 법정동을 포함하여 그 영역을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면 1〉 1872년 조선시대 지방도의 전주부성

증언이 있어 이를 좀 더 조사하면 마을의 연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각각의 마을은 예전부터 형성되었지만, 현재의 행정동 체계와 같이 대표적인 지명만 기록상으로 언급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다음은 팔복동의 중요한 지명의 목록과 이에 대한 해설이다. 팔복동 내에서 확인되는 지명은 현재는 많이 사라졌으나, 일부는 각 동의 중요한 위치로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고 수치지형도 상에도 표기되어 전해진다. 이들 지명은 그 동안 발행된 각종 지명유래집을 통해 참고하고자 한다[2].

1) 팔복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팔복동(八福洞)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453호 전주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완주군 조촌면의 동곡리, 동산리의 일부 신복리, 여의리의 일부 유제리를 편입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의하여 팔과정과 신복의 이름을 따서 팔복동이라 하는 동시에 신복리를 팔복동1가로, 동곡리를 팔복동2가로, 유제리를 팔복동3가로 하였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1, 2, 3가를 합하여 팔복동이 되었다.

- 가리내

  매화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팔복동의 인근의 하천인 추천(湫川), 그리고 마을 지명으로 구주리(舊酒里)를 지칭하기도 한다. 앞으로 가리내가 흐르고 있으며, 전에 주막이 있었다. 이 주막은 삼례로 이어지는 옛 호남대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투바우

  반룡리 동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다.

- 감천리(甘泉里)

  신행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맑고 맛이 좋은 샘이 있었다.

- 구석배미

  동곡리 동북쪽에 있는 논을 칭한다.

- 국골

  반룡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금액보

  가리내 동남쪽에 있는 보이다. 금액이란 사람이 만들었다.

---

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한글학회, 1991,『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완산구 팔복동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palbok.jeonju.go.kr/index.9is

• 김원묵 효자문(金元默孝子門)

팔과정터 동남쪽에 있는 효자 김원묵(金元默)의 정문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증직 받았다.

• 너벙바우

너방바우 모탱이에 있는 바위로 넓적하게 생겼다.

• 너벙바우 모탱이

감천리에서 신행리로 가는 사이에 있는 모롱이이다.

• 덕촌리(德村里)

감천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동곡리(銅谷里)

본래 전주군 조촌면의 지역으로서 동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예암리, 학상리, 상리, 신교리, 매화리, 구주리와 반룡리, 유상리의 각 일부와 이동면의 구주리 일부를 병합하여 동곡리라 하였는데, 1957년 11월 6일 전주시에 편입되고,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의하여 팔복동2가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1월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팔복동에 편입되었다.

• 매화동(梅花洞)

상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매화나무가 많이 있었다.

• 반룡교(盤龍橋)

반룡리 남쪽에 있는 다리로 길이는 8m이다.

• 반룡리(盤龍里)

동곡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산에 용혈이 있다고 한다.

• 버드랑죽(유제리)

비석날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버드랑방죽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

• 버드랑죽 방죽

유제리 동쪽에 있는 방죽으로 넓이는 약 6,000평 되었으며 1936년에 개축하였다.

- 비석날(예암리, 禮岩里)

  학상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 비석이 서 있는 산등성이가 있다.

- 상리(上里)

  팔복동 중심에 있는 마을이다.

- 신교리(新橋里, 新喬里)

  상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신복리(新福里)

  신교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는 팔복동 내의 마을 중에 가장 크고 팔복동의 ‘복’은 이 신복리에서 따와서 동 명칭이 붙여졌다.

- 신행리(新杏里)

  버드랑죽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여쉬바우

  학상리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전에 여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와룡보(臥龍洑)

  신복리 동북쪽에 있는 보이다.

- 용골

  덕촌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용골방죽

  용골에 있는 방죽으로 넓이는 약 4,000평이다.

- 용산교(龍山橋)

  과거 덕진동과 팔복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용산다리라고도 한다. 현재는 기린로의 개설로 인하여 8차선의 도로로 확장하면서 그 옆에 새로운 다리가 개설되었으며 추천대교로 명칭이 부여되었다.

- 용쏘(용소, 龍沼)

  덕촌리 남쪽, 황방산 기슭에 있는 늪을 칭한다.

• 유상리(柳上里)

반룡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유제(柳堤)

버드랑죽방죽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 유제리(柳堤里)

버드랑죽과 동일하며 마을의 정식명칭이다.

• 주택촌 (住宅村)

추천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6·25사변 후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후생주택이 세워졌다.

• 지앗골

비석날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장골 방죽

황새골 동쪽에 있는 방죽으로 넓이는 약 4,000평이다.

• 천만보

주택촌 동쪽에 있는 보이다. 천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

• 추천교(楸川橋)

신교리 동쪽에 있는 다리이다. 길이는 30m. 덕진동의 용산평과 가깝다.

• 추천대(楸川臺)

가리내 동쪽, 냇가에 있는 대. 전주 이씨 추탄파(楸灘派) 문중에서 고종 3년(1866년)에 만들었다.

• 추천원 터(楸川院-터)

가리내에 있는 역원의 터이다.

• 팔과정 터(八科亭-)

동곡리와 반룡리 사이에 있는 정자 터이다. 인조 때 판교(判敎) 홍남립(洪南立), 사간(司諫) 이흥발(李興浡), 목사(牧使) 이흥록(李興錄), 필선(弼善) 이기발(李起浡), 장령(掌令) 이후선(李厚先), 진사 이생발(李生浡), 이순선(李循先), 송상주(宋尙周)의 여덟

사람이 함께 세웠다.

• 학상리(鶴上里)

동곡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황새골

지앗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 팔복동 일대의 주요 자연 지명

• 황방산(黃方山)

다른 명칭으로는 홍산(洪山), 서고산(西固山)이라고 한다. 시의 효자동·동산동·팔복동에 걸쳐서 위치한 산이며 해발고도는 217m이다. 『여지도서』(전주)에 서고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전주부)에는 "관아의 서쪽 15리에 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고산 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인 서고사가 있다. 서고사는 908년(후백제 견훤왕 17년)에 명덕(明德)이 창건하였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주시)에 도읍을 정한 뒤 동서남북에 각각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을 두고 각 진마다 사찰을 지어 외침을 막고자 하였다. 본래 이 사찰은 서고진에 있었다. 1363년 혜공(惠空)이 중창, 벽송이 지엄하고 1951년에 중수하였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 미륵전, 오사채 2동이 있으며, 유물로는 대웅전 안에 소형 석불이 전한다. 효자동 방면에서는 홍산이라고 부르며, 홍산리, 홍산교회 등의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동산동, 팔복동 방향에서는 황방산이라 칭하며 이는 시역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완주군 조촌면과 이서면의 경계를 이룬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고사 이외에도 천고사(天高寺)등이 있다.

• 추천(楸川)

순 우리말로 가르내라고도 한다. 시의 송천동과 팔복동의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다. 전주천과 삼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소양천과 다시 합해지는 곳까지의 하천이다. 전주천과 삼천이 함류하는 지점에는 추천대가 있다. 덕진동과 팔복동 사이에는 다리를 건설하여 추천대교(楸川大橋)라 칭했다. 『여지도서』(전주)에는 횡탄(橫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아의 서쪽 30리에 있다. 남천, 삼천, 대야소천 물줄기가 합류하여 횡탄을 이루며, 또 서쪽으로 흘러가서 신창진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금학천(金鶴川)

팔복동을 남-북으로 흐르는 전주천의 지류 소하천이다. 금학천과 관련된 옛 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금학천은 현재 전주제지가 위치한 황방산의 북서사면 일대에서 시작하여 일부는 전주제지 공장 시설에 의해서 복개된 상태로 그 수로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본 유로는 팔복동2가 393-14번지에서 확인되며 팔복동4가 249-25번지 일원에서 살짝 북동방향으로 꺾여서 직강화된 하천 유로를 따라 흘러가고 팔복동4가 1082-6번지 일원에서 전주천(추천)의 본류와 합류한다. 현재 금학천은 이 일대의 공장 건립, 도로건설 등으로 많은 부분이 복개된 상태이며 일부는 현재 남아있는 철로와 함께 평행하게 인공적인 수로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오염 원인을 제거하고자 자연형의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3. 팔복동의 어제 (선사시대~근·현대사)

팔복동의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전주의 도심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는 팔복동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전주부성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록상의 역사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없지만 다행히도 일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대규모의 유적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와 관련된 팔과정, 조선시대 추탄 이경동과 관련된 추천대, 호남대로의 현황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일부 팔복동의 과거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음 시대별 역사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일부 조사단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선사시대(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

팔복동 일원은 어느 지역보다도 선사시대와 관련된 유적들이 발굴된 사례가 많다. 이는 팔복동 일대에 대한 공장부지 및 1997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이후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활발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팔복동 내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고고학(선사시대) 유적은 유상리(柳上里)유적[3]과 반용리(盤龍里)유적[4]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주거지, 수혈(저장고 기능 추정, 묘제(墓制)로는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먼저, 구석기시대를 살펴보면, 반용리유적에서는 몸돌과 격지가 유적을 확인과정 중에서 조사가 되었다. 먼저, 지표조사 과정에서 1점의 규암으로 제작된 찍개(chopper)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는 현재 반용마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구석기조사 부분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규암 혹은 석영맥암으로 제작된 투박한 석기가 아닌 새로운 석재인 유문암을 활용하여 몸돌, 격지의 석기제작부산물과 함께 1점의 홈날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확인된 제4기 홍적층은 정상부에 잔존하고 있어서 비교적 구릉 하단부의 층보다는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유물의 출토가 유구(遺構)를 확인하고자 겉흙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겉흙층이 아래의 명갈색 사질점토층과 부정합의 관계인 것으로 보아 유물은 명갈색 사질점토층의 출토맥락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인근 지역의 사례를 들어 유물과 그 맥락은 기원전 20,000년 내외의 연대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팔복동 내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유적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효자5지구 그리고 장동 유통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

3)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전주 유상리 유적』, 전주시·(재)전북문화재연구원.
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전주 반용리 유적』, 한국토지주택공사·(재)전북문화재연구원.

었기 때문에 팔복동에도 하천 인근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유상리 유적에서 저장기능을 하였던 수혈(竪穴, 저장고 가능성)유구와 그리고 반용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원형을 형태를 가진 송국리형(松菊里형)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조사과정의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 3기 이상의 주거지가 취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속적인 경작활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에서는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바닥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다짐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송국리형 토기편(무문토기편), 심발형토기편, 석검편,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동일한 시기의 송국리형 토기를 이용하여 2개의 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직치(直置)와 사치(斜置)의 형태로 옹관을 매납하였으며 옹관은 일상적인 용기를 활용하였다. 주거지의 형태와 유물 상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이들 송국리형의 주거지와 옹관묘는 기원전 6세기 내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선사시대 유적은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후대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인위적, 자연적 영향으로 인하여 정확한 당시의 촌락 형태 그리고 옛 사람들의 다양한 흔적이 양호하게 보존된 상태이다. 최근 기린대로 건너에 전주 탄소밸리 3-1단계 조성과정 중에서 청동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대단위의 취락이 확인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95% 정도가 동산동에 포함되었는데, 일부 팔복동4가도 포함되어있다[5]. 이곳에서는 반용리 유적과 동일한 원형의 송국리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규모와 유물의 출토량이 많음) 그 이전의 비파형 동검단계와 동일한 전기 청동기시대의 대형의 방형주거지가 몰려있는 대단위 취락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팔복초등학교와 전북여자고등학교의 넓은 들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현대시멘트와 팔복동의 일대에도 연결되어 대단위의 선사시대 취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전주 1공단이 위치한 곳의 평지는 1997년 문화재보호법의 강화 이전에 시설물들이 건설되어 그 흔적은 많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원삼국(마한)~삼국시대[6]

팔복동 내에서는 마한과 관련된 주거지도 확인되었으며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출토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의 수혈(저장고)도 확인되었다. 먼저 마한과 관련하여 5기의

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5,『전주 동산동 청동기 취락』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5,『전주 동산동 유적』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전주 동산동 쪽구름 유적』

6) 고고학에서는 마한, 번한, 진한과 관련된 시기를 삼국의 기원이 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원삼국(原三國)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이에 대해서 고구려, 부여, 동예, 옥저 등의 포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열국시대 혹은 남부지방 만을 따로 삼한시대라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통일된 시대명이 없는 상황이다.

주거지가 유상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유상리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내부에는 건물의 기둥시설과 관련하여 주공(柱孔)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장란형토기와 석기, 단경호편, 호형토기 및 시루편으로 토기의 재질과 형태 그리고 문양 등이 전형적인 마한계 토기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고 유상리유적과 반용리유적에서는 백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거지나 건물지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상리유적에서 전형적인 백제의 수혈(저장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구가 9기가 확인되었으며 반용리유적에서는 30기 정도의 백제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백제 수혈에서는 제의용기로 추정되는 삼족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이 지역이 인위적,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온전한 형태를 잃은 것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팔복동에는 마한~백제의 대규모의 취락 구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최근 전주 탄소밸리 3-1 조성과정 중에 확인된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층위 바로 위에 대규모의 마한~삼국시대 주거지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지는 팔복동 일원의 평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마한~삼국시대까지 취락 구조의 일단면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동산동과 팔복동4가, 1가 일대에 형성되어있는 충적지 상에서는 대규모의 주거 및 농경과 관련된 구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용리와 유상리 일대 그리고 여의동으로 이어지는 구릉 지대는 소수의 주거군과 함께 홍수의 피해로 인하여 부패될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안전한 저장 공간으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다.

기록상으로는 이 시기에 팔복동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치 행위와 취락의 변천사를 알 수는 없다.

3) 통일신라~후백제

통일신라 ~ 후백제 기간 동안 팔복동 일대의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중심지의 외곽에서 떨어져 있는 동의 성격에 의해서 기록상으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팔복동 인근의 황방산과 관련하여 황방산성 그리고 반용리유적에서 확인된 고고학적인 유적을 통해 일부 이 시기의 역사적인 사건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팔복동의 남쪽에는 효자동과 만성동에 걸쳐 황방산의 7~8부 능선 상에는 삼국시대의 백제의 성으로 추정되는 서고산성(황방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일부 지표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어 백제 때 초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 내와 주변에서 확인되는 기와와 경질토기편은 나말여초(羅末麗初)로 판단되는 것들이 다수를 이룬다. 견훤이 완산주를 점령하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을 당시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왕성(황성)을 중앙 기점으로 하여 4개의 진(鎭)을 설치하였는

데 그 중 서쪽을 방어하는 곳이 현재의 황방산의 서고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고산성 내에서는 통일신라 후반기의 기와편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용리유적은 황방산의 북서능선상의 저구릉성 산지 지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2개동의 당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호 건물지는 장방형의 건물지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동향으로 비교적 큰 구조의 건물이며 1호 건물지가 폐기된 후에 바로 2호 건물지가 건축되었다. 2호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1호 건물지와 비교하여 비교적 작은 건물지로, 두 건물지간의 유물과 층위적인 축조양상을 통해 시기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건물지는 초석과 적심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초석을 통해 당시 건물은 관(官)과 관련된 건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출토된 기와의 제작기법과 문양 등을 전라감영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동고산성의 건물지와 비교 하였을 때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후백제와 관련된 건물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팔복동 일대는 후백제와 관련하여 도성의 방어와 그와 관련된 관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4)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관한 팔복동의 역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유적 또한 존재하지 않아 고려시대 팔복동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기록적인 부분에서 팔복동은 외적의 침입과 호남일대를 연결하는 옛 도로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어 부분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전주는 1018년(현종 9년)에 이전의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하여 현재의 전주와 나주를 잇는 도로의 명칭을 따서 전라도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였으며 수도 개경을 잇는 내륙 지방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서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의 수도 개경으로 통하는 이 지역의 도로망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조선시대의 호남대로의 길이 고려시대 때에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재 남원의 운봉면, 아영면 일대에 준동하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이 지역을 거쳐 가게 되고 황산전투의 큰 승리 후 오목대에서 종친들과 승전잔치를 벌이고 대의(大義)를 다지는 과정 중에 수도 개경으로 복귀하는 길목인 삼례(參禮)[7]에서 세 번의 예를 갖추었다는 야사(野史)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팔복동 일대의 길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7) 조선시대의 호남대로는 전주부성의 서문지에서 나와 숲정이를 거쳐 현재의 하가지구 일대 그리고 팔복동 구주마을 일원~고랑동 일대의 나루터에서 강을 건넌 후 현재의 비비정 일대를 거쳐 삼례역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고지도 상에 잘 나타나있다.

몽고의 침입과 관련하여 고종 24년(1237년) 몽고군의 3차 침입 때 “전라도 지휘사(指揮使) 상장군(上將軍) 전보구(田甫龜)가 몽고병이 전주 고부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8]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주와 고부의 경계는 김제의 금구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고군의 주력은 기마부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팔복동 일대를 거쳐 전주목의 서북쪽을 통해 침입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는 더 이상 팔복동 일대의 고려시대와 관련하여 추정할 수 있는 사건들은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5) 조선시대

팔복동의 조선시대에 관한 역사기록은 앞서 고려시대에서 살펴보았던 한양 도성까지 이동하는 호남대로와 관련한 기록은 고지도를 통해 나타나며 조선시대의 삼례역과 전주부성의 서문(패서문)을 이어주는 사이의 길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록들은 전주부성 내에서만 존재를 하고 있으며 팔복동 일원은 전주부성과는 한참 떨어진 외곽지역으로서 역사의 중심지는 될 수 없었다. 조촌면의 유제리와 감천리 동곡리 등과 같은 큰 마을에 관한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일대를 중심으로는 전형적인 자연촌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에 팔복동은 선비들이 많이 급제한 곳이다. 특히, 팔복동에서 여덟 명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 8명의 선비는 인조 때로 판교를 지낸 홍남립, 사간 이홍발, 목사 이홍록, 필선 이기발, 장령 이후선, 진사 이생발, 선비 이순선, 송상주[9]에 의해서 팔과정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한다. 하지만 팔과정은 현재 추정되는 위치에 현대식으로 세워졌을 뿐 당시의 모습은 전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추천 일대에 원(院)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이곳을 추천원(楸川院)이라고 불렀다. 『대전통편(大全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에서는 이 일대는 원으로 지정되어 지방 수령이 부근의 주민을 정하여 원주(院主)로 삼고 이를 보수시키며 원주로 정한 호(戶)는 각종 부역에서 면제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의 팔복동의 구주 마을 인근이 이러한 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72년 지방도에는 이 일대에 주막거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익산과 전주를 잇는 호남대로가 구주마을 일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팔복동의 조선시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유상리유적과 반용리유적에서 일면을 알 수 있다. 두 유적에서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조선시대의 토광묘와 회곽묘가 확인되었다. 유상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가 264기, 회곽묘가 38기 확인되었다. 그리고 반용리유적에서는 토광묘가 390기가 확인되었는데 유적 내에서는

8) 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97, 『전주시사(全州市史)』
9) 각각의 인물들은 제 4장의 문화적 자원의 역사적인 인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회곽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두 유적의 조선시대 분묘의 총합은 692기로 전주에서는 유례가 없는 집단 매장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주 탄소밸리 3-1 사업 구간 내에서는 조선시대의 농경과 관련하여 소와 사람의 발자국 그리고 논에 물을 대던 수로 및 논 둑과 관련된 퇴적층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하였을 때 조선시대의 팔복동의 모습은 황방산의 저구릉성 산지 지역 일대는 무덤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였고 그 아래에 하천과 인접한 저평한 들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점촌의 형태로 가옥들이 취락을 이루는 경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팔복동에서 확인된 분묘들은 명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출토된 유물과 회곽묘의 등장과 관련하여 15세기에 묘지가 조성되어 17~18세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10)]

6)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팔복동의 구한말~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전주부성에 속한 도심지와는 다르게 큰 줄기의 사건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팔복동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19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전봉준은 김도삼, 정익서, 최경선 등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고부관아를 습격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려온 안핵사(按覈使) 이용태가 파견되는데 오히려 이용태는 사후처리를 기회삼아 동학(東學)교도를 탄압하면서 1894년 4월 전봉준은 김기범, 손화중, 최경선 등의 동학접주들과 함께 현재의 고창군 무장현에 모여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안민(輔國安民)'를 천명하고 인근의 10여 읍에서 합류한 1만 여명의 병력을 모아 전주로 진군하였다. 그리고 조선 관군들과 정읍의 황토현(黃土峴)에서 싸움을 벌여 승리하고 3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 중에 동학농민군과 조선의 관군들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놀란 조선 정부는 청군에 4월 29일 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청과 일본의 텐진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은 청군의 진군과 함께 군대를 한반도에 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5월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탐관오리의 처단과 고종의 윤음에 의해 농민군의 해산과 함께 집강소가 설치되어 전라도 일대를 통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군과 일본군의 진주로 인하여 외세의 침략 앞에 불안한 정세를 보인다. 그리고 김홍집 내각을 통해

10) 유적 내에서 확인된 유물은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초반에 주로 제작된 분청사기 대접, 접시 등이 출토되었으며 1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것은 백자발과 백자대접, 접시 등이 있다. 유상리에서 확인된 회곽묘는 17세기 이후로 추정되는데 회곽묘의 조성은 조선정부의 엄격한 규제대상이었으며 회곽에 사용되는 석회는 왕이 주요한 대신들에게 하사하는 품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는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틈을 따서 지방의 향리나 유지들도 회곽묘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계로 하여 조선 전·중기에는 지방사회에서는 토광묘의 조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부장품으로 실생활 용기 그리고 청동, 철제 부장품들을 부장하나, 전쟁 이후에는 유력한 집안을 중심으로는 소형의 명기(冥器)를 부장하다가 차츰 부장품을 매납하지 않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의 내정간섭을 하였으며 조선에 있는 청군을 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리고 1894년 7～9월에 걸친 2달간의 전쟁 끝에 일본은 청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의 야욕이 더욱 드러나자 1894년 9월 전봉준과 김개남은 전국의 동학교도들에게 사발통문을 띄웠으며 이로 인하여 남접 10만명 북접 10만 총 20만의 병역이 동원되었으며 전주부 삼례읍에서 다시 봉기하였다(삼례봉기). 이러한 봉기 과정에서 호남 일대의 병력들은 호남대로를 통해 삼례로 모였으며 팔복동 일대는 이들의 이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급격하게 늘었을 것이다.

하지만 ‘척왜(斥倭)’의 기치를 내걸은 동학 농민군은 공주 일원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공주와 우금치 전투에서 맞붙게 된다. 하지만 농민군들은 일본과 정부군의 신식 무기 앞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더욱 침략과 수탈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1907년 전주부성의 서문일대를 철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호남대로를 따라 전군가도를 개설하게 되며 이후 이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된다. 전군가도는 과거 호남대로와 중첩되며 팔복동을 지나가게 되며 현재 26번 국도와 동일한 노선이다. 그리고 1910년 국권을 잃은 후에는 전북철도주식회사가 부설면허를 받아 1913년 1월에 착공을 하여 다음 해인 1914년 10월에 준공을 하였는데 주된 철길은 현재 익산을 지나 삼례 그리고 철교를 건너 현재의 동산동-고랑동-팔복동4가 - 팔복동1가를 거쳐 기린대로를 따라 이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협궤식으로 개통을 했다. 그리고 1927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이 철도를 매수하여 광궤로 개축하고 경전북부선이라고 개칭하였다.

팔복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교통의 중심지로서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지로서 전주 입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팔복동 주변으로는 큰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마을이 신복마을 이었다. 1919년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를 살펴보면 신복리가 철도 바로 옆에 형성되면서 비교적 큰 마을로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팔복동은 바로 인근 지역인 동산동의 ‘동산농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동산농장은 미쓰비시의 창업주인 이와자키(岩崎) 재벌에 의해 운영이 되었으며 이는 구한말부터 지속적으로 친일 정권의 묵인 아래에 싼 가격으로 이 지역의 땅을 불입 받으면서 농장의 규모를 키워왔다. 팔복동에 위치한 넓은 들판들 또한 이 동산농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그리고 동산농장의 또 다른 산업으로 이 지역 일대에 대규모로 뽕나무를 재배하였는데 이는 동산농장 내의 잠업(蠶業)에 쓰일 뽕나무 잎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사를 통해 명주실을 만들고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 때 까지 여기서 뽑아낸 잠사는 전쟁물품으로서 낙하산을 제작하는 데 쓰였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11]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일본인들에게 소작을 주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그나마 전쟁과정 중에서 곡물들을 많이 수탈하고 징용자 또한 많았다고 한다[12].

7) 해방 이후~현재

1945년 해방 이후 팔복동은 이전의 일제강점기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전에 일본인들의 소작을 주던 주민들은 일본인들이 빠져 나가고 그대로 논과 밭을 일구면서 살아왔다. 도심지에서는 치열하게 좌·우익간의 다툼이 전개되고 시위와 테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팔복동은 시골마을의 환경에서 이러한 이념적인 다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조용하던 동네는 한 때 학살과 관련하여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전주가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황방산 기슭에서 대규모로 처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도연맹에 가입한 마을의 순진한 사람들은 군·경의 검속에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13].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공산치하에서도 우익 인사에 대한 학살 과정에서도 또 일어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주민의 증언이나 기록은 팔복동 일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행히도 일부 중앙동 일대에 대한 공습을 제외하고는 팔복동 일대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 이렇다할 전투와 수복 이후 빨치산과의 교전 그리고 피해는 거의 없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고 난 이후 1957년에는 팔복동은 완주군 조촌면에서 전주시 팔복동으로 동명이 개칭되고 전주시 한 지역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팔복동은 새로운 공단지대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현재 팔복동3가 일대에 당시 삼성의 계열사인 전주제지가 1968년에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서 팔복동에 공단이 설치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도로망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택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공단의 건설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팔복동1가를 중심으로 1969년 삼양사에서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가 확장되게 된다. 그리고 1985~1987년도에는 전주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총 180여개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

11) 비슷한 맥락에서 잠사에 관한 이야기는 동산동에 대한 마을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주역사박물관, 2010,「전주시 마을조사(덕진구)」『전주학연구 제3집』.
12) 징용에 관한 증언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13) 동산동에 관한 마을조사 내용에서도 이와 동일한 증언이 있으며 (재)전주문화재단에서 발간한『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에서도 이러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섬유, 기계, 화학, 식품 등의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단이 들어서면서 팔복동의 많은 마을들이 해체되고 그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타지로 이주하게 된다. 반면에 구주, 신복마을 등은 주민들의 거주영역으로서 공단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

현재는 전주 제1산업단지가 근 50여 년간 이곳에 위치하면서 점차 시설의 노후화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공단을 떠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신복마을과 주변 일대에는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공단을 중심으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도시재생 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차후, 팔복동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 팔복동의 문화자원[14)]

팔복동은 전주천(추천) 너머의 전주시의 외곽으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과 비교하여서는 특출난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팔복동에는 전주제지의 설립과 함께 전주의 특색있는 한지 문화와 관련하여 전주한지박물관이 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지박물관은 다양한 고서들을 보관하고 있어 전주에서는 국립전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물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제4장의 내용에서는 전주 한지 박물관에 수장된 주요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팔복동 각지에서 확인된 유적과 각종 사업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의 내용을 수록하고자 한다.

1) 유형문화재

- 추천대
  - 유적유물 : 유적존재
  - 시대 : 조선시대~구한말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6번지
  - 문화재 등록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8호

  이 정자는 조선 성종 때 병조참판·대사헌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이경동(李瓊仝)이 고향에 돌아와 앞의 추천(楸川)에 낚시를 드리우고 만년을 보내던 곳이다. 이경동은 세조 8년(1462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인물이다. 대한제국 광무 3년(1899년)에 후손 이정호(李正鎬)가 이경동의 발자취가 서린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정자를 세우고 추천대라 이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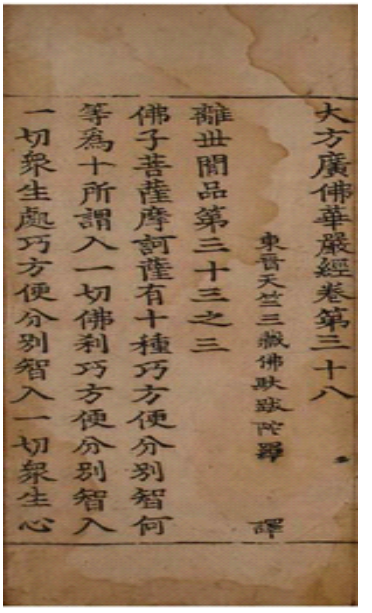
14) http://gis-heritage.go.kr/re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문화유적분포지도 - 전주시- 』.

•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 제38(大方廣佛華嚴經晋本 卷 第三十八)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보물 제1192호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한문로 풀이한『화엄경』진본 60권 중 제38권에 해당한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32㎝, 가로 12㎝이다. 검푸른 색의 표지에는 제목과 그 아래에 진본(晋本)을 나타내는 ‘晋(진)’자가 금색 글씨로 써 있다. 고려 숙종대(재위 1096~1105)에 간행된 목판본을 보고 해인사에서 고려말에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77]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離世間品第三十三之三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巧方便分別智何等爲十所謂入一切佛刹巧方便分別智入一切衆生處巧方便分別智入一切衆生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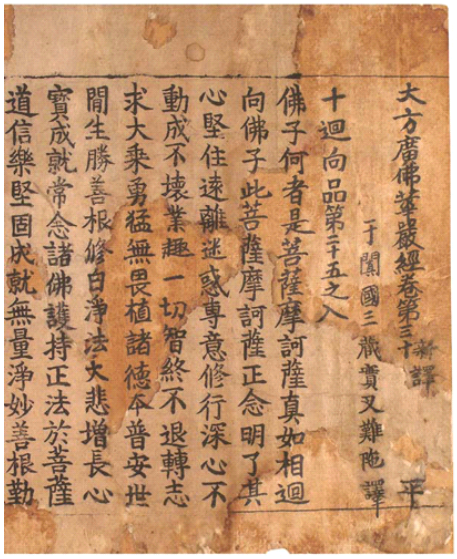


•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제삼십(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 第三十)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보물 제1191호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당나라의 실차난타가 번역한『화엄경』 주본 80권 가운데 권30의 내용을 1책으로 엮었으며, 고려 현종 때 새긴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이어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은 형태이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표지가 없어지고, 첫째 장에 제목 등 약 20여자가 없어졌다. 책 제목 아래 신역(新譯)이란 표시가 있어서 이 책이 화엄경 주본 80권을 옮겨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임을 막기 위해 판각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으로, 해인사대장경보다 글씨가 힘이 있고, 새김이 정교한데, 매 행(行)의 글자수가 14자로 해인사본의 17자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초조본은 종이질이나 인쇄상태로 보아 11세기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77]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 新譯
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
十迴向品第二十五之八
佛子何者是菩薩摩訶薩真如相迴
向佛子此菩薩摩訶薩正念明了其
心堅住遠離迷惑專意修行深心不
動成不壞業趣一切智終不退轉志
求大乘勇猛無畏植諸德本普安世
間生勝善根修白淨法大悲增長心
實成就常念諸佛護持正法於菩薩
道信樂堅固成就無量淨妙善根勤



•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제삼십육(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 第三十六)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국보 제277호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년)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중권 제36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28.5㎝, 가로 891㎝의 종이를 17장 이어붙인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 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도 장수를 ‘장(丈)’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 글자수가 23행 14자로 해인사대장경의 24행 17자와 다른 점, ‘경(敬)’자에 한 획이 빠진 점 등으로 볼 때 초조대장경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인쇄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때 고려 현종 때인 11~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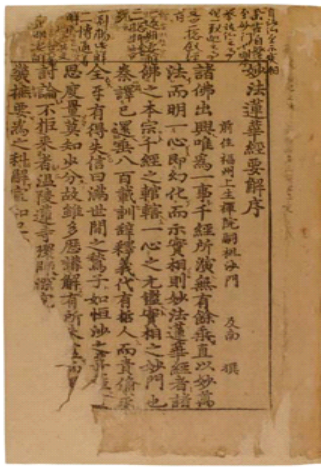


• 묘법연화경 권 제1~3(妙法蓮華經 卷 第一～三)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법화경 가운데 권1～3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며, 크기는 세로 27.5㎝, 가로 16.5㎝이다. 책의 첫머리에는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그려져 있고, 악귀를 쫓는 일을 하는 신장(神將)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그림의 밑에는 '보능(寶能)이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앞장의 아래쪽 모서리가 파손되었으나 본문은 상태가 양호하며, 본문에 끊어읽기를 표시한 토(吐)가 적혀있어 누군가가 사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의 끝에는 황진손이 글씨를 쓰고, 옥룡사의 스님 신민(信敏), 대선사의 스님 신의(信義) 등이 시주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묘법연화경과 같은 판본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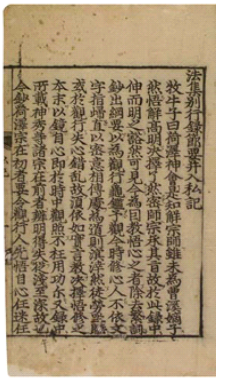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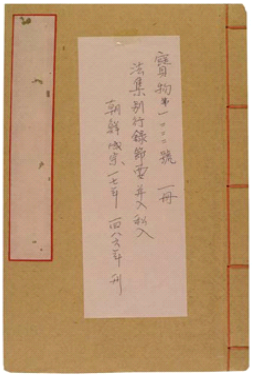
- 법집별행록절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고려 중기의 고승인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고려 희종 5년(1209년)에 저술한 책으로 조선 성종 17년(1486년) 광주 무등산 규봉암에서 간행하였으며, 1권 1책이다. 지눌은 8살 때 구산선문 가운데 사굴산파에 속했던 종휘에게 나아가 승려가 되었다. 당시 불교사회의 종파간 대립을 멀리하고 자유롭게 공부하였으며, 고려 명종 12년(1182년) 승과에 급제한 후에는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참석한 승려들과 함께 정혜결사를 맺었다. 지눌의 사상은 교종과 선종을 따로 나누지 않고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여 참선하면 그 요령을 얻게 된다는데 있다. 이 책은 보조국사 지눌이 사상적으로 가장 원숙했던 시기에 집필한 책으로 지눌의 선(禪)사상이 결집된 한국철학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찰강독의 교과서로 현재까지 교육되고 있다. 이 판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보물 제1148호로 지정된 판본과 동일한 연대이기는 하나 이보다 더 깨끗하고 책 끝에는 대걸(大傑)의 발문이 붙어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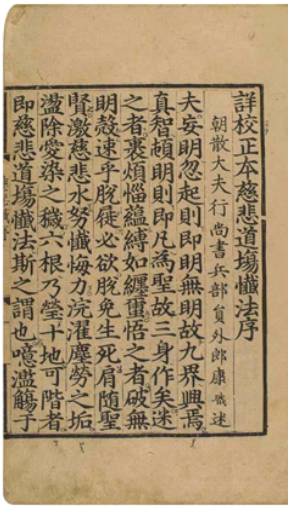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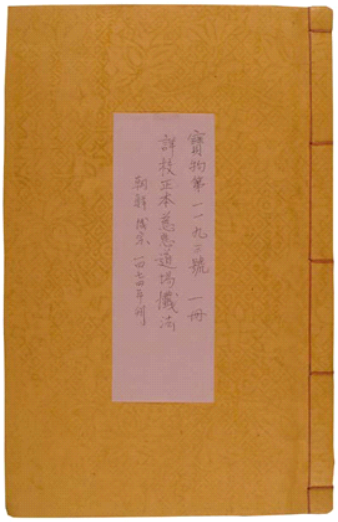
• 불조삼경(佛祖三經)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보물 제1224호

불조삼경은『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사십이장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장 먼저 전래된 경전이고, 불유교경은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며, 위산경책은 중국 위상종의 창시자인 위산영우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1책으로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다.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16.3㎝, 가로 23.7㎝이다. 책머리에 있는 몽산화상이 쓴 글을 통해 고려 후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글씨체로 보아 송나라 시대에 새긴 판을 원본으로 하여 다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책 끝부분에 이색이 쓴 글에서는 고려 우왕 10년(1384년)에 지봉(志奉), 지도(志道), 각온(覺溫) 등이 김씨의 시주로 다시 펴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글자의 새김이 정교하고 인쇄 상태가 선명하며, 개인의 시주로 책을 인쇄했다는 점과 송나라 글씨체를 본떠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불설사십이장경』(보물 제695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97]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序
朝散大夫行尚書兵部員外郎康職述
夫妄明忽起則即明無明故九界興焉
真智頓明則即凡爲聖故三身作矣迷
之者裹煩惱蘊縛如纏重悟之者破無
明殼速乎脫屣必欲脫免生死肩隨聖
賢激慈悲水努懺悔力浣濯塵勞之垢
盪除愛染之穢六根乃瑩十地可階者
即慈悲道場懺法斯之謂也噫濫觴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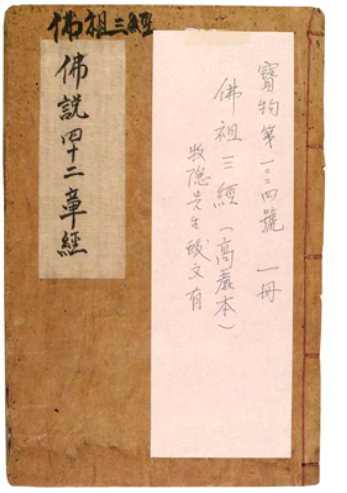
•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 권 제1~5(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 第一～五)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보물 제1193호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으로,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기며, 나아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나라의 무제가 황후치씨를 위해 처음 지었으며, 그 뒤 여러 고승들이 10권으로 개편한 바 있었는데, 이 책은 원나라 때에 잘못된 부분을 자세히 교정한 정본(正本)에 해당한다. 이 책은 10권 가운데 제1～5권으로 5권이 1책으로 묶여있다. 나무에 새겨서 닥종이에 찍었으며, 크기는 세로 37.3㎝, 가로 24㎝이다. 책 끝의 간행기록이 없어서 간행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념미타도량참법』권 1～5, 6～10(보물 제949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조선 성종 5년(1474년)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 조선시대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판본 중 하나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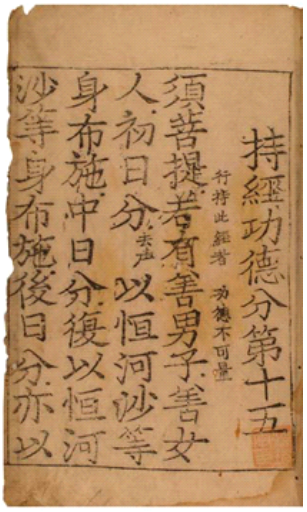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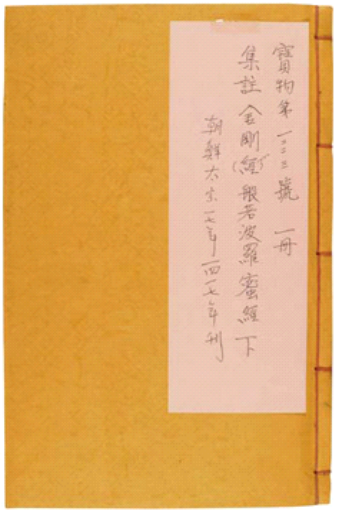
• 집주금강반야바라밀경〈하〉(集註金剛般若波羅密經〈下〉)

- 유적유물 : 유물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번지 전주한지박물관
- 문화재 등록 : 보물 제1223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도 부르는 조계종의 근본경전으로, 금강석과 같은 견실한 지혜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것을 주요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심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이 책은 금강경에 대한 여러 명의 풀이집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전체 32분(分) 가운데 제15분(分)부터 제32분(分)까지 수록되어 있다. 태종17년(1417년)에 나무에 새겨 닥종이에 찍어낸 것이며, 크기는 세로 27㎝ 가로 17.5㎝이다. 책의 끝부분에는 경전이 지향하는 바를 적은 글과 영경사(永慶寺)의 도과법사(道顆法師)가 돌에 새겨 찍어낸 것을 원본으로 했음을 밝히는 글이 있다. 이어 본문의 교정표·육조대사의 서문·간행경위를 적은 기록이 있는데, 간행기록 외에는 원본에 붙어 있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 총람』, 1977
전라북도, 『전북문화재대관』, 1977]


持經功德分第十五
行持此經者 功德不可量
須菩提若有善男子善女
人初日分以恒河沙等
身布施中日分復以恒河
沙等身布施後日分亦以



• 덕촌 유물산포지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덕촌 마을 남동편 구릉
- 조사기관 : 전주역사박물관

팔복동 덕촌마을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구릉의 경사면이다. 황방산에서 뻗어 나온 북동측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되며 현재는 대부분 계단식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 덕촌재가 있기도 하며 지표상에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일부는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 반용 유물산포지A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구석기시대, 고려~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용리마을 서편
- 조사기관 : 전주역사박물관

팔복동2가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길에 전주공고로 좌회전하여 오르막길로 가다보면 다시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약 700m를 가면 좌측으로 묘이장을 하는 간판이 나온다. 이 뒷편으로 설상의 얕은 구릉과 밭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유물산포지이다. 유물로는 찍개로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의 석영제 석기와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과 동체부편을 비롯하여 백자저부편이 1점 수습되었다.







• 반용 유물산포지 B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용리마을 서편
- 조사기관 : 전주역사박물관

팔복동2가 반용마을의 동편으로 얕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남사면을 중심으로 배추밭이 조성되어 있다. 이 구릉의 남사면이 유물산포지로서, 수습된 유물로는 옹관편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 그리고 백자편과 기와편이 있다.





• 반용 유물산포지 C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삼국시대~고려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용리마을 서편 구릉
- 조사기관 : 전주역사박물관

반용제의 남편으로 반용 유물산포지A, B의 사이에 구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뒷편으로는 조립식 건물과 함께 고철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유물이 수습된 지역은 구릉의 서편 일대로 밭으로 조성된 곳이며, 적갈색 연질토기의 파수부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학산 유물산포지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청동기시대~삼국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학산마을 서편 구릉
- 조사기관 : 전주역사박물관

동산동에서 팔복동으로 가는 길에 우측으로 방림교회의 갈림길이 나온다. 길을 따라 약 300m를 가면 학산마을의 서편에 해당하는 북사면의 구릉이 나온다. 이 구릉 일대가 유물산포지이다. 구릉은 두 갈래의 나뉘어 있는데 밭과 함께 임야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습된 유물로는 무문토기 저부편을 비롯하여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파수부편, 자기편등 많은 유물이 있다. 또한 구릉의 정상부에는 성혈이 있는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편이 자리하는데 장축, 단축, 높이가 각각 420, 270, 195㎝이다.



• 전주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 유적유물 : 유적존재(지표조사)
- 시대 : 시대미상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371, 372
  팔복동2가 551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은 전주 제1일반 산업단지의 서쪽에 해당하며 팔과정로 확장 및 신설과 5개 노선의 개설공사 구간으로 황방산에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북쪽의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해발고도 13m 이하인 평탄한 충적대지이다. 동쪽은 삼천천이 남쪽에서 흘러들어와 북류하다가 덕진구와의 경계에서 전주천과 합류한다. 전주천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만경강에 합수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일부가 학산 유물산포지에 포함되고 이곳에서 무문토기 저부편,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로확장부지 가운데 전주 동산동유적과 인접한 표본조사지역1·2·3에 대해서는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팔복동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팔복동2가 551번지 일원에 표본조사 필요 지점이 확인되었다.

• 전주 서곡광장~송천동간 도로개설공사

- 유적유물 : 유적 없음(지표조사)
- 시대 : 해당 없음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일대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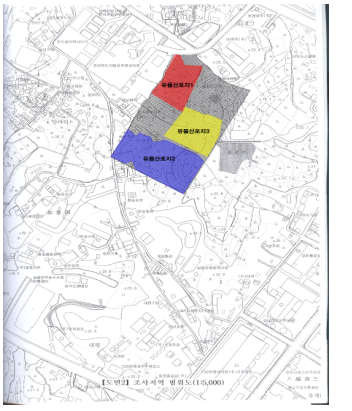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에 위치한 전주천변의 제방도로로서 시점인 서곡광장 근처는 해발 60m 내외의 구릉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대지와 경작지 등이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에는 공장과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릉에도 작물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적이나 유물은 없었다.

•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 유적유물 : 유적 있음(지표조사 후 발굴조사 진행)
- 시대 : 삼국시대~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8번지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은 전주시 팔복동2가 7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8,580㎡이다. 조사지역은 해발 17~35m 정도의 낮은 구릉들과 구릉과 연접해서 논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지역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잡목이 무성한 임야, 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사업지구 내에서 3개소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회청색 경질토기편, 어망추편, 분청자편,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12월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전주 유상리유적)





•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3-1)조성사업

- 유적유물 : 유적 있음(지표조사 후 표본조사 및 발굴조사 진행)
- 시대 : 청동기시대~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팔복동4가 1165번지 일부 포함
- 조사기관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지역은 신감마을 남쪽으로, 국도26호선와 국도27호선 사이 및 전북여자고등학교와 팔복초등학교 중간 부분인 경작지 일대이다. 조사지역은 평탄지로, 일부 지역은 밭, 휴경지,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대는 서남쪽에서 흘러내리는 구릉의 말단부와 동쪽의 추천 사이에 형성된 평탄한 충적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지역은 대부분 이미 경지정리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완전하게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작지와 과수원 일대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지형의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및 주변에서는 명확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서 표본조사가 진행되어 청동기시대~원삼국(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의 흔적, 농경과 관련된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조사의 시급함에 따라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구역을 나누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주 동산동 쪽구름유적[15], 전주동산동 유적)[16]

• 전라선(익산~순천간)복선 전철화 민간투자사업지구

- 유적유물 : 팔복동 일원 유적 없음
- 시대 : 해당 없음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998-26번지 일원
- 조사기관 : 전북대학교 박물관

조사지역인 익산에서 완주 신리를 잇는 전라선이 지나는 곳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구릉성 침식저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삼례의 만경강을 중심으로 익산지역에 해당하는 서부지역은 넓은 평야와 준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동남부 지역인 전주지역은 해발고도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대지가 발달되어 있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자기편과 토기편이 발견된 송천동 유물산포지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발견된 호

15)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전주 동산동 쪽구름유적』, 전주시·(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전주 동산동 청동기시대 취락 1~4권』 전주시·(재)전북문화재연구원.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전주 동산동 유적 Ⅰ·Ⅱ』, 전주시·(재)호남문화재연구원.

16) 이 유적은 일부 팔복동4가가 포함되어있으나 대부분은 동산동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 내용은 동산동 마을조사서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성동 유물산포지, 청동기~고려시대의 지석묘와 흥도편, 경질토기편이 발견된 은석동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조성
- 유적유물 : 유적있음(지표조사 후 발굴조사 진행)
- 시대 : 청동기 시대~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반용마을 일원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반용 유물산포지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반용 유물산포지Ⅰ, Ⅲ은 이미 문헌에도 알려진 지역이다. 반용 유물산포지Ⅱ는 문헌에서 확인된 학산 유물산포지 서편에 자리하는 지역으로 현장조사 결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고, 학산 유물산포지와는 소로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구릉 말단부가 지형상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반용 유물산포지 3개소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부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결과를 내었다. (전주 반룡리 유적)

• 전주 유상리유적[17)]
- 시대 : 청동기 시대~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8번지 일원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유상리유적은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사업 과정 중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서로 이격된 3개의 구역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2지구에서 2기, 3지구에서 3기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저장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삼국시대의 수혈 유구도 16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1지구의 1기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의 토광묘가 264기 그리고 회곽묘가 38기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주시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분묘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사례이다. 조선시대 분묘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실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접시, 사발 그리고 명기(冥器)가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철제가위, 청동수저, 청동합, 청동바리 등이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는 이들 유물로 보아 유상리유적의 조선시대 분묘 15세기 쯤에 시작하여 16~19세기에 걸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1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전주 유상리 유적』, 전주시·(재)전북문화재연구원.

• 전주 반룡리유적[18)]

- 시대 : 구석기 시대~조선시대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반룡리유적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조성(2구역)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 과정 중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반룡리유적 일대는 해발고도 36m 내외의 구릉이 동-서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는 서로 지형에 따라 서로 이격된 3개의 구역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개가 확인되었는데, 형태는 원형에 내부에 주공이 있는 송국리형의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주거지이다. 그리고 2기의 청동기 시대 소성유구 1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삼국시대~조선시대의 수혈도 총 38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에서는 유물이 출토된 것에서는 백제의 대표적인 제의 용기인 삼족기편이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에 조성된 건물지 인근에서 확인된 수혈들에서는 도기편과 함께 암키와, 수키와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초의 건물지 2동, 조선시대의 소성유구 3기 수혈주거지 2기, 토광묘 390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제 4기 퇴적층 부근에서 몸돌, 격지 등의 구석기시대 석기제작부산물도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 사람의 거주가 구석기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구분 기준은 숙련도와 예술성, 작품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6건으로 전주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8호인 선자장(扇子匠) 1건이 있다. 반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는 38건으로 이 중 팔복동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인 목가구(소목장)이 있다.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가구(소목장)

- 지정일 : 1998년 1월 9일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47-6 외
- 기능보유자 : 조석진

소목장은 목조건축의 집을 짓는 대목장 이외에 건물의 문, 창문이라든가 장롱, 궤, 경대, 갑 등 목가구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목수를 말한다. 한국 목가구의 특성은 화려한 칠이나 정교한 조각보다는 아름다운 자연 무늬결을 대칭으로 하여 자연의

1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전주 반룡리 유적』, ㈜한국토지주택공사·(재)전북문화재연구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능보유자인 조석진이 제작한 가구들 또한 무늬결이 좋은 느티나무 판재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되어 보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장, 농, 문갑 등 옛가구 그대로인 정승가구를 만드는 것이 주된 작업이나 한편으로는 이불장, 옷장 등 현대에 사용되는 장롱들을 시대에 맞게 제작하여 한국적인 전통목가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조석진이 갖고 있는 전통목가구 제작기능은 그가 오랫동안 연마해온 경험이나 명장대회 수상실적으로 보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제작기술이나 제작기법이 매우 뛰어나 무형문화재로 인정하였다[19]. 2012년 4월 27일 소병진씨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변경되었으며 201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면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은 조석진의 수제자였던 천철석씨(완주군 구이면 두현리)가 2014년 10월 24일에 재지정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20].

3) 근대문화재 및 기타 건축자산

팔복동 내에는 최근까지 문헌이나 혹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구한말~일제강점기 때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근·현대사의 주요한 건축물에 관한 기록은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동산농장’과 관련된 주된 시설이 동산동의 구릉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팔복동은 동산농장 일대에 플렌테이션 농업과 관련하여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1983년 전주역의 이전과 기존의 전라선이 기린로의 대로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라선 철길의 일부만 남은 부분이 팔복동 내의 철길이다.

현재 팔복동 내의 (구) 전라선 철길은 일부 화물을 싣고 다니는 열차가 간헐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최근 팔복동 내의 공단이 침체화 되면서 더 이상의 철로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의 전라선 철길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현재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유상마을에는 100년 이상이 된 유상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교회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목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와 이를 기록한 내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19) 전주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jeonju.go.kr/index.9is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robingoody/11123649

20) 전북일보 2014년 10월 19일 기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7593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LO0108000&An=438878 전라일보 2014년 10월 23일

• 팔복동 철길

» 전라선 철길의 연혁 : 1913년 1월에 전북철도주식회사가 부설면허를 받아 1914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여객운송은 1914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화물수송 업무는 1914년 12월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설철도로는 부산초기전기선에 이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7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매수하여 광궤로 개축하고 경전북부선이라고 개칭하였다. 그 뒤 1929년 4월 18일 익산(이리)~여수간의 철도를 전주방면에서부터 착공하여 1931년 10월 전주~남원간이, 1933년 10월 남원~곡성간이, 1936년 12월 곡성~순천간이 개통되었으며, 이것이 이미 개통되어 있던 광주선과 순천에서 연결됨으로써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명칭이 현재의 전라선으로 바뀌었다. 1937년 3월에는 익산~여수 전 구간의 전라선이 개통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선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고속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복선전철화 공사를 시작하였다. 1단계 복선전철화 공사는 1999년에 완공되었고 2단계 복선전철화 공사는 2004년 8월에 완공되어 익산~동순천 구간이 복선전철화 되었다. 나머지 구간은 2011년 10월에 복선전철화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익산~여천역까지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다.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은 각기 역사를 이전하여 현재 여천역~여수엑스포역 사이에 단선전철이 개통되어 있다[21].

» 팔복동 철길 : 팔복동의 철길은 옛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전주역사가 있었을 당시에 협궤철도의 개통에 따라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철도는 당시 동산역 일대와 함께 '동산농장'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였다. 1967년 이후 이 지역에 전주 제1공단의 건설과 함께 주로 시멘트와 석탄 그리고 이 일대 공장에서 생산된 물산들을 나르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1991년 전라선의 북전주~신리간 이설작업과 함께 전주역사의 노송동~우아동 이전으로 인하여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열차가 지나다녔다. 2000년대 들어서 전주 제1공단의 급격한 노후화와 공장들이 이전됨에 따라 화물열차의 이동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11월 1일 이후 화물 취급이 중지됨에 따라 열차는 더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철도는 거의 폐 철로와 같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

• 유상교회

1907년 세워진 교회이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워진지 109년이 된 교회이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치

21)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9372

가 바뀐 적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유상교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연혁 그리고 교회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작성된 바가 없다. 차후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민속신앙

과거에는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守護神) 즉, 부락의 수호신을 섬기는 민간신앙이 존재한다. 팔복동 일원에는 유제리(柳題里), 버드나무 방죽과 관련하여 가장 수백 그루의 버드나무 중 가장 오래되고 속이 빈 버드나무 중 하나에 금줄을 두르고 당산제를 지냈으며, 신복리 일대는 현재 신복경로당 앞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중앙에 당산나무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이들 당산나무들은 개발로 인하여 그 흔적이 없으며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러한 민속신앙이 변형되어 2016년도 정월대보름 때에 ‘제4회 추천대 정월달맞이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장소는 추천대교 옆 하천 둔치의 생활체조공원이다. 비록 당산신앙의 주체가 되는 당산나무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동의 주민들의 화합의 마당 그리고 동의 무사(無事)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랜 민속신앙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5) 전설

팔복동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설의 대상과 이야기의 구조는 일부 다르지만 추천(秋川) 즉 가르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이 가르내 즉 추천의 전설의 대상은 400여 년 전의 이 지역의 주요 학자인 추탄(楸灘) 이경동의 효심과 관련하여 주체가 명확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추천교 전설은 공식적으로 이를 소개한 전주시청의 지명유래와 관련하여 전설을 소개한 것이다.

- 추탄 이경동 전설[22)]

4백여 년 전 가르내(현재의 下可마을)일대는 전주 이씨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비록 생활은 어렵다 하더라도 화목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추탄(楸灘)의 부친 달성공(達誠公)이 중병으로 몇 달 째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위독한 사경을 당하게 되었다. 인근 비석날(현재 팔복동 버드랑주)에 거주하는 명의 소식을 듣고 선걸음에 달려가 동의보감에 의한 처방에 따라 명약첩을 받아들고 급히 귀가하는데 때 마침 뇌성벽력을 치며 폭우가 쏟아져 내려 삽시간에 전주천은 범람했다. 추탄은 암담한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부친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앞뒤를 가릴 것 없이 홍수가 넘쳐대는 전

22)http://jeonju.go.kr/동별지명유래

주천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냐! 제방을 넘실대던 물살이 양쪽으로 좌악 갈라지면서 추탄이 걸어 갈 길이 트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 저것 가릴 겨를이 없는 추탄은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와 숯불에 약을 정성스럽게 달여 시각을 다투는 부친의 입술을 적셔드리자 잠시 후 전신을 흥건히 적시는 땀을 흘린 부친은 숨을 급히 몰아쉬고 난 뒤 마침내 기사회춘하여 완쾌되었다.

대홍수로 넘실대던 냇물은 추탄이 건너간 다음에 합쳐져 흐르게 되므로 그의 지극한 효성은 하늘도 도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효행의 귀감이 되어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나무다리를 놓기로 했다. 오늘날 추천교의 자리가 된 나무다리를 놓았을 때도 추탄(楸灘)의 「추」자를 따서 추천교(楸川橋)라고 했다. 냇물이 갈라진 웃마을을 상가리(웃가르내), 밑으로 갈라진 마을은 하가리(아랫가르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

1925년 콘크리트 암거 교량을 건설하고, 옛 이름대로 추천교(楸川橋)라고 했는데 팔복동 황방산 밑 추천대를 중건(重建), 그 효행을 기리고 있는데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지의금부사, 사헌부, 대사헌, 추탄선생, 조대비」(嘉善大夫, 兵曹參判兼 知義禁府事, 司憲府, 大司憲, 楸灘先生, 釣臺碑)라고 새겨진 비는 추천교를 흐르는 물을 지켜보며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듯 하여 보는 이들의 감회를 솟구치게 해주고 있다.

6) 역사적 인물[23)]

이번 장에서는 팔과정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8명의 선비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홍남립(洪南立)(1606년(선조 39년)~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탁이(卓爾)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28세의 나이인 1633년(인조 11년) 계유년 증광시 병과 10위로 합격하였다. 전남 보성에서 판교를 지냈다.

- 이흥발(李興浡)(1600년(선조 33년)~1673년(현종 14년))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유연(悠然), 호는 운암(雲巖), 이색(李穡)의 후손이며, 치(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준철(遵哲)이고, 아버지는 극함(克諴)이며, 어머니는 최준극(崔峻極)의 딸이다. 1624년(인조 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2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집의에까지 올랐으나 1636년 청나라 사신이 와서 화친을 청하자, 척화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뒤 1637년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가 명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며 학문을 닦았다. 그 뒤 인조·효종·현종조에 걸쳐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죽은 뒤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23)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이기발(李起浡)(1602년(선조 35년)~1662년(현종 3년))

조선 중기 문신. 자는 패연(沛然)이고, 호는 서귀(西歸)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전라북도 전주(全州) 출신이다. 증조부는 이치(李穉)이고, 조부는 이준철(李遵哲)이며, 부친은 이극함(李克諴)이다. 모친은 완산최씨(完山崔氏) 최준극(崔峻極)의 딸이고, 부인은 박동진(朴東振)의 딸이다. 형은 이흥발(李興浡)이며, 동생은 이생발(李生浡)이다. 형 이흥발(李興浡), 동생 이생발(李生浡)과 함께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의 문인이 되어 학문을 닦았다. 1618년(광해군 10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국모가 없는 나라라고 한탄하며 은거(隱居)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1624년(인조 2년)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 3위로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같은 시험에서 형 이흥발과 동생 이생발까지 삼형제가 동시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렸다. 이후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627년(인조 5년)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1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성균박사(成均博士), 정언(正言), 예조정랑(禮曹正郞),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 지평(持平) 등을 역임했다. 1636년 대동찰방(大同察訪)으로 있을 때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당시 옥과현감(玉果縣監)이었던 형 이흥발, 순창군수 최온(崔薀), 전 찰방(察訪) 유즙(柳楫), 전 한림(前翰林) 양만용(梁曼容) 등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였다. 여산(礪山)의 모의소에서 다른 의병단과 합류한 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진격하였으나, 화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全州)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끝까지 청(淸)과의 화친을 반대하고 명(明)과의 의리를 주장하였으며, 인조가 승하하자 3년간 3년간 술과 고기를 마시거나 먹지 않고 상례(喪禮)를 치르는 등 평생 충절(忠節)을 지켰다. 이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그를 동방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로 비교하면서 칭찬하기도 하였다. 부인 박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이 중 아들은 1660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조정랑(兵曹正郞)을 지낸 이유룡(李猶龍)이다. 사후 1668년 서산사(西山祠)에 배향되었으며, 1673년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1677년에는 조정에서는 그를 충절신(忠節臣)으로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유고로는 김병학(金炳學: 1821~1879), 김상현(金尙鉉: 1811~1890), 박규수(朴珪壽: 1807~1876)가 서(序)를 쓴 10권 6책의 『서귀집(西歸集)』이 전한다. 이 문집은 1876년 그의 6세손인 이승윤(李承潤)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며, 끝 부분에는 형인 이흥발의 문집 『운암유고(雲巖逸藁)』가 첨부되어 있다.

• 이생발(李生浡)(1609년(광해군 1년)~미상)

조선 중기 문신이다. 자는 윤로(潤露)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출신지는 전라북도 전주(全州)이다. 인조 5년인 1627년 정묘년의 식년시 병과에서 7위로 합격하였다.

형은 이조참의를 지낸 이흥발, 사가원 정언, 예조정랑을 지낸 이기발이다.

• 이흥록(李興祿)(1600년(선조 33년)~미상)

조선 중기 문신·공신이다. 자는 성중(成仲), 호는 추옹(楸翁).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출신지는 전라북도 전주(全州)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이며, 증조부는 이래(李耒) 조부는 이사철(李師哲) 부친은 증 좌승지(贈左承旨) 이극겸(李克謙)이다. 외조부는 유광하(柳光河)이며, 처부는 채굉(蔡宏)이다. 천성이 비범하고 영리하였으며 김동준(金東準)의 문하에서 학업하였다. 1633년(인조 11년) 계유식년문과 병과(丙科) 18위로 급제하였다. 1637년(인조 15년) 학유(學諭), 1642년(인조 20년) 성균관학록(成均館學錄), 다음해 보안찰방(保安察訪), 1646년(인조 24년) 전적(典籍), 1649년(효종 1년) 양산군수(梁山郡守), 1664년(현종 5년) 인동부사(仁同府使) 1671년(현종 12년)에 예빈시정(禮賓寺正) 등을 거쳤다. 성품이 강직하여 광해군 때 폐모론에 반대하는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의 숭모를 받았다. 1623년(광해군 15) 폐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글이 광해군에 도달하기 전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1624년(인조 2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형 이경록(李景祿)과 함께 공주(公州)로 달려가 왕을 호종하여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1646년(인조 24년) 유탁(柳濁)의 반란을 토평하여 녹훈(錄勳)이 가해졌다.

• 이후선(李厚先)(1609년(광해군 1년)~미상)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유백(裕伯)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증조부는 이순효(李順孝)이고, 조부는 이정표(李廷彪)이며, 부친은 이증길(李增吉)이다. 외조부는 이사철(李師哲)이고, 처부는 심이(沈怡)이다. 동생은 이순선(李循先)·이상선(李象先)·이기선(李起先)이다. 1639년(인조 17년) 식년시에 병과 11위로 문과 급제했다. 1650년(효종 1년)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1651년(효종 2년)에 광해군이 집정할 때에 조부 이정표가 강화별장(江華別將)으로 있으면서 강화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과 합심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인 일에 관계되었음에도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서 사간원관원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장응일(張應一)·지평(持平) 심유행(沈儒行)의 탄핵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다. 1653년(효종 4)에 우의정(右議政) 이시백(李時白)이 이후선의 조부 이정표가 강화부사 정항과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정표는 이후선이 양손(養孫)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벼슬길을 막는 일을 가혹하다며 풀어주길 청하여 직첩(職牒)을 돌려받았다. 현종 즉위년 1659년(효종 10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다. 1664년(현종 5년)에 실덕(實德)을 힘써 행할 것, 양민을 보호할

것, 군사와 백성을 휴식시킬 것, 대동(大同)을 변통할 것, 탐장(貪贓)의 법을 밝혀 엄하게 할 것, 당파를 배척할 것, 인재를 등용하고 사치를 금할 것, 기강을 세우고 성학을 강론할 것 등 10가지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상소로 올렸으며, 현종은 상소를 비변사(備邊司)에 내렸다.

• 이순선(李循先)(1620년(인조 4년)~미상)

조선 중기 문신이며 자는 의경(儀卿)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부친은 이중길이다. 형은 사간원 정언을 역임한 이후선이다. 효종 8년인 1657년 정유년 식년시에 2등 22위로 합격하였으며 함경도 북청판관을 지냈다.

• 송상주(宋尙周)(1630년(인조 8년)~미상)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문백(文伯)이다.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부친은 송세영(宋世英)이다. 형은 송상하(宋尙夏)·송상은(宋尙殷)·송상로(宋尙魯)·송상제(宋尙齊)이다. 1660년(현종 1년) 식년시에서 생원 2등 13위로 합격하였고, 1663년(현종 4년)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 5위로 급제하였다. 1670년(현종 11년)에는 비인현감(庇仁縣監)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이하(李夏) 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당하였다. 1694년(숙종 20년)에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홍수헌(洪受瀗) 등으로부터 편당을 만들어 중전(中殿)을 모함한다는 죄목으로 재차 탄핵을 당하였다. 그 결과 절도(絶島)로 유배 처분이 내려졌다. 1706년(숙종 32년)에는 사은(賜恩)을 입어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5. 팔복동의 생활·민속

1) 놀이 및 축제

팔복동의 놀이와 축제에 대한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팔복동이 전주의 외곽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제리와 신복리 일대에 당산나무와 관련하여 당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과거 농촌 사회와 관련하여 당산제 신앙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어울림의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추천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2016년에 총 4회째를 맞는 축제이다.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열리는데 이러한 축제의 원형은 당산제에서 기원한다. 그 동안 공단의 집중과 주민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 신복리 일대에서 치러졌던 당산제의 명맥이 끊겨 원형은 당산제의 원형은 알 수 없다.

현재의 달맞이 축제는 당산제의 다양한 행위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마을 주민의 단합과 마을의 안녕 그리고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 축제를 진행한다. 순서는 축제를 조직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 이후 제례를 올리고 다양한 문화축제를 진행한 다음 야간에는 달집을 태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행사를 진행한다.

2) 민속

주민들이 생활에 사용하는 도구와 각종 집기들에 대한 자료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사, 사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3) 세시풍속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양상의 세세풍속을 가지고 있다. 팔복동에서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이전에 연구한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시풍속은 1년의 24절기 그리고 주요한 때마다 1년을 주기로 다른 양상이 확인되지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의 긴밀한 교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논문이나 지속적인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일반적인 동의 과거 특성에 따라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6. 팔복동의 자연·생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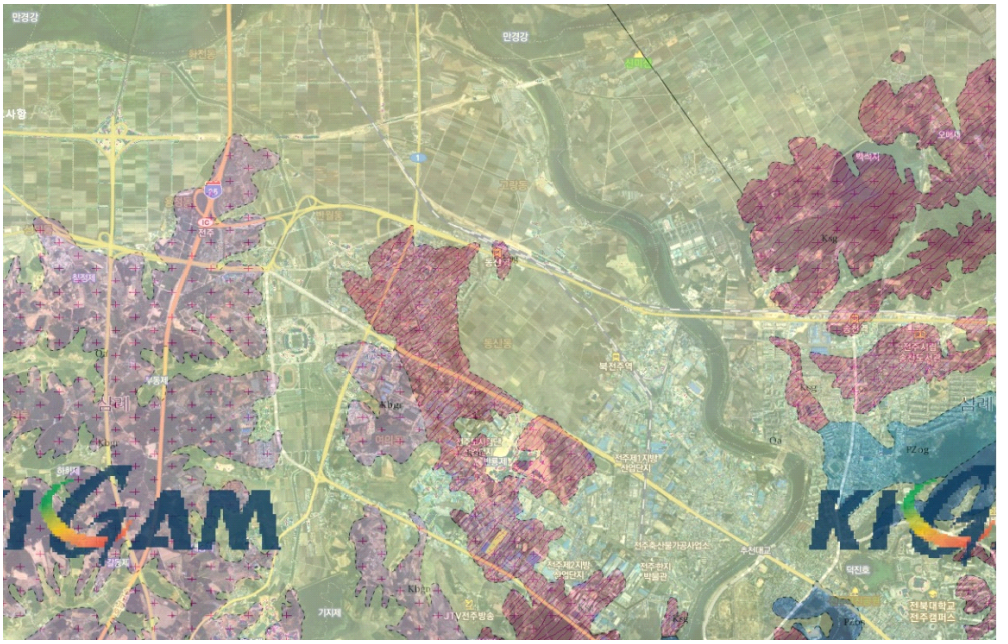
팔복동은 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동이다. 팔복동의 수리적인 위치는 북위 35°52'21.22"~35°50'07.97", 동경 127°04'48.29"~127°06'59.29" 내외이고 면적은 7.38㎢이다[24]. 팔복동의 북서~서쪽으로는 구렛들 일대를 경계로 하여 행정동인 동산동이 연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법정동인 여의동, 남서쪽 아래로는 법정동인 만성동이 연접하고 있다. 남쪽은 황방산을 경계로 하여 효자4동(서곡지구 포함), 북동~동쪽으로는 추천(전주천)을 경계로 하여 송천동 그리고 남동쪽으로 덕진동, 서신동과 연접해 있다. 이러한 동의 경계는 과거부터 전주천, 황방산의 능선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동산동과 연접한 곳은 공단 건물과 도로망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형과 일치하지 않지만 과거 물길에 따른 흔적과 이에 형성된 각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 나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의 경계와 관련하여 팔복동의 지형은 다음과 같다.

팔복동 일대는 전반적으로 전주천에 의해 형성된 하천 지형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황방산 일대에서 흘러내려온 산지성 지형이 만나는 곳의 특징이 확인된다. 먼저 팔복동의 북쪽과 동쪽일대는 전주천과 삼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추천(秋川, 지도에 따라 전주천으로 표기됨)이 자유곡류를 하며 사행천의 형태로 남동~북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안(西岸)에 위치한 팔복동과 동안(東岸)에 위치한 송천동은 전주천의 범람으로 인한 잦은 홍수와 이로 인해 형성된 범람원, 자연제방, 배후습지의 지형 형성과정에 의해 생성된 평지지형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남쪽의 황방산 일대의 현 전주 제2산업단지 일원에는 황방산에서 흘러내려온 구릉과 함께 흘러내려온 산사면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扇狀地) 형태의 지형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팔복초등학교와 동산동의 전북여자고등학교 사이의 넓은 경작지는 선상지와 하천의 범람원 혹은 배후습지가 만나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 일대에 대한 전주 탄소밸리 사업(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메장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과거 항공사진을 통한 지형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하천의 유로변경으로 인한 지형과 함께 자연제방, 황방산과 연접한 부분에서는 선상지성 지형, 배후습지의 지형이 골고루 확인되었다[25].

이러한 지형은 과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때에 아주 양호한 환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계절적인 강우에 의해서 홍수로 인한 위험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대단위의 취락을 이루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식량의 생산 및 유통구조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및 기타 주거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이전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용수의 공급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의 생산을 위해서는 주로 물과 가까운 곳에 대단위 취락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물과 가깝고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물에 가까운 곳에 아무렇게나 논과 밭을 설치하고 주

24) Google earth의 기능을 이용하여 참조함, 초 단위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5)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전주 동산동 쪽구름 유적』, 전주시.

거지를 설치할 수는 없다. 다행히 하천은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물의 이동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하천 주변의 지형을 형성을 한다. 특히, 대규모의 취락은 홍수와 같은 재해의 위험이 적은 자연제방 위에 조성이 되고 자연제방의 토양은 주거지 혹은 도로들을 시설하기 용이하기에 직접적인 사람들의 거주 공간으로서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자연제방 앞의 범람원은 잦은 계절성 침수로 인하여 비교적 재배기간이 짧은 밭작물이나 임시적인 도작농업이 가능하고 주요 경작지의 기능으로는 약한 지형이다. 배후습지는 자연제방을 일부 넘거나 지하를 통해 침출한 물에 의해서 홍수는 아니지만 습지환경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상시적인 도작농업이 가능한 배후습지 지형이 있다. 이에 따라 팔복동은 이러한 3가지의 지형이 공존하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산사면과 하천주변 충적지 일대의 지형이 만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다[26]. 이러한 선상지성 퇴적물은 하천관련 지형보다는 지반이 상대적으로 단단하여 근래 공업단지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형으로 판단된다.



〈도면 2〉 팔복동 일대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주제도)

〈도면 2〉와 〈도면 3〉을 병행하여 팔복동일대의 지질과 토양지형을 살펴보면, 팔복동 일대는 전반적으로 제4기에 형성된 충적대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그리고 전주 제2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팔복동2가는 황방산에 의해서 형성된 지질구조를 보이는데 중생대에 형성된 흑

26) <도면 3>을 살펴보면 토양분포도에 전주제지가 위치하고 있는 팔복동2가는 내륙평탄면과 관련된 토양들이 확인되어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주제지와 관련된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의외로 지대가 낮고 침수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다지는 데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는 회고가 있다.

운모 화강암 지대가 황방산의 축선을 따라 길게 그리고 산발적으로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지질구조에 의해서 팔복동의 토양 분포 또한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팔복동1가와 팔복동4가의 추천과 인접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해안평탄과 관련된 토양지형이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 만경강으로 역류해온 바닷물로 인하여 형성된 토양구조의 흔적으로 판단된다[27]. 그리고 저구릉지와 선상지가 분포하고 있는 팔복동3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 그리고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된 홍적대지가 팔복동2가와 3가 일대에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과 구조들은 이 일대가 공단의 조성과 마을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도면 3〉 팔복동일대 토양 분포지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흙토람 토양분포도)

팔복동의 생물상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전주천과 삼천이 합류하여 큰 물길이 형성되고 인근에는 황방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과 산지 지형이 만나는 접합 지점으로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방산 일대에는 2004~2005년 일대 식물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28]하였으며 관속식물상을 파악한 결과 83과 184속 235종 46변종 6품종의 총 28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목본식물은 39과 63속 74종 11변종 6품종의 총 91분류군, 초본식물은 44과 121속 161종 35변종의 총 19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양치식물은 11종, 나자식물은 4과 7속 10종 1품종 12분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식물들 중에는 자생종 이외에 리기다소나무, 사방오리, 물오리나무, 밤나무, 일본 잎갈나무, 아까시나무, 중국단풍 등 인공식재종도 조사되었다. 아쉽게도 황방산에서는 한국자연보존협

27) 만경강은 만조 때에 서해안의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감조하천(感潮河川)으로 만경강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과거에는 만경강 본류 주변으로는 농업과 관련된 행위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산미증산계획 이후 수리조합이 설치되고 이 일대에 대한 만경강의 직강화 및 제방 공사 등을 진행하여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28) 박천일, 2005, 『황방산(전주) 일대의 관속실물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회에서 지정한 한국의 희귀 혹은 멸종위기 식물이 단 1종도 확인되지 않았다.

팔복동의 특색 있는 식물은 동의 주민들과 기록상에 인위적으로 다량 식재한 뽕나무와 유제리 일대의 버드나무일 것이다. 특히, 유제리는 방죽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많은 데에서 마을지명이 유래하였고, 이 외에도 유상리라는 집명에서 유자는 버드나무 유(柳)가 있어 이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물상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든다. 뽕나무는 이 일대에서 많이 진행하였던 잠사(蠶事)와 관련하여 증언 상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뽕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개발이 진행되어 이러한 버드나무와 뽕나무 밭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단일한 하천과 비교해서 하천 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종의 다양성과 함께 그 개체수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팔복동 일대를 흐르는 추천(전주천) 일대는 이러한 하천의 양상으로 오염이 되기 이전에는 많은 생물과 함께 이를 잡아먹는 왜가리와 같은 각종 조류들이 머물면서 동물의 다양함을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팔복동에 공단이 들어서고 주민들의 거주 그리고 풍남동~서신동을 거치면서 들어오는 전주천의 오염된 물이 합수되면서 이 일대의 하천의 오염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예전 하천정비 사업과정 중에 덕진보를 설치하면서 바닥에는 차츰 부유물질이 쌓이고 독소를 내뿜으면서 더 심각해져갔다. 이에 따라 1975년 조사에서는 피라미를 중심으로 한 3종의 어류만이 이 팔복동 주변 하류부에서 확인되었으며 2000년 자연형 하천 사업 이전인 1996~1998년 조사된 바로는 5종의 어류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연형 하천사업이 완료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25종의 어류가 확인되었는데 증가한 19종의 어류는 떡붕어, 칼납자루, 납자루, 돌고기, 쉬리, 긴몰개, 참몰개, 줄몰개, 버들치, 돌마자, 참갈겨니, 미꾸리, 참종개, 메기, 꺽지, 동사리, 밀어, 블루길, 베스이다. 이전에는 덕진보에 의해서 블루길과 베스의 유입은 거의 없었으나, 하가지구 일원의 덕진보가 철거되면서 삼천에 살고있는 블루길과 베스가 유입되어 서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9].

이상과 같이 팔복동의 자연, 인문 지리적인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팔복동은 농촌지역으로서 전주의 구도심지와는 다른 경관을 보여주었으며 주민이 다양한 생물종과 어우러져 사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단의 건설과 이에 따른 주민의 이주로 인하여 현재는 자연과 어울림이 아닌 인간 위주의 인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29) 박종영 · 김수환 ·고명훈 ·오민기 ·신진철, 2009,「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따른 어류상 변화 및 군집분석」『한국환경생태학회지』23(5)집, 한국환경생태학회.

7. 팔복동의 주요 도로망 체계[30]

팔복동에는 조선시대와 관련하여서는 큰 도로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호남대로와 관련하여 서문에서 시작된 대로(大路)가 현재의 추천대교 인근으로 이어졌으며 추천(전주천)을 건너, 현재의 팔복동 구주마을을 건너서 고랑동(고량포)을 넘어 삼례를 거쳐 논산-공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하지만 팔복동 일대가 대부분 전주천과 만경강의 유로변경에 의해서 형성된 범람원 혹은 배후습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논·밭이 많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형 위에 점촌의 형태로 촌락이 형성되어있어 도심지역과 유사한 방격(方格)형태의 도로망의 구축은 어려웠다. 이러한 양상은 일제강점기 때에서 마찬가지였으나 일부 전주-군산을 이어주는 도로와 김제와 이 일대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 개설된 주요 간선 도로망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팔복동 일대의 현재의 도로망의 개설은 1967년 이 곳에 전주제지가 설립되고 이후 전주 제1공단과 제2공단이 건립되면서 현재의 격자 형태의 도로망이 구축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마을들을 이어주는 길들은 골목길 형태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다음은 팔복동 일대를 지나가거나 위치하고 있는 도로들의 연원과 현황에 대해서 기술한 것으로 이는 전주시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발췌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 기린대로

기점 : 교동 1-1(한벽당)~종점 : 반월동 726-1(월드컵 경기장) 길이- 11.465km, 폭 50m

기린대로는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주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 때문이다. 동양에서 기린은 성인이 세상에 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기린은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으며 생물(生物)을 먹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용, 거북, 봉황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고 한다. 사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릴 수는 있으나 조선 개국 초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인물로 이러한 기린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심도로에 기린대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전주가 조선 개국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상징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주팔경의 으뜸인 기린토월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은 승암산에서 시작된 산자락이 기린봉, 종광대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사위(四圍)에 에둘러 감싸였고 남고산에서부터 유연대로 이어지는 산자락이 만들어낸 품속에 고즈넉하게 안겨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그 동쪽 산의 능선이 기린의 등처럼 구

30) 전주시청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index.9is (도로명주소 확인)

비져 있고 그곳에서 둥근 달이 떠오르는 풍광을 보며 이 지역의 호사가들은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인물의 출현과 관련한 상상의 동물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상상 역시 조선 비조의 본향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린대로 명칭 부여는 앞서 기술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만월로부터 느껴지는 상서로운 기운 속에 조선 건국조의 본향으로서의 전주가 가진 역사성을 담아낸 데에서 그 유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금암광장에서 호남제일문까지의 기린대로

금암광장에서 기린대로는 과거 철길 자리에 개설된 도로와 본래 도로가 만난다. 태평양 수영장 뒤로 철길이 있었으며 태평양 수영장 앞으로 이어지는 기린대로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서 평야지대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로 알려져 있다. 이 도로를 따라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앞, 추천대교, 팔복동을 지나 월드컵 경기장까지 곧게 뻗어있다. 기린대로는 명실공이 전주의 도심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주 제1의 중심도로이며 전주의 관문이기도 해서 기린대로로 들어서면 호남제일문이 세워져 있다.

• 동부대로

기점 : 색장동 160-1(색장동 삼거리)~종점 : 용정동 127-3(전주 IC), 길이- 17.485km

동부대로는 전주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로로 색장동삼거리에서 출발하여 아중역과 전주역을 거쳐 전주IC까지 이르는 대로이다. 이 도로는 전주IC를 통과하여 진안, 남원, 임실 등을 갈 때와 동부지역에 위치한 아중리와 우아동 지역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한다. 이 도로는 원래 색장동에서 전주역까지는 아중로로 불리었고, 전주역에서 전주IC까지를 호성로로 불리었는데, 2009년 새주소도로명을 정비하면서 방향성이 일치한 도로는 하나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동부대로로 불리게 되었다. 아중역을 지나면 시내 쪽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날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남원 가는 철길을 넘어서는 마을 풍경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즉, 전라선 철길을 따라 동부대로로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동산동과 전주 IC 주변의 동부대로

동산촌(東山村, 쪽구름, 쪼꾸래미, 편월(片月))은 동산리의 중심 마을로 쪼꾸래미 또는 편월이라고도 하였다. 동산촌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동산(히기시야마)이 이 일대에 농장을 만들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쪽구름이란 명칭은 지형이 월편운(月片雲)혈이 있었기에 부르게 되었다. 또 부근에 장이 서자 조그마한 꾸러미로 사다 팔았기

에 쪼꾸래미라는 이름도 붙여졌다고 한다. 팔복동은 이러한 지형이 있는 동산동 일대 부분에서 도로가 약 700여m 정도 관통하여 지나간다. 이 부근의 자세한 내용은 동산동의 마을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팔복로(길)

기점 : 팔복동3가 402~종점 : 팔복동4가 998-11

전주천에서 팔복동을 가로 질러 여의동까지 이어진 팔복로는 예로부터 사용된 지명을 명칭으로 길 이름으로 부여하였다. 1957년 11월 6일에 전주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완주군 조촌면의 동곡리, 돈산리의 일부와 신복리, 여의리의 일부 그리고 유제리를 편입하였다.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의하여 팔과정과 신복리의 이름을 따서 팔복동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 유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여덟 개의 복(福)이 있어서 팔복이라고 여기는데, 두 개의 머리글자를 따다 보니 팔복동이 된 것이다. 전주공업단지가 펼쳐진 곳이 팔복로 주변이다.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와 팬아시아 종이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 팔과정로

기점 : 팔복동3가 402~종점 : 팔복동4가 998-11

전주천에서 온고을로로 이어진 팔과정로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자인 팔과정을 길의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팔과정은 동곡리와 반룡리 사이에 세워진 정자로 조선 인조 때 판교 홍남립, 사간 이홍발, 목사 이흥록, 필선 이기발, 장령 이후선, 진사 이생발, 이순선, 송상주 등 선비 8명이 함께 세웠다. 원래의 정자는 없어졌지만 팔복정수장이 들어온 이후 전주시에서 다시 세웠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명칭으로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루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지은 다락식의 집이다. 이규보가 지은「사륜정기(四輪亭記)」에는 “사방이 확 트이고 텅 비어 있으며 높다랗게 만든 것이 정자”라는 설명이 나온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의 ‘누정조’에 의하면 누정은 루(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헌(軒), 재(齋)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래 그 명칭들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16세기 선비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재’는 수신 또는 개인적인 학문 연구공간으로서 사방을 벽으로 둘러싼 폐쇄적인 형태이며, ‘정’은 길 가던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고 ‘당’은 터를 높이 돋우어 우뚝한 모습의 건물이다. 또한 정사(精舍)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은 후진들을 모아서 학문을 강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자는 그 규모가 작은 건물을 말하는데 ‘대’와는 달리 건물에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도 함양 지방을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는 가운데쯤에 방 한간을 들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지어진 정자가 함양의 농월정(弄月亭: 2003년 가을에 화재로 소실), 거연정(居然亭), 담양의 환벽당(環碧堂)이나 명옥헌(鳴玉軒)을 비롯한 여러 정자 들이다. 이러한 정자는 대개 놀거나 풍류를 즐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 부르며 산수가 좋은 곳에 세운다. 사(榭) 역시 높은 언덕이나 '대(臺)' 위에 지은 정자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듯 누정은 마을 안이 아니라 경승지에 풍류를 곁들인 휴식공간으로 특별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탁 트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지었다. 다음은 『동문선』에 실린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자기도 하고 혹은 앉아서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며 뜻에 맞는 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니,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햇볕을 피하여 그늘을 찾아 옮기느라 여러 번 그 자리를 바꾸게 되므로 그 때마다 거문고, 책, 베개, 대자리, 술병, 바둑판이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지므로 잘못하면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 여름 한낮에 손님이 찾아오면 정자로 가서 더러는 자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 데, 경치를 바라보는 데는 좋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햇볕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방이 트인 시원한 정자에 올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영조법식(營造法式)』이라는 문헌에는 "정은 백성이 안정을 취하는 바이니 정에는 누가 있다. 정은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의 「백관서」에는 "여행길에 숙식시설이 있고 백성의 시비를 가리는 곳이 정"이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정자의 기능을 손님 접대도 하고 학문을 겸한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보았다. 그는 정자에는 여섯 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였는데, "여섯 사람이란 거문고를 타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시에 능한 스님 한 사람, 바둑을 두는 두 사람, 그리고 주인까지"였다. 전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자나 누각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팔과정은 의미가 남다른 정자라고 볼 수 있다.

팔복 정수장이 바로 근처에 있고, 팔복동과 마찬가지로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다.

• 신복로(길)

기점 : 팔복동1가 56-2~종점 : 팔복동4가 126-23

팔복동1가에서 팔복동4가로 이어진 신복로는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인 신복리의 이름으로 부여하였다. 신복리는 추천대교에서 구 팔달로를 따라 북쪽으로 500여m쯤

떨어진 동쪽의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원래 완주군 조촌면 지역이었다가 1935년에 전주시로 편입되었고, 1957년에 팔복동1가로 전주시에 편입되었다. 이 근처는 온전하게 평야지대였는데, 가리내의 서쪽 지역까지는 온통 채소밭이었다. 지금은 전주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옛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팔과정로와 추천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전주천과 전주공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농어촌 개발공사와 삼선냉장이 있다.

• 신복천변로(길)

기점 : 팔복동1가 305-3～종점 : 팔복동1가 224-17

중소기업청에서 삼선냉장 쪽 전주천으로 이어진 팔복동1가의 신복 천변로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신복리마을 명칭과 가리내 천변부근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신복천변로 주변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삼선냉장이 근처에 있다.

• 추천로(길)

기점 : 팔복동3가 산 240-1～종점 : 팔복동4가 969-8

추천로는 팔복동3가에서 팔복동4가에 이르는 길로 예로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삼천천과 전주천이 합쳐지는 지역을 가르내, 가리내 또는 추천이라고 하였다. 이곳의 여울을 가리내 여울이라고 하였으며 예전에 이곳에 추천원이라는 원집이 있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이나『대전회통(大典會通)』등 조선시대 법전을 보면 “원(院)은 지방의 수령이 부근의 주민을 정하여 원주(院主)로 삼고 이를 보수시키며 직산에서 전주에 이르는 길은 중로 3호를 원주로 삼고 나머지 소로에는 2호를 원주로 삼는다. 원주로 정한 집은 잡역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원에는 대개 주막거리가 있었다. 가리내 동쪽에 있던 대를 추천대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4백여 년 전 현재 하가마을에 전주 이씨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생활을 어려웠지만 우애와 효성이 지극했다. 이 때 이곳에 살고 있던 추탄(楸灘)의 부친 달성공(達城公)이 중병으로 몇 달째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위독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아버지의 위급함을 목격한 추탄이 인근 비석날(현재 팔복동 버드랑주)에 거주하고 있는 명의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지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치며 폭우가 쏟아져 내려 삽시간에 전주천이 범람하고 말았다. 낙담한 추탄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물에 위급한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리자 앞 뒤를 가릴 것 없이 홍수로 넘실대는 전주천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제방을 넘실거리던 물살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조선 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따질 사이도 없이 추탄은 한걸음에 집으로 달려와 숯불에 약을 정성스럽게 달려 촌각을 다투는 아버지의 입술을 적셔드리자 잠시 후 전신

을 흥건하게 적시는 땀을 흘리고 마침내 깨어나는 것이었다. 큰 홍수로 넘실대던 냇물은 추탄이 건너간 뒤 다시 합쳐져 흐르므로 그의 지극한 효성을 하늘이 도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추탄의 효행에 감탄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나무다리를 만들고서 추탄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냇물이 갈라진 윗마을을 상가르내, 아랫마을을 하가르내라고 부르고 있다. 전주 이씨 추탄파(楸灘派) 문중에서 고종 3년에 세운 추천대를 세웠으며, 추천과 소양천이 만나 만경강이 된다.

전주천 서쪽에 자리 잡은 추천로 일대는 공단이 펼쳐져 있고, 추천대교에서부터 전라선 철교를 지나 고랑동에 이르는 구간 역시 전주천을 따라 간다.

• 상리로(길)

기점 : 팔복동2가 177-16~종점 : 팔복동2가 799-51

상리로는 팔복동2가에서 3가까지 이어진 길로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팔복동 중심에 있던 상리마을은 풍수지리상 원래 배의 형국이라고 한다. 예전에 상리. 중리. 하리가 있었다고 한다. 중리는 마을 자체가 없어졌는데, 지금의 BYC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하리는 신복리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 일대에 혼마식품과 팔복초교가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있다.

• 구렛들길

팔복동1가에 있는 구렛들 1길은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매화동에서 비석날 사이가 큰 들판이었는데, 그 들판을 구레렛들이라고 불렀다. 매화동에서 상리에 이르는 주변의 논은 '비가 안 오면, 모를 못 심었기 때문에 '봉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전주 제1공단이 들어서면서 구렛들과 팔복동1가의 냇뜰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삼양사와 한솔제지가 들어섰던 곳이 바로 구렛들이었다. 구렛들에서는 구주리 남쪽의 가리내에 있는 금액보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이 금액보 물은 팔복동의 신복리 앞을 지나서 김제의 용덕 백구까지 흘러갔다고 한다. 금액보는 금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야전길

팔복동4가에 있는 야전1길은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는데, 들에 밭을 일구고 살았다고 하여 야전마을이다.

• 감수길

감수길은 원래의 지명에 따라 지었다.

• 심감길

심감길은 원래의 지명을 따라 지었다.

• 신행로

기점 : 팔복동3가 410-3～종점 : 팔복동2가 419-3

팔복동3가와 팔복동2가를 잇는 신행로는 택지개발 이전에 사용되던 마을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버드랑죽 동남쪽에 있던 신행리는 현재 전주공업사가 있던 자리의 마을이다. 휴비스와 중소기업청이 인근에 있다.

• 구주길

구주길은 원래의 지명에 따라 지었다.

• 덕촌길

덕촌길은 원래의 지명에 따라 지었으며 감천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 덕촌마을이다.

• 동곡로(동곡안길)

기점 : 팔복동2가 436-6～종점 : 팔복동2가 339-2

동곡로는 팔복동2가와 3가를 잇는 도로로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동곡리는 황토백이에서 비석날까지 이어지는 들녘에 자리 잡고 있다. 반룡리와 상리 사이를 동곡리라고 하였으며 모두 여덟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토백이에서 팬아시아 페이퍼 코리아 앞에서 모나리자로 이어지는 도로 동쪽과 모나리자에서 유상리(팔달로에서 동산촌으로 이어지는 삼거리)에 이르는 남쪽 유상리 앞 남쪽에서 추천대교까지의 도로 서쪽이 동곡리 지역이다. 남양과 휴비스 등 여러 공장들이 이 길 주변에 있다.

• 반룡로(길)

기점 : 팔복동2가 511-2～종점 : 여의동 739-6

반룡로는 팔복동2가에서 여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반룡리는 반룡리의 앞산, 즉 비석날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용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원래 반룡마을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인데, 전주 공단 개발로 인하여 머리 부분이 잘려나가 반만 남아 반룡리(半龍里)라는 설이 있고, 반룡의 반은 발(發)이고, 용이 올라가서 발룡리라는 설이 있으며, 마을이 용을 떠받치고 있어서 발룡리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전주의 오룡(용흥, 와룡, 용소, 반룡, 회룡) 중에 한곳이며 용이 승천한다고 하여 반룡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용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 정수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아 발룡리가 맞을 것이

라고 한다. 반룡저수지와 현대자동차서비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근처에 있다.

• 학산길

학산길은 원래의 학산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 예암길

예암길은 원래 비석날 부근의 마을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

• 원만성로

기점 : 팔복동3가 402-1～종점 : 팔복동2가 663-5

원만성로는 팔복동3가에서 2가를 잇는 도로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인 원만성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원만성로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 운암로

기점 : 팔복동2가 645-2～종점 : 팔복동2가 660-1

운암로는 팔복동2가에 있는 마을로 팔과정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장원급제한 운암 이흥발 (李興浡) 1600～1673)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였다. 조선 중기의 지사(志士)인 이흥발의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자는 유연(油然)이고, 호가 운암(雲巖)이었던 이흥발은 1624년(인조 2년)에 생원이 되고 162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36년 청(淸)나라 사신이 와서 화친(和親)을 청하자 척화(斥和)를 주장하는 소(疏)를 올리고 낙향하여 명(明)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키며 일생 동안 학문을 닦았다.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죽은 뒤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지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운암일고(雲巖逸藁)》가 있다.

휴비스와 중소기업청이 운암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 서귀로

기점 : 팔복동2가 381-2, 여의동 771～종점 : 여의동 777

팔복동2가에서 여의동에 이르는 서귀로는 역사적인 인물인 서귀(西歸) 이기발李起渤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기발은 본관이 한산(韓山)이고, 자는 패우(沛雨), 호는 서귀(西歸)다. 1618년(광해군 10년)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국모(國母) 없는 나라라 한탄하며 은퇴했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에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입학했다. 1627년(인조 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필선(弼善)이 되고 1636년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형 흥발(興浡), 군수(郡守) 최온(崔蘊) 등과 근왕병(勤王兵)을 모집, 청주를 거쳐 서울에 진격

했으나 화약(和約)이 성립되어 전주에 돌아가 만년을 보냈다. 조정에서 여러 벼슬을 내렸으나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신이 받은 과거 합격증인 백패에서부터 하대부 벼슬 임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명나라의 연호가 적여 있으니 신은 명나라만 있는 줄 알 따름입니다.” 이기발은 현종 때 도승지에 추증되고 1744년(영조 20)에 그가 살던 마을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며,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 유제로

기점 : 여의동 837～종점 : 팔복동2가 655-4

유제로는 여의동에서 팔복동2가를 연결하는 도로로 자연적 또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방죽을 버드랑방죽 또는 유제리라고 하였다. 유제리는 본래 전주군 조촌면 지역으로 1914년에 덕촌리, 감천리, 신행리, 유제리를 병합하여 유제리라고 하였는데, 황방산에서 팔복동2가의 유상리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동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구 한솔제지 앞에서 예암리에 이어지는 도로가 팔복동2가와의 경계이다. 그러나 유제리는 전주 제1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 자체가 해체되고 말았다. 유제로 부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 유상로

기점 : 팔복동2가 676-20～종점 : 팔복동2가 774-92

유상로는 팔복동2가에 있는 도로로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유상리는 반룡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1914년에 동곡리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팔복동에 편입되었다. 전주공업고교가 근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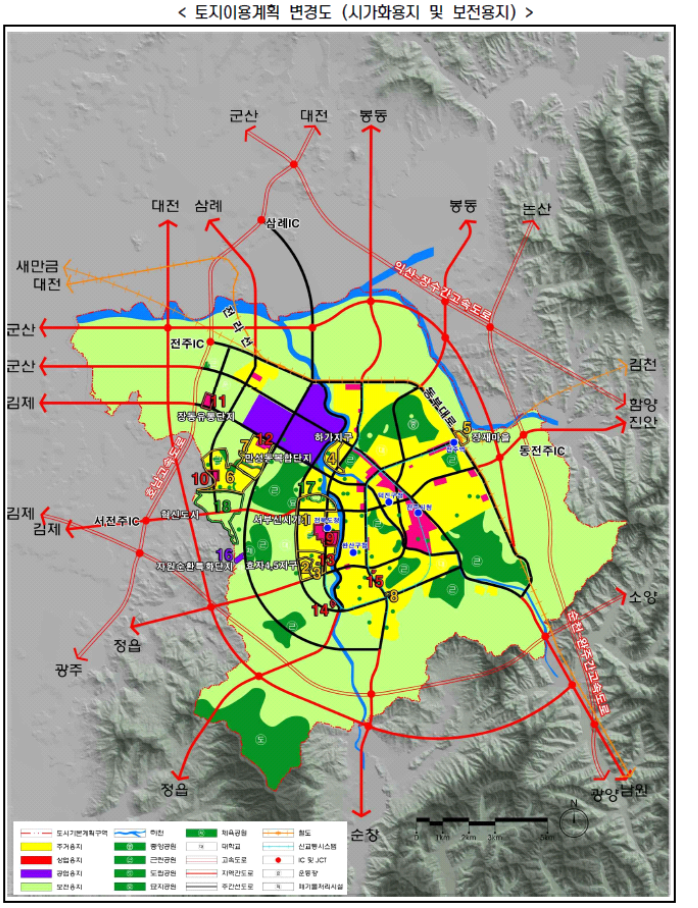
• 비석날로

기점 : 여의동 857-3～종점 : 팔복동2가 616-26

여의동과 팔복동을 잇는 비석날로는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비석날은 학상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 비석이 서 있는 산등성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제리에서 뻗어 내린 비석날에는 동쪽에 두 개 마을, 서쪽에 두 개 마을, 모두 4개의 마을이 있었다. 농협 하나로 클럽이 근처에 있다.

8. 팔복동의 주요 공간 체계

전주시는 2012년 10월에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팔복동은 〈도면 4〉와 같이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계속 이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주시내의 유일한 공업단지로서 지속적인 이용을 할 것이라는 시의 방침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공업단지 내에는 일부 주민들의 거주영역으로 대별되는 마을들이 있는데 팔복동 내에서는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신복마을과 서곡지구, 하천을 두고 연결되어 있는 구주마을 일대가 그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영역은 지속적으로 공단이 확대된다면 거주영역은 팔복동을 제외한 동산동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그리고 과거 35사단 부지를 활용한 송천1, 2동 일원의 에코타운 등이 팔복동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팔복동은 전주시의 주요 기간 산업단지로서 기린대로, 동부대로 그리고 철도를 통한 물류수송을 위한 철도가 아직 철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철도는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인 인력 수송을 위해서는 사용이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4〉 전주시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전주시청 2012)

팔복동은 1957년 전주시의 편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형태를 보인다. 1954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철도 시설과 전군가도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이었으며 경지정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 하천 주변의 환경이 부정형한 형태의 논을 통해 지형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68년 항공촬영 사진을 살펴보면 현재 팔복동 3가 와 황방산에 인접한 팔복동3가 일대에 (구)세한제지 공장과 사택 그리고 공단지대 주변의 도로망이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북쪽으로 인접하여 (현)휴비스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주 제1공업단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 현재 팔복초등학교 일대까지 확장하여 조성되면서 1단계 공단 조성 사업이 완료된다. 그리고 1970년대 당시에는 기존의 일제강점기 때 부설된 광궤가 그대로 놓여있어 철도를 이용한 물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철도를 통한 대규모의 물류수송을 통해 전주 제1산업단지는 물류비용 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을 가졌다. 이에 따라 섬유, 식품, 제지산업 등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한 산업단지 중에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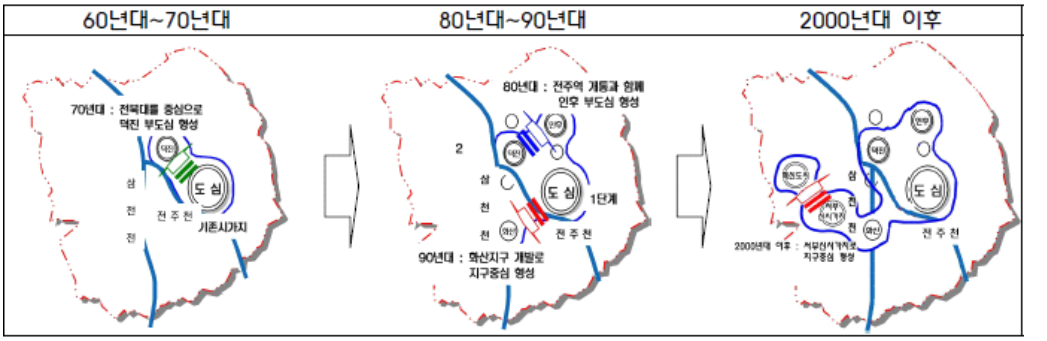
하지만, 전주 제1산업단지의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고 근로자의 고용 요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전주시는 덕진경찰서 북서편의 전주 제2산업단지를 1985~87년에 걸쳐 조성을 하게 되고 기업체의 입주를 받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공업과 화학산업 쪽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중공업 단지가 적은 전주 제1산업단지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가 미약하였다. 그리고 1980~1990년대가 지나면서 중화학 공업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자, 이를 유치하지 못한 전주산업단지는 더 이상의 시설의 재설비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2000년도 이후 급격하게 많은 업체들이 이탈하고 공단은 더욱 노후화되며 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그리고 1983년 전주역의 이전과 더불어 철로가 달라지고 물류를 담당하던 북전주역에 하역 물량이 줄어들면서 철도를 이용한 물류수송의 이점 또한 사라지게 되어 공단의 노후화는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전주역은 폐쇄된 상태이며 동산역은 일부 물류를 취급하다가 공단에서 들어오는 물류량이 줄어들면서 현재 완전히 폐쇄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현재 신복마을과 구주 마을 일대도 앞서 언급하였던 거주지역의 이동과 인근 지역의 지속적인 주거단지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이 인근의 타 동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팔복동 인근의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그리고 전미동 인근의 하수 종말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들어온 상황에서 거주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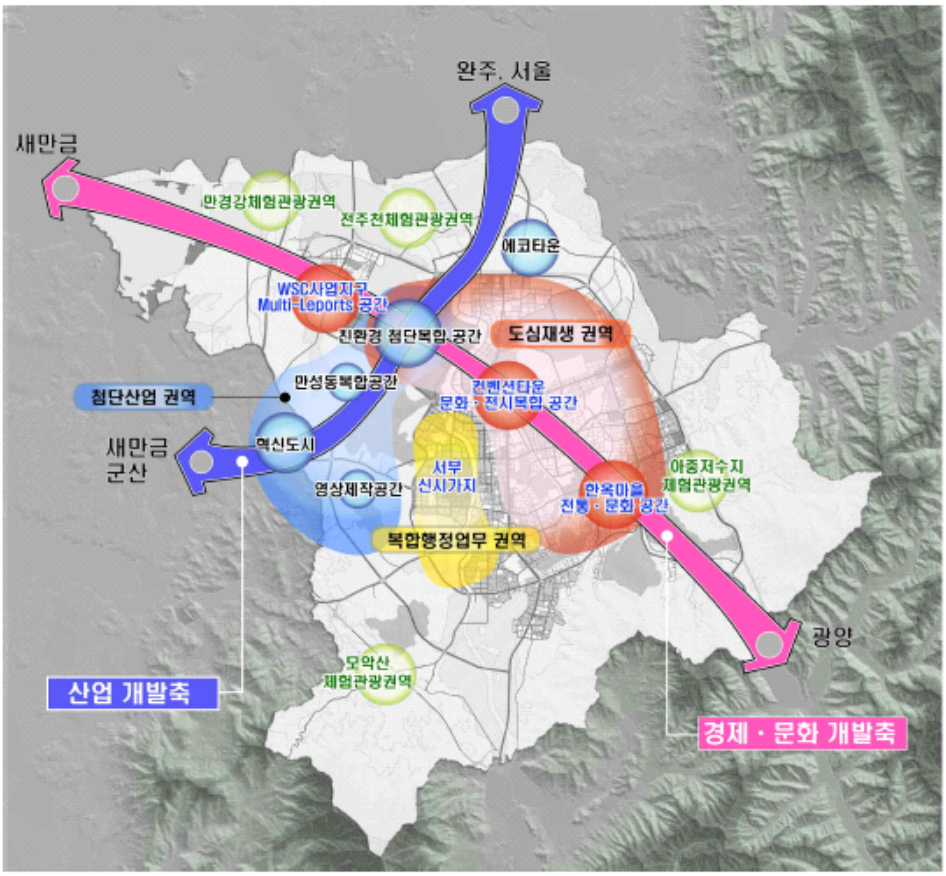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공단지역의 노후화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팔복동 내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공업사와 폐차장들이 증가한 상황이다. 유휴공업 단지를 활용한다는 점에는 이득

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동이 쉬운 산업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팔복동 지역은 대규모의 산업구조를 가진 공단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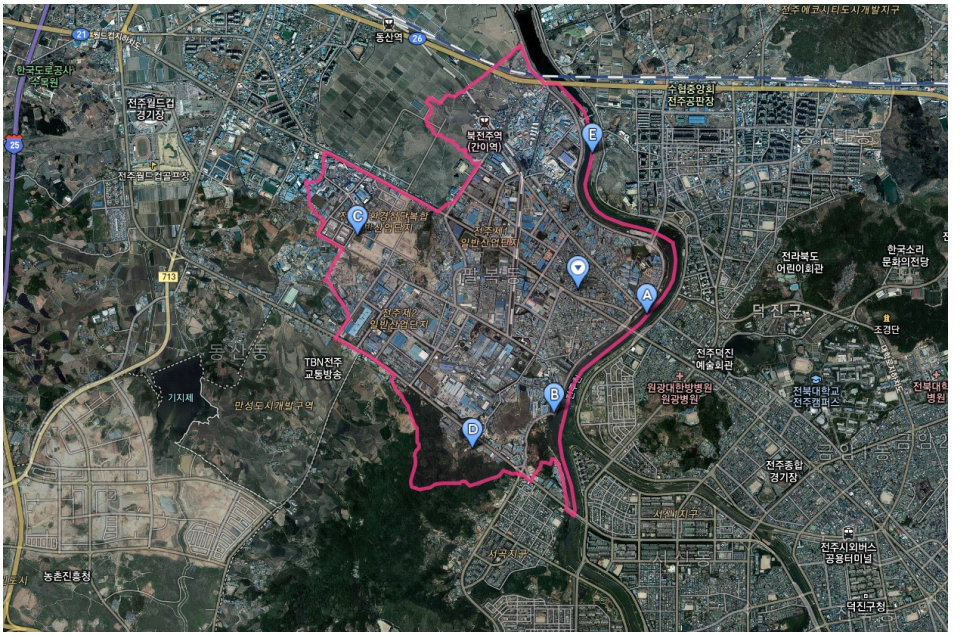
이러한 부분에서 전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인근 지역의 관련 산업 단체와 그리고 교통로의 확충,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이 중요할 것이다.



〈도면 5〉 시기별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전주시청 2012 인용)



〈도면 6〉 2025년 목표 개발축 구상도(전주시청 2012 인용)



〈도면 7〉 팔복동 위치도
(출처 : 다음 위성지도)

9. 팔복동의 인구・가구・산업 현황[31]

1) 팔복동의 인구 및 가구현황

〈표 5〉 팔복동 인구 및 세대수 변화(1965~2015년)

연도	등록 주민수	성별		세대	비고
		남	여		
2016.2	9,859	5,344	4,515	4,695	
2015	9,927	5,372	4,555	4,949	
2014	10,387	5,612	4,775	4,837	
2013	11,035	5,978	5,057	4,915	
2012	11,160	6,030	5,130	4,932	
2011	11,246	6,071	5,175	4,896	
2010	11,386	6,177	5,209	4,855	
2009	11,489	6,185	5,304	4,722	
2008	11,796	6,312	5,484	4,785	
2007	12,207	6,485	5,722	4,819	
2006	12,808	6,784	6,024	4,962	
2005	13,417	7,100	6,317	5,044	
2004	14,002	7,356	6,646	5,050	
2003	14,528	7,638	6,890	5,141	
2002	15,025	7,812	7,213	5,085	
2001	15,696	8,114	7,582	5,193	
2000	15,963	8,222	7,741	5,140	
1999	16,261	8,351	7,910	5,178	
1998	15,925	8,195	7,730	4,869	
1997	16,882	8,652	8,230	5,073	
1996	17,500	8,970	8,530	5,166	
1995	18,524	9,450	9,074	5,324	
1994	19,905	10,173	9,732	5,585	
1993	18,833	9,596	9,237	5,202	
1992	19,372	9,852	9,520	5,196	
1991	20,267	10,438	9,829	5,054	
1990	21,498	11,120	10,378	5,133	
1989	21,225	10,756	10,469	4,976	
1988	21,453	10,983	10,470	4,880	
1987	21,585	10,959	10,626	4,749	
1986	21,274	10,726	10,548	4,715	
1985	20,816	10,612	10,204	4,556	
1984	20,435	10,355	10,080	4,364	
1983	19,638	9,932	9,706	4,074	
1982	19,361	9,954	9,407	3,961	
1981	19.002	9,669	9,333	3,081	
1980	17,887	8,921	8,966	3,596	
1979	16,776	8,551	8,225	3,286	
1978	16,122	8,022	8,100	3,042	
1977	14,896	7,232	7,664	2,815	
1976	13,865	6,666	7,199	2,546	
1975	12,958	6,316	6,642	2,422	
1974	12,722	6,218	6,504	2,329	
1973	3,962	2,017	1,945	635	
1972	4,055	2,111	1,944	641	
1971	4,043	2,066	1,977	666	
1970	6,845	3,479	3,366	1,178	
1969	6,713	3,408	3,305	1,207	
1968	-	-	-	-	관련 자료 없음
1967	5,373	2,798	2,575	839	
1966	5,189	2,708	2,481	-	
1965	5,035	2,614	2,421	776	

31) 31)http://stat.kosis.kr/statHtml_host/ 통계청 통계DB조회 및 다운로드

팔복동의 인구는 인구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전주 제1산업단지의 조성은 196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973년까지는 급격한 인구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가 10,000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1974년 이후이다. 팔복동의 인구는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까지 약 20,000명대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1991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철도에 의한 물류의 감소 그리고 각종 공장의 산업규모 축소 공단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이다.

팔복동에서 인구가 늘어날 당시에는 많은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은 세를 주기 위하여 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의 공실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 남녀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1965~1970년대에는 전형적인 농촌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는 1975년 이후에는 노동과 관련된 40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이러한 인구 구성은 줄어들다가 2005년에는 교육과 거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층들이 빠져 나가고 단순히 노동과 관련된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노동 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노동가능연령대의 인구수 또한 줄어들며 점차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팔복동이 전반적으로 노동자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들의 인구 또한 감소하는 이중의 노령,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팔복동 연령별 인구수(1965~2013년)

연도	1965	1970	1976	1981	1986	1989	1995	2000	2005	2010	2013	비고
0~4세	769	1,214	1,839	2,221	2,331	1,931	1,514	1,198	683	441	437	
5~9세	871	1,313	1,860	2,423	2,392	2,404	1,283	1,027	776	407	332	
10~14세	688	1,054	1,507	2,175	2,299	2,100	1,641	883	830	623	449	
15~19세	528	784	1,920	2,262	2,964	2,719	1,858	1,319	792	742	662	
20~24세	348	701	1,479	2,165	2,035	2.045	2,321	1,685	1,225	708	742	
25~29세	377	749	1,371	2,070	2,439	2,311	1,899	1,927	1,328	933	681	
30~34세	324	719	996	1,509	1,819	2,178	1,584	1,387	1,272	848	835	
35~39세	232	539	818	1,054	1,409	1,440	1,436	1,150	1,006	933	761	
40~44세	203	353	613	878	972	1,131	1,114	1,102	974	877	842	
45~49세	163	325	439	714	846	895	1,028	940	1,024	955	892	
50~54세	153	292	275	450	627	710	795	903	877	959	1,024	
55~59세	126	247	249	341	384	453	650	679	828	785	829	
60~64세	253	185	184	269	259	311	427	546	605	699	707	
65~69세	-	130	149	196	498	597	279	346	474	499	567	
70~74세	-	85	82	139	-	-	209	210	284	395	483	
75~79세	-	61	52	80	-	-	148	136	154	231	323	
80~84세	-	17	21	41	-	-	76	104	84	110	152	
85세 이상	-	17	11	15	-	-	60	66	76	74	92	
총 계	5,035	8,785	13,865	19,002	21,274	21,225	18,322	15,608	13,292	11,219	10,810	

2) 팔복동의 주요 산업과 종사자 현황

〈표 7〉 팔복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1995~1998년)

산업소분류별	동별	1995		1996		1997		1998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전산업	팔복동	1,251	16,868	1,367	16,168	1,376	15,812	1,303	14,897
농업, 수렵업 및 임업	팔복동	-	-	-	-	1	11	1	11
광업	팔복동	3	84	2	31	2	21	1	11
제조업	팔복동	248	11,305	255	10,381	241	8,478	227	7,67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팔복동	-	-	1	7	-	-	-	-
건설업	팔복동	23	181	23	163	24	469	24	3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팔복동	554	2,056	560	2,144	568	2,852	545	2,735
숙박 및 음식점업	팔복동	172	379	179	405	188	546	175	35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팔복동	48	1,973	124	2,086	128	2,189	123	2,851
금융 및 보험업	팔복동	12	66	20	87	6	39	5	34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팔복동	32	67	31	63	42	108	37	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팔복동	7	340	11	320	8	465	7	243
교육서비스업	팔복동	36	154	38	166	35	203	29	2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팔복동	8	38	8	38	13	64	12	70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팔복동	108	225	115	277	120	367	117	270

〈표 8〉 팔복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1999~2004년)

산업분류별	행정동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전산업	팔복동	1,316	14,359	1,313	14,021	1,163	14,239	1,251	14,367	1,315	13,474	1,336	13,092
농업및 임업	팔복동	1	11	1	11	-	-	-	-	1	6	1	11
광업	팔복동	1	11	2	22	2	13	2	17	2	16	2	15
제조업	팔복동	229	7,040	225	6,959	211	6,829	245	6,849	253	6,129	250	5,807
전기,가스및수도사업	팔복동	-	-	-	-	-	-	-	-	1	120	1	183
건설업	팔복동	27	223	30	212	26	237	36	217	40	365	39	197
도매및소매업	팔복동	447	1,877	425	1,766	367	1,706	387	2,012	416	1,900	392	1,743
숙박및음식점업	팔복동	162	339	162	368	126	257	143	305	139	280	129	275
운수업	팔복동	131	2,815	145	2,673	150	3,139	168	3,066	183	2,773	243	2,800
통신업	팔복동	2	39	4	49	2	36	3	52	4	53	6	77
금융및보험업	팔복동	7	40	8	43	6	32	6	37	6	37	6	28
부동산업및임대업	팔복동	29	57	29	67	20	68	17	47	16	49	14	49
사업서비스업	팔복동	12	37	12	47	18	146	17	126	20	123	25	154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팔복동	9	562	9	546	12	588	10	441	10	429	11	595
교육서비스업	팔복동	24	185	24	151	22	167	25	217	21	188	20	16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팔복동	11	70	12	77	12	89	13	103	12	96	11	85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팔복동	32	43	33	54	27	37	26	40	28	48	26	49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팔복동	192	1,010	192	976	162	895	153	838	163	862	160	860

〈표 9〉 팔복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5~2006년)

산업분류별	행정동별	2005		2006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전산업	팔복동	1,373	13,115	987	3,974
농업및 임업	팔복동	1	8	1	1
광업	팔복동	1	11	-	-
제조업	팔복동	262	5,596	44	294
전기,가스및수도사업	팔복동	1	252	1	102
건설업	팔복동	39	298	41	444
도매및소매업	팔복동	381	2,072	370	1,813
숙박및음식점업	팔복동	122	291	106	251
운수업	팔복동	271	2,390	275	2,302
통신업	팔복동	10	159	8	155
금융및보험업	팔복동	6	40	6	31
부동산업및임대업	팔복동	12	46	14	50
사업서비스업	팔복동	23	196	17	168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팔복동	11	495	11	521
교육서비스업	팔복동	22	192	20	16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팔복동	10	84	10	89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팔복동	25	59	20	37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팔복동	176	926	167	999

〈표 10〉 팔복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7~2012년)

표준산업분류별(9차)	행정구역별(읍면동)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산 업(0)	팔복동	1,281	11,664	1,348	12,511	1,430	14,160	1,505	14,080	1,444	14,619	1,778	15,881
농업, 임업 및 어업(01~03)(A)	팔복동	-	-	-	-	0	0	-	-	-	-	-	-
광업(05~08)(B)	팔복동	-	-	-	-	0	0	-	-	-	-	-	-
제조업(10~33)(C)	팔복동	258	5,155	270	5,441	314	5,991	339	6,306	354	6,508	404	7,1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D)	팔복동	1	29	1	28	1	28	-	-	-	-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E)	팔복동	9	89	9	142	11	164	11	162	11	110	12	109
건설업(41~42)(F)	팔복동	25	231	30	368	35	260	43	346	44	371	65	446
도매 및 소매업(45~47)(G)	팔복동	353	1,751	352	1,653	373	1,943	396	1,928	422	1,951	432	1,960
운수업(49~52)(H)	팔복동	274	2,220	310	2,639	300	3,100	289	2,573	155	2,475	346	2,696
숙박 및 음식점업(55~56)(I)	팔복동	106	235	108	234	111	249	111	252	108	269	115	2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J)	팔복동	4	98	3	59	4	40	6	82	8	116	8	105
금융 및 보험업(64~66)(K)	팔복동	7	42	6	34	6	40	8	46	8	37	12	6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L)	팔복동	9	30	13	77	14	86	18	88	20	116	22	1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M)	팔복동	13	197	16	278	14	481	20	254	23	270	33	3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N)	팔복동	6	13	6	24	6	64	8	124	17	388	27	5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O)	팔복동	9	393	8	356	7	352	6	317	6	360	7	365
교육 서비스업(85)(P)	팔복동	22	163	17	139	17	114	16	105	17	116	20	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Q)	팔복동	9	80	16	118	16	121	16	122	18	129	19	1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R)	팔복동	20	30	21	34	18	34	20	42	19	39	19	37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S)	팔복동	156	908	162	887	183	1,093	198	1,333	214	1,364	237	1,418
가구내고용활동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T)	팔복동	-	-	-	-	0	0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99)(U)	팔복동	-	-	-	-	0	0	-	-	-	-	-	-

팔복동의 산업구조와 종사자는 제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들어서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운수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제조업체가 줄어드는 과정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운수업의 창고로 쓰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택배와 물류산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적치하고 운반할 수 없는 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부가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팔복동의 인근의 공장들이 더 이상의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시설비가 들지 않는 물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는 것일 가능성도 크다. 또한 도·소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물류와 인근의 자동차 공업사와 폐차장, 택시 회사의 집중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를 상대로 한 도·소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팔복동은 주민들의 거주지로서 적합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산업단지로서도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으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팔복동은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재편과 공장의 재생과 시설 투입 그리고 주민 생활의 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팔복동의 주요 각종시설 및 주민시설 현황

팔복동은 동의 성격상 전주의 주요 공업단지인 전주 제1공단과 전주 제2공단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과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편의·복지시설 등의 주요 시설이 확인된다. 주민들과 관련된 편의 시설은 많지 않으며 최근 첨단산업단지 및 기타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기존 팔복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 거주구역으로 구성된 동에 비해서 종교 및 주민편의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관할 동 내에 학교가 없다는 게 특이한 양상인데 한때는 팔복초등학교가 관내에 있었다. 현재는 이 일대도 하이트 물류센터가 위치하면서 동산동 내와 팔복동의 경계와 근접한 지역 일대에 팔복초등학교가 이전된 상황이다. 중·고등학교 또한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교육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이 지역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동 내에 학생 인구 분포가 거의 없어 동의 노령화의 진행 그리고 공장지대에 의해서 거주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 교육기관

팔복동
전라북도지방경찰청지방경찰학교

- 행정 및 공공기관

팔복동		
팔복동주민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	월드컵추진단장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북건설기계검사소
팔복동예비군중대본부	전주기상지청	
전북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사)캠틱종합기술원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전북전략산업기획단		

- 의료

팔복동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쉼부부치과의원	한충헌 가정의학과의원
힘찬한의원	윤인영치과의원	푸른치과의원
장현철내과	허원영내과의원	

• 종교

팔복동		
감천사	팔복열매교회	나실교회
전주시온교회	팔복산교회	배가교회
학산교회	햇빛교회	신상교회
전주 팔복교회	말씀샘교회	새벽별교회
증산도 전주덕진도장(민족종교)	팔복성결교회	북전주교회
팔복소망교회	화진교회	팔복은총교회
팔복중앙교회	팔복제일교회	천주교 팔복성당
행복나눔교회	원불교팔복교당 (민족종교)	통일교덕진가정교회
팔복영광교회		

• 문화·복지

팔복동		
열린점자 작은도서관	팔복작은도서관	크라운해태어린이체험미술관
자람터작은도서관	십대의문고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책사랑작은도서관	전주한지박물관	호성보육원
호성원	중소기업진흥공단전주창업보육센터	팔복동나눔지역아동센터
전북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전라북도시각장애인복지회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북지회
BYC사원복지관	전주희망의쉼터	전주지역자활센터

• 금융

팔복동		
전주팔복동 우체국	전북은행 팔복동지점	호남신용협동조합
휴비스 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전주산업단지지점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세플러코리아 신용협동조합	전주페이퍼신용협동조합	덕진신협 팔복지점
전북은행 전주공단지점	전북은행 테크노파크영업점	전주 축협 구매계
신도새마을금고	백양 새마을금고	

• 경로당

팔복동		
감수리 회관	용암 경로당	추천 경로당
칠일 경로당	감수 경로당	팔복동 남양아파트 노인정
동곡 경로당	덕수 여자 경로당	구주 경로당
백수 경로당	유상 경노당	덕우 경로당
상리 경로당	복덕 부녀 경로당	야전 경로당
복지 여자 경로당	덕송 경로당	팔복 추천 경로당

• 치안

팔복동		
- 전주덕진경찰서	팔복 파출소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 상업시설

팔복동
BYC마트 전주점

• 공장

팔복동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경동흥업전주2공장	현대시멘트전주공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성상품3공장	삼남도정공장
가온전선전주공장	BYC전주공장	훼미리식품전주공장
동명철근가공공장	남호섬유전주3공장	삼우사제재공장
신성기계중기정비	한일시멘트전주공장	영진두부공장
전주페이퍼전주공장	테크카본공장	케이피아이전주공장
휴비스전주공장	전주아파트형공장	신한방전주공장
삼양화성 전주공장	(제이비드론코리아, 휴먼드림, Cbn,	제일상품전주공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공장설	휴데코, 리퓨터, 인포메디, 아이에스	한경섬유전주공장
립지원센터	피, LS산전 전북서비스센터, 지오다	제비표페인트 전주대리점
모나리자전주공장	임, 신유엘리베이터)	
플렉스폼코리아전주공장	쌍용양회전주공장	

11. 기존 정책 현황 및 주민 주도형 사업 현황[32)]

팔복동은 공단과 주거지역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단의 활력,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 민·관의 주도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각각의 사례들은 현재 혹은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는 팔복동의 공단과 주민의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서술과 분석보다는 신문상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팔복동 정비사업(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낙후한 전주 팔복동 2018년 말까지 대대적 정비

전주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팔복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시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당선된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 거주지 밀집지역(4만8천㎡)의 주택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목표다. 시는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골목길의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공동 마을회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며 폐가를 말끔히 정비한다.

아울러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일자리 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자활을 돕는다.

이 사업이 2018년 말께 마무리되면 팔복동 공단 배후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주민의 삶과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2월 8일 연합뉴스

전주 팔복동 노후주거지 개선 첫 발

전주시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48,000㎡)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첫 발을 뗐다.

전주시는 3일 팔복동 신상교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공모에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

32) 정책과 주민참여 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는 직접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지역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낸 자료를 중심으로 발췌 및 정리를 진행하였다.

련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의 수립 목표와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도로 개선, 골목길 위험시설 정비, 희망의 집 조성, 폐공가 정비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집수리 정비사업과 주민공동체 육성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대상지역의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추진과 병행해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팔복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천대교~서곡광장 도로개설공사, 노후산단 재생사업, 야전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피하우스사업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공단 배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3일 전북일보

- 팔복동 금학천 하천 정비사업

전주 팔복동 금학천, 생태하천으로 변모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팔복동 전주산업단지 전주페이퍼에서 전주천 합류점에 이르는 금학천은 노후 공단지역이자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16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간 유량이 거의 없어 오염하천이었던 금학천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수생태 환경이 복원되고, 인근 팔복동 철길 주변은 문화재생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금학천은 과거 집중호우 시 주변 주택 및 공장건물 1,300여 동과 농경지 200여㏊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총 길이 2.2㎞의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 재가설(5개소)과 유지용수 확보, 배수시설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량이 거의 없어 폐천화되고 오염된 금학천에 전주천 금학보에서 꾸준히 하천유지용수를 유입시켜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학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올 연말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팔복동 철길주변 내 금학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통해 지난해 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금학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서 추진 중인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쏘렉스 부지를 활용한 문화공원조성 등을 아우르는 팔복동 철길명소화로 노후된 산업단지가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의 대표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도심지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 된 것처럼, 올해 신규사업인 금학천도 재해예방과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에 앞장서 생태도시 전주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7일 전북도민일보

•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

전주시,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 밑그림 완성

전북 전주시는 팔복동 철길 주변의 폐공장과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은 전주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휴먼플랜 5G 정책 중 더 위대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레이트(Great) 전주'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을 도시 재생의 의미에 맞게 기존의 장소와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범위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 철로 주변과 옛 쏘렉스 건물, 금학천(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전주천 합류점) 등이다.

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경관개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산출, 세부사업별 기본디자인 콘셉트를 제시해 실시설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CG 등)을 완성했다.

전주시는 철길 옆 금학천의 경우 폭을 넓혀 생태축 연결과 보행권 확보로 숲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철길 주변을 정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공장지대 안 옛 쏘렉스 건물은 철거하는 대신 카세트 공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소리와 관련된 문화 공간 또는 설치미술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시가 철길 명소화 사업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 이유는 전체 사업 중 철로변 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공원 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은 전통문화과에서, 금학천 정

비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각각 나누어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 공간에 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나 이해 없이 각 부서의 개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서 명소화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9월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을 통해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며 개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북부권 르네상스 시대 열기를 위해 전주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도동 항공대 명소화와 경관농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산동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을 변화시키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엽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여러 부서가 관련해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의 추진력 향상과 예산절감, 통일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15일 뉴스 1

전주 팔복동 제1산단 반세기 만에 '꽃단장'… 시, 철길명소화사업 추진

조성된 지 반세기 가까이 되며 침체된 전북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가 새롭게 단장된다.

전주시는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철길 일대를 문화공간과 관광지로 만드는 '철길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100억원을 들여 25년째 문이 닫힌 채 방치되어 있던 ㈜쏘렉스 공장 부지에 '팔복문화예술공장(가칭)'을 세워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전주시는 전체 1만4,323㎡ 부지와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일시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인 다음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재)전주문화재단은 이날 팔복문화예술공장 총괄기획자로 건축가이자 문화기획자인 황순우(55)씨를 선정했다. (재)전주문화재단은 이 곳이 카세트 공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소리와 관련된 문화 공간 또는 설치미술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전주시는 160억원을 들여 철길 옆을 흐르는 금학천의 폭을 넓히는 등 하천을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63억원을 들여 양방 통행인 철길 주변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선, 주민들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레일의 동의를 얻어 철로변을 따라 형성된 좌우 10여m의 공간을 녹지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1969년에 조성된 제1산업단지에는 140여개 업체가 있으나,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해마다 휴·폐업 기업이 늘고 있다. 전주페이퍼와 동산역(전라선) 사이 1.4㎞에 놓여 있는 철길은 전주페이퍼와 휴비스의 물품을 실어나는 철도로 22~28량 기차가 하루 4차례 운행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일보

•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전주시, 팔복동 등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전주시가 23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주지역 네 번째 해피하우스센터가 개소했다.

전주시는 조봉업 부시장과 박현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는 공무원 1명과 주거복지·전기·건축설비 등 3개 분야 다기능공

전문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팔복동과 덕진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4개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점검·보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주택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주거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시는 당초 북부권 해피하우스센터를 팔복동 공단 내 시유지를 활용해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지역이 '팔복동 취약지역 환경개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선 팔복동 주민센터 내 공간을 임시로 활용키로 하고 공모사업이 완료된 후 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센터로 방문하면 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24개 항목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지원 및 상담을 통해 불편 사항이 해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까지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관내 9,056세대에 전기누전, 수도누수 등 주택유지관리 불편사항 4만7368건에 대한 무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5년 9월 23일 NSP통신

• 적십자 전주덕진지구협의회 팔복동 봉사회

적십자 전주덕진지구협의회 팔복동 봉사회 발대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지난 24일 전주시 팔복동주민센터에서 적십자 전주덕진지구협의회 팔복동 봉사회(회장 허현) 발대식을 열었다.

지역통장 등 주민 19명으로 구성된 팔복동 봉사회는 앞으로 팔복동 내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임계강 부회장, 전북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이원숙 위원장, 봉사회 전북지사협의회 임창만 회장 등 내·외빈과 적십자 봉사회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현 팔복동 봉사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팔복동을 행복한 동네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26일 전북일보

• 팔복동 반룡마을 벽화마을 조성

팔복동 반룡마을 주민들 직접 벽화마을 꾸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주민센터(동장 이경엽)와 마을재생협의회(회장 이동선)는 27일 반룡마을 앞에서 반룡 벽화마을의 번영을 위한 '벽화마을 안내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팔복동 반룡마을 벽화마을꾸미기는 지난해 6월부터 마을 생활공간 개선을 목표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벽화를 그리고 환경을 정비해 왔으며, 어둡고 침침했던 벽 담장이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탈바꿈되고 마을 주변이 아름다운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반룡마을의 유래에 대한 지역 어르신의 소개와 더불어 벽화마을을 함께 돌며 감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동선 마을재생협의회장은 "자발적으로 벽화작업에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반룡 벽화마을은 주민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27일 전북도민일보

• 팔복동 야전마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2012~2015년)

전주 팔복동 야전마을 상습침수피해 벗어난다

전주지역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주시 팔복동 야전마을이 오는 2015년부터는 상습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20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팔복동 야전마을 재해위험지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156만㎡)은 지난 2010년 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며, 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120억원을 투입해 유수지 1개소와 교량 2개, 배수관로(3.9㎞)를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확보된 19억원이 투입돼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이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침수로 반복되는 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거주 환경이 갖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전주시에는 2010년부터 팔복동 야전지구를 비롯 5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중 평화동 덕적지구는 지난해부터 145억이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절개위험지역인 색장동 색장지구는 올해부터 28억이 투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진북동 어은지구와 전미동 진기들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재난·재해 없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20일 전북일보



"북전주역은 1967년쯤 준공되었다. 지금은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되었다. 사람이 타지 않게 된지는 약 35년 가량 되어 약 1982년부터이다."

-유영자(팔복동 감수리거주)-



"가운데집(추천대교 인근 족발집 중 하나)에서 쭉 내려오면 경사진 곳이 있었는데 그 밑에도 과거에는 집과 주막이 있었다. 그곳에 조그마한 장터가 있어서 농민들이 채소도 팔곤 했다."

-박상철(팔복동 거주)-

Ⅲ. 팔복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1. 팔복동 이야기 분석
2. 팔복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
3. 키워드와 구술 내용으로 본
   팔복동의 특징과 기억의 지형

Ⅲ. 팔복동에 관한 주민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지형

본 장은 팔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읽혀지는 다양한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에서 읽혀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다음은 팔복동 주민들의 면담을 분석한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성과, 한계, 그리고 차후 조사를 위한 제안 사항들을 서술하였으며 추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혹은 논의를 할 수 있는 팔복동의 다양한 발전방안과 주민의 생활과 팔복동의 발전에 도움이 될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서술하였다.

1. 팔복동 이야기 분석

1) 이야기 추출·선별 및 분류

- 이야기 수집/키워드 추출/키워드 분류(키워드 분류표)
- 이야기 분류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
- 2가지 범주 : 유형별 이야기 분류, 시대구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기억의 풍경

(1) 유형 및 공간별 분류 방법

- 유형별 이야기 분류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주민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구조를 유형 분류하여 읽어내는 작업
- 유형별 이야기 분류표는 크게 공간 및 구술 유형 항목과 주요 키워드로 구분
- 공간 및 구술 유형은 9개의 항목(시대생활상, 시대생활 공간 묘사,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자연·마을지명유래, 역사관련 시설·설화, 공장·공업단지, 민원·취약한 기반시설, 에피소드·사건·추억·인물, 그 외의 이야기)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용을 정리
- 이야기 분류표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77개였음
- 공간 및 구술 유형 항목별 숫자는 시대생활상 15개, 시대생활 공간 묘사 7개,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14개, 자연·마을 지명유래 7개, 역사관련 시설·설화 4개, 공장·공업단지 9개, 민원·취약한 기반시설 13개, 에피소드·사건·추억·인물 4개, 그 외의 이야기 4개였음

(2) 이야기키워드 시기구분 방법

• 시기구분 이야기 분류표 설명

- 시대구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주민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구조를 시대순과 이야기 분류에 따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작업
- 공간 및 구술 유형에 포함되는 각각의 주요 키워드들을 시대구분에 따라 분류
- 시대변화에 따른 동의 변천 흐름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작성
- 시대분류는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1940년대～해방 이후, 1950년대～6·25, 1950년대～휴전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기타로 구분
- 대한제국기～1950년대(휴전 이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근·현대 기점이어서 연도가 아닌 시기로 설정
- 1960년대 이후의 시대 분류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

2) 팔복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항목 분석방향

(1) 이야기 분석 방향

- 분석 자료 : 유형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시대구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기억의 풍경
- 구술 유형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 빈도수를 파악하여 이야기 분포현황 제시
-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어 시대별 핵심 키워드 이야기 내용 정리
- 이야기키워드 분석으로 팔복동의 특성을 이해

(2) 시대생활상

- 분류기준 : 팔복동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본 삶의 단상
- 공간 및 구술 유형 항목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항목
- 핵심 키워드 : 시대생활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사에 더 가까웠던 주민들의 기억
- 팔복동과 연관이 있는 시대생활사 : 기차타고 통학하기(북전주역), 팔복동의 바글바글 명동거리 등
- 자연부락 위주로 펼쳐진 시대생활사 : 봉답으로 농사짓기(상리마을 봉답), 유제리의 공동우물 등
- 과거 주변 풍경과 관련된 시대생활사 : 옛 길(용암경로당 앞 옛 길), 옛 풍경(반룡마을의 옛 풍경) 등
- 민간신앙 관련 시대생활사 : 초하룻날은 외부인 출입금지(당산나무와 당산제) 등
- 치열한 삶의 단상 :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단칸방이 많던 동네), 품을 팔아 농사짓기(과거 구주마을에서의 생활) 등
- 추억이 된 삶의 단상 : 추천대교 빨래터, 팔복동의 목욕탕, 50원짜리 주먹빵(마을에

있던 시설물) 등

-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2000년대 시간의 공백기 : 그 시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면담대상자 확보하지 못함

(3) 시대생활공간묘사

- 분류기준 : 주민들의 삶이 만들어 낸 생활공간
- 핵심 키워드 : 일제강점기 개발의 풍경과 팔복공단의 개발로 인한 변화의 모습
- 과거 자연취락의 풍경 : 과거 구주마을, 감수리, 야전마을, 신교마을 등
- 개발 이전 삶의 풍경 : 구주마을의 시냇물, 농사짓기 힘든 덕촌마을, 신교마을 스무채 기와집 등
- 개발 이후 열악한 삶의 풍경 : 야전리 음식물자원화 시설
- 공장과 관련된 삶의 풍경 : 전주페이퍼와 마을의 결연을 통해 마을이 받았던 혜택
- 단칸방 이야기 : 과거 신복마을 일대 단칸방에 세놓은 가구들이 많았던 이야기
- 팔복정수장과 팔과정 : 과거 동곡리 마을 뒷산 팔과정 주위 팔복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먹었던 이야기
- 주민들의 구술에서 알 수 있는 팔복동 개발의 현재 : 공단개발과 관련해 주변 자연부락의 변화가 일어남

(4)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 분류기준 : 팔복동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변 공간의 변화
- 공간 및 구술 유형 항목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항목
- 물과 관련된 기억 : 가리방죽(농업용수), 야전리(지하수) 등 농업용수와 깨끗했던 물에 대한 기억
- 또랑(시냇물)과 관련된 기억 : 동곡마을 앞 또랑(복개공사), 반룡리 당산또랑(수로변경) 등
- 당산나무에 대한 기억 : 신복마을의 몇 백 년 된 정자나무, 반룡리의 큰 당산나무 등
- 바위에 대한 기억 : 동곡마을 뒷산 장수와 장수나무에 대한 기억(개발로 인해 갈라짐)
- 행정구역 편입에 관한 기억 : 과거 완주군이었던 야전리와 감수리의 전주시 편입
- 과거 도축장에 관한 기억 : 도축장에서 났던 냄새와 그 주변으로 많던 고깃집에 대한 기억, 현재는 삼우냉동으로 변화
- 2000년대 서부우회도로와 관련한 변화 : 북전주경찰서의 위치 변화, 덕우마을의 도로 개설과 마을의 양분
- 팔복동주민센터 위치의 변화 : 동곡리에 있던 주민센터가 신복리로 이전한 이야기
- 팔복동은 자연취락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자연환경(물, 나무, 바위, 산 등)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음

- 완주군 동산면이었던 마을들이 행정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 편입
- 서부우회도로 개발과 함께 도로와 마을의 변화

(5) 자연·마을지명유래

- 분류기준 : 팔복동 마을의 지명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 오래 전부터 불리던 이름 : 신복리 “고래뜰(구렛들)”- 과거 고래가 들어왔던 곳
- 식물과 관련된 이름 : 새터 ‘매화동’-매화나무, 유제리 ‘버드랑죽’-버드나무와 관련된 이름
- 물과 관련된 이름 : “감수리”- 물이 달다는 뜻
- 이야기가 있는 이름 : “팔과정”- 과거 과거급제한 사람이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름 : 덕촌방죽 “가르내방죽”-서부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반으로 갈라지면서 붙은 이름 “칠일경로당”-팔복동의 7개 마을이 뭉쳤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6) 역사관련 시설·설화

- 분류기준 : 팔복동 역사 관련한 주민들의 기억
- 핵심키워드 : 신복리 당산나무, 추천대, 팔과정, 황방산과 관련한 설화

(7) 공장·공업단지

- 분류기준 : 팔복동에 있는 공장·공업단지와 관련된 기억
- 1970년대 팔복동의 주요 사업 : 가공업(요코·메리야스·왕골소쿠리 공장)
- 지역을 살리고자 했던 기업 : 전주페이퍼가 전주로 오게 된 계기, 삼양사가 전주에 공장을 짓게 된 계기
- 공장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 감수리의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시멘트 공장
- 1970년대 팔복동에 가공업과 수공업이 늘어나면서 팔복동의 공업단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입되었었음
- 현재 음식물자원화처리장과 시멘트 공장 등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

(8) 민원·취약한 기반시설

- 분류기준 : 팔복동 주민들이 말하는 불편한 점
- 침수에 대한 기억 : 감수리(마당까지 찼던 물), 매화동(잦은 침수,하수도 공사), 야전리(마을이 침수되다) 등
-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네 : 정화조퍼내기(주민들 자비로 관리되는 정화조), 동곡리(취약한 도시가스, 소방도로) 등

- 공장으로 인한 피해 : 야전마을(시멘트공장), 감수리(연탄공장, 폐차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등
- 무허가지역 : 상리마을의 공단으로 인해 무허가 지역에 지어진 주택

(9) 에피소드·사건·추억·인물

- 분류기준 : 팔복동의 역사적 사건이나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 마을 지형(분위기)와 관련된 에피소드 : 유제리(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돼)
- 마을 실개천과 관련된 사건 : 동곡리(실개천에 빠진 아이)
- 마을과 관련된 인물 : 매화동 조씨와 뽕나무

(10) 그 외의 이야기

- 분류기준 : 본 동의 이야기 항목과 타동 관련 이야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

〈표 11〉 팔복동 이야기 유형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
면담보고서 34명의 주민, 각색한 키워드 77개, 면담보고서 키워드71개

공간 및 구술 유형	주요 키워드
시대생활상 (15개)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단칸방이 많던 동네)/팔복동의 바글바글 명동거리(팔복동의 명동거리)/기차타고 통학하기(북전주역 통학)/옛 길(용암경로당 앞 옛 길)/옛 풍경(반룡마을의 옛 풍경)/억수탕(구주마을의 변화)/추천대교 빨래터(구주마을의 변화)/유제리의 공동 우물(유제리)/팔복동의 목욕탕/봉답으로 농사짓기(상리마을 봉답)/초하룻날은 외부인 출입금지(당산나무와 당산제)/탕, 탕, 탕, 탕 목욕탕(국민주택과 목욕탕 위치)/품을 팔아 농사짓기(과거 구주마을에서의 생활)/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과거 구주마을의 우물)/50원짜리 주먹빵(마을에 있던 시설물)
시대생활 공간 묘사 (7개)	농사짓기 힘든 덕촌마을(전주페이퍼 자매결연)/감수리에서 야전리까지(음식물자원화시설)/과거 구주마을(과거 구주마을의 모습)/신교마을의 스무 채 기와집(마을의 유래)/조그마한 장터(해방 직후 용산다리 일대의 풍경)/팔복정수장(팔과정과 팔복정수장)/신복리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14개)	주류창고가 된 북전주경찰서터(북전주경찰서)/마을 뒷산과 큰 바위/은행나무·봉나무 밭(구주마을의 변화)/깨끗했던 야전리 지하수(야전리 마을 이야기)/2002년 개통된 서부우회도로(주변 지형들의 변화)/마을 앞 또랑(시냇물)/신복경로당의 정자나무/장수의 발자국, 장수바위(장수바위)/작은 또랑, 당산도랑(당산도랑과 동곡다리)/가리방죽/사라진 도축장(상리)/상리마을의 도축장(상리마을의 도축장)/옮겨진 동사무소(팔복동사무소)/유제리에 있던 큰 저수지(유제리의 풍경과 현재)
자연, 마을지명유래 (7개)	매화꽃이 만발했던 매화동(새터와 매화동)/버드랑죽(유제리와 감천리)/덕촌방죽은 가르내방죽으로(주변 지형들의 변화)/고래뜰/8명의 과거 급제 이야기, ‘팔과정’(팔과정과 팔복정수장)/물이 달다, ‘감수리’(마을의 유래와 지명)/7개의 마을이 뭉치다, ‘칠일경로당’(칠일경로당 이름의 유래)
역사관련 시설, 설화 (4개)	당산제를 잘못 지내면 누가 죽어도 하나가 죽는다(신복리 당산나무터)/숙쟁이·추천대·비비정(추천대의 역사와 그 앞 도로)/맨산에 있던 팔과정(팔과정)/용이 산으로 올라가(황방산 용터와 용소 설화)
공장, 공업단지 (9개)	요코·메리야스·왕골소쿠리공장(공장가공업과 팔복동의 발달)/전주페이퍼의 전주행(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요코공장과 콜라공장/일명 똥공장(음식물자원화처리장)/코에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일년에 한 번씩 보상받기(감수리와 야전리)/팔복동의 막걸리 주조공장(마을에 있던 시설물)/커피공장(마을에 있던 시설물)/고향 주민 먹여 살리기(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민원, 취약한 기반시설 (13개)	마당까지 찼던 물(북전주역)/쭈글쭈글한 틈새로 분진이 섞여(시멘트공장)/마을을 양분하는 도로 개설/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침수에 대한 기억)/잦은 침수, 하수도 공사(침수에 관한 기억)/정화조 퍼내기(주민들 자비로 관리되는 정화조)/구불구불한 도로(불편한 도로상태)/동네 가득한 묵은지(음식물) 냄새(현재 감수리에서의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동네(기반시설이 취약한 동곡마을)/불편한 구주마을(현재 구주마을에서의 생활)/생활인구가 줄고 있다(팔복동의 현재)/마을이 침수되다(침수에 대한 기억)/상리마을의 무허가 지역
에피소드, 사건, 추억, 인물 (4개)	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돼(유제리의 풍경과 현재)/매화동‘조씨’(주변 지형들의 변화)/실개천에 빠진 아이(동곡리)/개에 물려 죽은 사건(비석날에서 일어났던 일)
그 외의 이야기 (4개)	100년의 역사, 유상교회(유상교회)/뚝방의 보신탕(만○집)/광주○가든/4개 마을 통합 경로당 ‘용암경로당’

〈표 12〉 시기구분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

시대 분류 / 공간 및 구술 유형	주요 키워드											
	대한제국기 (1897~1910)	일제강점기 (1910~1940)	1940년대 (해방 이후)	1950년대 (6.25)	1950년대 (휴전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기타 (시대미상)
시대생활상 (15개)						봉답으로 농사짓기(상리마을 봉답/초하룻날은 외부인 출입금지(당산나무와 당산제)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단칸방이 많던 동네)/팔복동의 바글바글 명동거리(팔복동의 명동거리)/기차타고 통학하기(북전주역 통학)//추천대교 빨래터(구주마을의 변화)/0원짜리 주먹빵(마을에 있던 시설물)	팔복동의 목욕탕/탕, 탕, 탕 목욕탕(국민주택과 목욕탕 위치)	옛 길(용암경로당 앞 옛 길)/경로당위치(구주마을의 변화)/	옛 풍경(반룡마을의 옛 풍경)		유제리의 공동 우물(유제리)//품을 팔아 농사짓기(과거 구주마을에서의 생활)/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과거 구주마을의 우물)
시대생활 공간 묘사 (7개)			조그마한 장터(해방 직후 용산다리 일대의 풍경)					신교마을의 스무 채 기와집(마을의 유래)/팔복정수장(팔과정과 팔복정수장)	농사짓기 힘든 덕촌마을(전주페이퍼 자매결연)	과거 구주마을(과거 구주마을의 모습)/신복리 일원	감수리에서 야전리까지(음식물자원화시설)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14개)							주류창고가 된 북전주경찰서터(북전주경찰서)	마을 뒷산과 큰 바위/가리방죽/유제리에 있던 큰 저수지(유제리의 풍경과 현재)	은행나무·봉나무 밭(구주마을의 변화)/깨끗했던 야전리 지하수(야전리 마을 이야기)/사라진 도축장(상리)/상리마을의 도축장(상리마을의 도축장)/굶겨진 동사무소(팔복동사무소)	2002년 개통된 서부우회도로(주변 지형들의 변화)	마을 앞 또랑(시냇물)/신복경로당의 정자나무/장수의 발자국, 장수바위(장수바위)	작은 또랑, 당산도랑(당산도랑과 동곡다리)
자연, 마을지명유래 (7개)	매화꽃이 만발했던 매화동(새터와 매화동)				고래뜰			7개의 마을이 뭉치다, '칠일경로당'(칠일경로당 이름의 유래)	버드랑죽(유제리와 감천리)/	덕촌방죽은 가르내방죽으로(주변 지형들의 변화)		8명의 과거 급제 이야기, '팔과정'(팔과정과 팔복정수장)/물이 달다, '감수리'(마을의 유래와 지명)
역사관련 시설, 설화 (4개)										맨산에 있던 팔과정(팔과정)	당산제를 잘못 지내면 누가 죽어도 하나가 죽는다(신복리 당산나무터)	숙쟁이·추천대·비비정(추천대의 역사와 그 앞 도로)//용이 산으로 올라가(황방산 용터와 용소 설화)
공장, 공업단지 (9개)							요코·메리야스·왕골소쿠리공장(공장가공업과 팔복동의 발달)	코에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팔복동의 막걸리 주조공장(마을에 있던 시설물)	전주페이퍼의 전주행(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요코공장과 콜라공장/커피공장(마을에 있던 시설물)	일명 똥공장(음식물자원화처리장)/고향 주민 먹여 살리기(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일 년에 한 번씩 보상받기(감수리와 야전리)	
민원, 취약한 기반시설 (13개)						마당까지 찼던 물(북전주역)		쭈글쭈글한 틈새로 분진이 섞여(시멘트공장)/마을을 양분하는 도로 개설/		마을이 침수되다(침수에 대한 기억)/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침수에 대한 기억)/잦은 침수, 하수도 공사(침수에 관한 기억)/정화조 퍼내기(주민들 자비로 관리되는 정화조)/구불구불한 도로(불편한 도로상태)/동네 가득한 묵은지(음식물) 냄새(현재 감수리에서의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동네(기반시설이 취약한 동곡마을)/불편한 구주마을(현재 구주마을에서의 생활)/생활인구가 줄고 있다(팔복동의 현재)/상리마을의 무허가 지역	
에피소드, 사건, 추억, 인물 (4개)								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돼(유제리의 풍경과 현재)/매화동'조씨'(주변 지형들의 변화)/실개천에 빠진 아이(동곡리)				개에 물려 죽은 사건(비석날에서 일어났던 일)
그 외의 이야기 (4개)		100년의 역사, 유상교회(유상교회)								4개 마을 통합 경로당 '용암경로당'	뚝방의 보신탕(만○집)/광주○가든	

2. 팔복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

팔복동 기억의 풍경 작성 방향

- 기억의 풍경 설명
  - 공간 및 구술 유형을 시간별로 재배치
  -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김

1) 시대생활상

- 1960년대 : 상리마을 “봉답으로 농사짓기”

현재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부지는 과거에 논이었다. 그곳을 봉답이라고 불렀다. 봉답은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이란 말인데, 그 일대의 땅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었다.

(이쌍지/상리경로당)

- 1960년대 : 상리 “초하룻날은 외부인 출입금지”

과거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숙사와 철길(인입선로)이 만나는 교차점에 당산나무가 있었다. 그 곳에서 당산제를 지냈으나 이후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이 생기면서 당산나무가 없어졌다. 당산제는 음력으로 정월 초삿날(초하룻날)에 지냈으며, 그 기간에는 외지인이 들어오면 부정탄다는 이유로 다른 동네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당산제가 끝난 후에나 마을에서 용무를 볼 수 있었다.

(이옥녀/상리경로당)

- 1970년대 : 팔복동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공업단지인 팔복동은 과거 70, 80년대에 공장이 활성화 되었다. 세탁공장 같은 공장이 많아서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많이 올라와 일을 하곤 했다. 당시 팔복동에는 사람이 많아서 셋방살이를 많이 했다. 방은 주로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양식이었다. 특히 신복경로당 앞의 단칸방은 아주 오래된 집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이 중국이나 개성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또한 요즘 차량의 보급이 많이 되고 원룸 및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요가 이동하여 단칸방의 빈 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순옥/추천경로당)

- 1970년대 : 팔복동 “팔복동의 바글바글 명동거리”

현재 팔복동주민센터 입구에서 신복경로당까지의 거리를 과거엔 명동거리라고 불렀다.

“옛날에 여기 공장 한창 잘 될 때는 여기 앞에 이불가게도 많고, 거기가 옛날에 우리 집 있는데가 장사가 잘 되었잖아, 거기가. 공장 처녀들 많이 있을 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이 골목은 명동

거리여. 명동거리. 그랬었어. 그냥. 입버릇으로. 확정이 없었어도 사람들 입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장사가 뭘 사려고 하면 줄을 섰었어. 거기 한 가운데가 우리 집인데. 여기가 명동거리야, 사람들 말이 그랬어. 그냥. 확실한 저기는 없었고. 거기 동사무소에서 그 신평슈퍼 있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됐었어. 전부 그 근방이 그냥 방 한 칸 해가지고 그냥.”

(조영교/추천경로당)

• 1970년대 : 북전주역 “기차타고 통학하기”

과거엔 북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많이 했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를 무임승차로 몰래 타는 도둑차를 많이 탔다. 마을 사람들 중 이리고등학교(익산)으로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차를 타고 뛰어 내리다가 그만 크게 다쳐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리신다고 한다.

(김재순/동곡경로당)

• 1970년대 : 용암경로당 “옛 길”

용암경로당 앞길은 유래는 없으나, 예전 이 마을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도 있었던 길이다. 원래는 이 길이 비석날을 거쳐 유제리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현재는 비석날까지만 길이 이어진다. (최정오/용암경로당)

• 1970년대 : 팔복동 “50원짜리 주먹빵”

추억의 장소로는 50원짜리 주먹빵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이곳의 위치는 현재의 용부동산(버스정류장 건너편)자리이다. (김춘식/용암경로당)

• 1980년대 : 구주마을 “추천대교 빨래터”

마을 인근에는 ‘명성주택’이라는 연립이 가장 처음 지어졌으며 과거에는 추천대 아래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

(박옥엽/새터경로당)

• 1980년대 : 팔복동 “팔복동의 목욕탕”

억수탕 지금 애들 어린이집 쪽에 있었어. 팔복목욕탕은 저기 저쪽에 시식코너 옆에 있어. 백제탕은 그 버스 타는데 있지 거기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었어, 거기에. 또 길 건너서 동사무소 바로 뒤에 거기가 하나 있었어. 수정탕. 거기는 인제 한솔제지 가는데 있어. 컸는데 조금 하다가 망했어. 수정탕 빼고는 장사가 잘됐었지. 나중에는 백제탕이 제일 오래했어. 수정탕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백제탕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녔어. 이제 다 없어지고 한솔 목욕탕 한 개 있지. 거기는 커요, 사우나도 있고.

(이분례/추천경로당)

• 1980년대 : 신교마을 “탕, 탕, 탕, 탕 목욕탕”

처음 신교마을이 생겼을 때는 국민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전에는 새터에서 살다가 새터가 점점 커지자 새터와 신교로 분할이 된 것이다. 또 팔복동에는 목욕탕이 네 곳이 있었다. 팔복탕, 억수탕, 수정탕, 백제탕이 그것이다. 현재는 한솔사우나가 팔복동에 들어서면서 목욕탕들이 다 사라졌다.

(이동선/팔복동2가)

• 2000년대 : 반룡마을 “옛 풍경”

현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가 들어선 곳에도 반룡리가 약간 걸쳐있었는데, 그곳은 과거에 야산과 운전학원, 공동묘지가 있었다. 현 용암경로당 뒤편의 공원은 원래 야산이 있었고 그 주위로 약 10가구 정도가 살았다. 그리고 산에는 공동묘지도 있었다. 또 교회(팔복중앙교회) 밑에는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 있었다.

(최정오/용암경로당)

• 연대미상 : 구주마을 “경로당 위치”

현재의 경로당은 (구)억수탕 맞은편에서 이전했다.

(박옥엽/새터경로당)

• 연대미상 : 팔복동 “유제리의 공동 우물”

유제리에 있던 공동우물은 물 상태가 좋아 막걸리공장에서도 갖다 썼다. 현재는 2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졌고, 우물자리는 지금 체육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동선/팔복동2가)

• 연대미상 : 구주마을 “품을 팔아 농사짓기”

구주마을 사람들은 주로 방석을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다.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어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농사도 짓고, 모도 심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조윤례/구주경로당)

• 연대미상 : 구주마을 “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

과거 마을에는 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이 한 곳 있었다. 그 때만 해도 물이 깨끗해서 또랑물(작고 폭이 좁은 개울)에서 쌀도 씻어먹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했었다. 지금은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조윤례/구주경로당)

2) 시대생활공간묘사

• 1940년대(해방 이후) : 팔복동 “조그마한 장터”

가운데집(추천대교 인근 족발집 중 하나)에서 쭉 내려오면 경사진 곳이 있었는데 그 밑에도 과거에는 집과 주막이 있었다. 그곳에 조그만한 장터가 있어서 농민들이 채소도 팔곤 했다.

(박상철/팔복동주민센터)

• 1980년대 : 신교마을 “신교마을의 스무 채 기와집”

예전의 신교리에는 논이 있었다. 새로 국민주택을 기와집 형태로 20채를 새로 지으면서 신교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동선/팔복동2가)

• 1990년대 : 팔복동 “팔복정수장”

동곡리 마을 뒷산에는 팔복정수장과 팔과정이 있다. 마을에서는 원래 팔복정수장에 있는 물을 먹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물은 공단으로 들어가 다른 곳에서 나온 물을 먹는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1990년대 : 덕촌마을 “농사짓기 힘든 덕촌마을”

1992년부터 (구)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와 덕촌마을이 결연을 맺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페이퍼에서 1년에 1번씩 마을 잔치를 열어준다. 마을이 농사짓기 힘든 곳인데 전주천의 물을 덕촌마을까지 끌어다 준 것도 전주페이퍼에서 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물길을 돌렸는지 마을 내 농사가 시원찮아졌다.

(김정옥/덕우경로당)

• 1990년대 : 팔복동 “과거 구주마을”

과거 구주경로당 앞의 모습은 시냇물이었으나 현재 복개공사를 하고 공장이 들어서있다.

(노봉순/구주경로당)

• 2000년대 : 팔복동 “신복리”

현재 신복경로당 앞쪽이 과거에는 산같이 높았고 큰 나무가 존재했다. 당시 시의원(시기 가늠 불가)이 지원을 받아 이곳을 전부 퍼내고 놀이터같이 만들어놓았다. 예전에는 신복리 일대에 사람이 많아 북적거렸다. 단칸방(방 하나, 부엌 하나)을 세놓은 가구들이 많았다.

(박근규/신복경로당)

• 현재 : 야전리 “감수리에서 야전리까지”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감수리에 위치해 있으나 영향은 야전리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앞으로 2년 반 정도 지나면 완주군 이서면

인근으로 시설이 옮겨진다. 현재 자원화시설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은 야전리, 감수리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상을 더 많이 이루어진다.

(배춘자/야전경로당)

3)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나열

• 1970년대 : 팔복동 “주류창고가 된 북전주경찰서터”

1971년도 개설된 북전주경찰서 자리는 현재 주류창고로 쓰고 있다. 원래 있던 경찰서는 서부 우회 도로변으로 이전했다.

(송충덕/유상경로당)

• 1980년대 : 동곡마을 “마을 뒷산과 큰 바위”

동곡마을의 뒷산 팔과정 옆에는 납작하고 높은 바위가 있다. 팔각정을 키우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밀어버리면서 돌을 없애려 했다. 돌이 높은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는데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고인돌인지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동곡마을의 뒷산은 과거에 꽤 높았다. 하지만 88올림픽 때 산의 흙을 파가고,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도 흙이 필요해 파갔다. 그 때 나온 돌이 고인돌인지 얼마 전 확인하러 왔다고 한다.

(김재순/동곡경로당)

• 1980년대 : 팔복동 “가리방죽”

가리방죽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정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방죽이다. 과거에는 농업용수로 물을 끌어다 썼다. 현재는 방죽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이다.

(송봉수/칠일경로당)

• 1990년대 : 구주마을 “은행나무·뽕나무 밭”

30년 전의 추천대는 구주부락이었다. 그리고 구주마을 만복집에서 현재의 남양아파트 일대에는 다 뽕나무 밭이었다. 옛 경로당 앞의 길에서 남양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다 있는 원룸단지는 예전에 은행나무 밭이었다.

(박옥엽/새터경로당)

• 1990년대 : 야전리 “깨끗했던 야전리 지하수”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야전리에서 들어와서 쉬면 부자가 되어서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완주군이었으며 감수리와 함께 고랑동에 속해있었는데 1994년경 팔복동에 편입되었다. 도시가스는 2014년에야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가스가 유입되지 않은 집도 더러 있다. 그리고 야전리는 지하수를 퍼서 마시던 동네였던 만큼 깨끗한 물이 있던 동네다.

(오한길/야전경로당)

• 1990년대 : 상리 “사라진 도축장”

과거 상리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위치는 현 삼우냉동 부지이다.

(박근규/ 신복경로당)

• 1990년대 : 상리 “상리마을의 도축장”

현재 냉동공장(삼우냉동) 자리는 예전에 소, 돼지를 잡던 도축장이었다. 도축장이 있어 그 앞에는 한우 직판장 같은 고깃집들이 많았다. 과거엔 도축장에서 냄새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없어 졌지만 아직도 가끔 상리에 오는 사람들은 도축장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한오목례/상리경로당)

• 1990년대 : 팔복동 “옮겨진 동사무소”

팔복동사무소는 동곡리 쪽에(현재의 형제후렘광고)있었는데, 그 인근의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아 신복리로 옮겨진 것이다.

(송충덕/유상경로당)

• 2000년대 : 팔복동 “2002년 개통된 서부우회도로”

원래 마을에는 도로가 없었다. 과거 전부 산길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서부우회도로가 개통되었다. 그래서 마을이 동과 서로 양분된 것이다. 덕촌방죽은 물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고 산(황방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 있는 형태다. 덕촌은 지금 수도는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다. 그만큼 주변시설이 좋은 여건이 아니다. 과거에는 시장을 남부시장, 중앙시장으로 갈 정도였다. 현재는 삼례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삼례로 장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

(김정옥/덕우경로당)

• 현재 : 신복마을 “신복경로당의 정자나무”

과거에 신복경로당 자리에 정자나무가 있었다. 몇 백 년이 된 오래된 나무였는데 바람에 쓰러져서 꼭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 정자나무를 없애고 동산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신복경로당을 지었다.

(김재순/동곡경로당)

• 현재 : 팔복동 “장수의 발자국, 장수바위”

현재 정수장 옆에는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장수바위라 부른다. “장수바위는 장수의 발자국도 있고, 칼자국도 남아 있으며 장수가 똥오줌을 싼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엔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돌이 반으로 갈라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낮잠도 자고 바위에 올라 앉아있기도 했다.

(김춘식/용암경로당)

• 현재 : 동곡마을 “마을 앞 또랑”

마을 앞에 있는 또랑(시냇물)은 과거에 농수로였다. 과거 그 곳에서 애기들이 많이 죽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나 지금은 복개된 상태이다. 복개되기 전에는 시의원이 조그만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복개공사를 한지는 5년 남짓 되었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연대미상 : 반룡 “작은 또랑, 당산도랑”

옛 주물공장 앞에는 큰 당산나무가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또랑이 있었는데 이를 당산도랑이라 불렀다. 그리고 동곡리 앞에는 동곡다리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 당산도랑 앞은 과거 일본인들이 살 적에 폭이 8m되는 길이었는데 공단 개발로 도로를 넓히면서 다리를 없애버렸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감수리 방향으로 가던 물길을 동산동 쪽으로 빠지도록 수로를 틀어버렸다. 또랑(냇물)은 전주천 어귀의 추천대에서 시작해서 구주를 지나 동곡리 옆을 흘러 감수리로 나간다.

(김춘식/용암경로당)

4) 자연, 마을지명유래

• 조선시대 : 팔복동 “8명의 과거 급제 이야기, ‘팔과정’”

동곡리 마을 뒷산에는 팔복정수장과 팔과정이 있다. 팔과정은 과거 팔복동에서 과거급제한 사람이 8명이 나왔다고 해서 팔과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동곡리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서 일 년에 한번 1월 초하룻날에 행사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한지 3년 정도 되었다. 마을에서는 원래 팔복정수장에 있는 물을 먹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물은 공단으로 들어가 다른 곳에서 나온 물을 먹는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일제강점기 : 상리 “매화꽃이 만발했던 매화동”

새터의 유래는 상리가 먼저 생기고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와서 집을 몇 곳 지으니 새로 지은 집이라 해서 새터라고 불렀다. 매화동의 유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매화꽃을 좋아해서 많이 심어놓으니 매화가 많이 피었다하여 매화동이라 불렀다.

(박상철/팔복동주민센터)

• 1950년대 : 신복리 “고래뜰”

고래뜰(구렛들)은 삼양사 자리를 말한다.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고래가 그곳까지 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복리에서는 예전에 집을 짓는데 땅을 파면 전부 모래만 나와서 모래로만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주조공사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땅을 팠는데 썩은 나무가 나왔다. 아마 위의 두 사례들은 고대를 거쳐 현재 산이 바다가 되고 지층이 뒤바뀌어서이지 않을까 싶다.

(김춘식/용암경로당)

• 1980년대 : 팔복동 “7개의 마을이 뭉치다, ‘칠일경로당’”

칠일경로당은 7개의 마을이 협조해 돈을 걷어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칠일경로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유기호/칠일경로당)

• 1990년대 : 유제리 “버드랑죽”

유제리는 방죽으로 가는 길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버드랑죽’이라 했었는데 후에는 동네 이름을 유제리로 불렀다. 감천리는 가리방죽의 윗 지역를 가르켰다. 현재는 신행리, 감천리, 유제리 세 곳이 휴비스 전주공장 제2공단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송봉수/칠일경로당)

• 1990년대 : 유제리 “유제리에 있던 큰 저수지”

과거 유제리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메우고 제2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 원주민들은 동산촌(동산동)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2000년대 : 팔복동 “덕촌방죽은 가르내방죽으로”

황방산 아래에는 덕촌방죽이 있는데 이 물은 가르내방죽으로 흐른다. 예전에는 물이 깨끗해서 이곳에서 놀기도 하고 빨래도 했지만 지금은 밤낮으로 오는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마을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반으로 갈라진 형태이다.

(임병근/팔복동)

• 연대미상 : 감수리 “물이 달다, ‘감수리’”

감수리의 유래는 본래 ‘감수물’이라고 불렀던 지역이다. 그전에는 야전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신리와 신감리로 나뉘었다. 감수리라는 이름은 ‘감수물’에 ‘마을 리(里)’자를 합해 부르는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에는 주막거리가 있었는데 주막거리의 유래는

“큰 둥구나무 옆에 왕인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술을 한잔 먹고 그 사람이 ‘달 감(甘)’자와 ‘물 수(水)’자를 써서 감수물이라고 지었다.” 이곳은 물상태가 좋았고 처녀들이 흉년을 모르는 동네다. 마을을 반별로 구분했을 때 1반은 감수리, 2반은 주막거리, 3, 4반은 상신리, 5, 6반은 샘평리, 7반은 물 건너, 8반은 야전리라고 부른다. 물 건너는 현재의 7반으로 그곳이 물을 진짜 건너진 않지만 비가 오면 지대가 낮아 방까지 물이 들어가니 높은 곳으로 피난을 나온다 해서 물 건너라고 한다. 주막거리는 현재의 2반으로 큰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썩어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렸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대신 평상을 놓아 그곳에서 논다.

(조춘자/감수여자경로당)

5) 역사관련 시설, 설화

• 조선시대 : 팔복동 “숙쟁이·추천대·비비정”

추천대 앞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조(1666년(현종 7년)~1726년(영조 2년))때 숙쟁이(맥락상 숲정이를 의미)에서 추천대, 비비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과거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정도의 길이었다. 옛날에는 추천대에서 어른들이 공부도 했고, 그 일대는 현재 이씨들의 선산이 있다. 현재 어떤 양반이 이조 때 낙향을 해서 이곳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의 간판도 있다.

(박상철/팔복동주민센터)

• 2000년대 : 팔복동 “맨 산에 있던 팔과정”

과거에는 팔과정이 현재 위치에 없었다. 과거 팔과정이 있던 일대는 맨 산이었다. 또한 동곡리 일대(정수장 밑)에는 예전에 서당같이 공부하는 곳이 있었다.

(김춘식/ 용암경로당)

• 현재 : 신복리 “당산제를 잘못 지내면 누가 죽어도 하나가 죽는다”

신복리 모정(1.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 2. 정자를 일컫는 전라도말.) 자리에는 과거둥구나무가 하나 있었다. 당산나무 역할을 하면서 밥도 지어놓고 막걸리도 뿌리며 당산제를 지냈다. 과거엔 ‘당산제를 잘못 지내면 누가 죽어도 하나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 돌섬 같은 것을 파내고 나무도 베어버린 다음 정자를 만들어 놓았다. 현재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는 공원이 되었다.

(소규용/팔복추천경로당)

• 연대미상 : 팔복동 “용이 산으로 올라가”

전북대학교 옆에 이조 5대조를 모시고 있는 야산에 아버님을 모시려고 송장을 메고 왔었다. 그때 소나기가 내려서 송장이 떨어져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용

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황방산 용터라는 곳이 생겼다. 지금은 그 곳에서 물이 나오며, 용이 산으로 올라가서 용소라 부른다. (박상철/팔복동주민센터)

6) 공장, 공업단지

• 1970년대 : 팔복동 “요코·메리야스·왕골소쿠리공장”

70년대 팔복동의 주요 사업은 가공업이었다. 스웨터, 가발, 요코(뜨개 옷 편직 기계의 일본어), 메리야스, 왕골소쿠리나 왕골백을 주로 만들었다. 그 전에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때와 달리 가공업과 수공업이 늘면서 공업단지 전라북도 전주지구에서 사람을 수만 명씩 고용했고, 팔복동에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시기였다. 당시엔 인구가 3, 4만으로 팔복동 주민들은 부수적으로 방세를 받아가며 살았다.

(최태림/태림부동산)

• 1980년대 : 감수리 “코에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

연탄공장은 마을 입구에 있다. 그 전에는 감수리 일대에 3개의 연탄공장(한일연탄, 전북연탄, 진표연탄)이 있었으나 지금은 진표연탄이 전주연탄으로 바뀌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다. 시멘트공장은 감수여자경로당 바로 맞은편에 현대시멘트 공장이 있다. 시멘트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진이 심해 빨래도 함부로 널어놓지 못할 정도다. 어떤 날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코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나오는 것도 봤다.

(송옥순/감수여자경로당)

• 1980년대 : 팔복동 “팔복동의 막걸리 주조공장”

현재의 형제후렘광고 자리가 예전에는 팔복동사무소였다. 과거 마을 내에는 막걸리 주조공장도 있었는데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위치해있다. 또한 미주다방, 중앙정육점이 유명했다. 이곳들의 위치는 현재 동곡리 버스정류장(기린대로 경제통상진흥원) 뒤의 2층짜리 건물에 위치이다. 이 건물의 2층에 올라가면 한쪽은 당구장, 한쪽은 다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KCC물류센터 자리에는 과거 삼성레미콘이 있었다.

(김춘식/용암경로당)

• 1990년대 : 덕촌마을 “전주페이퍼의 전주행”

새한제지(현 전주페이퍼)가 전주에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삼성회장의 영향이 컸다. 답사팀은 팔복동 일대는 저지대로 국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병철(당시 회장)은 낙후된 전주시에 생산공장을 세워 지방민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황방산 아래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길섭/전주페이퍼전주공장)

• 1990년대 : 팔복동 “요코공장과 콜라공장”

요코는 스웨터 같은 것을 지칭하는 일본말인데 30년 전만해도 마을에 요코공장이 많았다. 예전 삼양사(현 휴비스전주공장) 쪽으로 공장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없다. 코카콜라는 구 삼양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지만 IMF 시기에 광주로 이전했다.

(송봉수/칠일경로당)

• 1990년대 : 팔복동 “커피공장”

빵집으로 풍년제과는 옛 코카콜라 옆 건물(맥락상 현재의 팔복동 커피공장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다. 그곳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분점에 보내는 형식이었다.

(김춘식/용암경로당)

• 2000년대 : 감수리 “일명 똥공장”

원래 이곳은 “똥공장”이라 부르던 곳으로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똥)을 수거하던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든 것이다. 시설이 들어올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밤낮으로 시청 앞이나 마을 어귀에서 시위를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시설 인근 두개 마을(감수, 야전)에 영향을 미쳐 시위를 같이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냄새 문제였다. 주민들이 소송도 걸었지만 결국 졌다. 시설은 2014년에도 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시설을 팔복동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보상을 해줄거면 가전제품보다 차라리 돈으로 주면 약이라도 사먹는데, 무조건 가전제품으로만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또한 저 시설이 생김으로써 마을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방을 세 내주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시설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길 바라고 있다. 이 시설이 삼천동으로 이주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삼천동의 시설 예정지 주민들은 이곳(감수리)보다 엄청난 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

(송옥순/감수여자경로당)

• 2000년대 : 팔복동 “고향 주민 먹여 살리기”

삼양사의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본래는 울산에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창업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신의 고향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울산을 버리고 전주에 공장을 지은 것이다. 현재의 휴비스전주공장은 SK케미칼과 삼양사가 50 대 50으로 합작해서 새롭게 세운 회사이다.

(정찬모/팔복동)

• 현재 : 감수리 “일 년에 한 번씩 보상받기”

현재 감수리에 음식물 쓰레기장(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서 1년에 1번씩 감수리나 야

전리 주민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밥통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을 제공해준다.

(원혜연/신복경로당)

7) 민원, 취약한 기반시설

• 1960년 : 감수리 “마당까지 찼던 물”

북전주역은 1967년쯤 준공되었다. 지금은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되었다. 사람이 타지 않게 된 지는 약 35년 가량 되어 약 1982년부터이다. 지금은 동산역에서 관리를 하며, 역장은 따로 없다. 철둑 옆에는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심어져 있어 여름에는 덥다. 예전에는 그 둑 옆에 도랑이 있었으나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마당까지 물이 넘어왔는데, 하수구 시설을 정비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

(유영자/감수여자경로당)

• 1980년대 : 야전마을 “쭈글쭈글한 틈새로 분진이 섞여”

야전리 입구에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분진으로 인해 빨래도 쉽게 바깥에 널지 못하며 하루는 대추를 말려놓았더니 쭈글쭈글한 틈 사이로 시멘트 분진이 섞여 먹지 못할 수준이 되었다. 야전리에 비가 한번 오면 세면가루와 연탄가루가 섞여 내려서 밖에 놔둔 대야가 까매지곤 한다.

(김경자/야전경로당)

• 2000년대 : 야전리 “마을이 침수되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마을 인근에 보를 열고 닫는 책임자가 문을 닫고 퇴근하지 않아 마을에 물이 넘쳤던 적이 있다. 또한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아 한번 비가 오면 쉽게 물이 찬다. 지금은 감수리와 야전리 일대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하수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오한길/야전경로당)

• 현재 : 동곡마을 “마을을 양분하는 도로 개설”

마을 사거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다. 이번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곧 없어진다. 소방도로 측량까지는 끝났지만 시에서 아직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김재순/동곡경로당)

• 현재 : 감수리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과거 몇 년 전에는 도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 위까지 물이 찰 정도였다. 근데 우리 집 앞에는 몇 년 전에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었어, 도로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래. 안 터져도 그냥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서 차가 못 다녔었어. 저기 도로 입구에 호남냉장이라고

있지요? 그 골목에가 전에는 어떻게 물이 차가지고 우리 지하로 막 이 만큼 들어와 가지고 막 빼고 그랬어, 물을. 물이 안내려가니까. 감수리 쪽으로 물을 많이 막아버렸대.

(박점순/팔복추천경로당)

• 현재 : 매화동 “잦은 침수, 하수도 공사”

다리(추천대교) 아래가 예전에는 침수지역이었다. 지대가 낮다보니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야전리 일대는 침수가 된 적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화동에서 물이 잘 빠지게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다.

(유기호/칠일경로당)

• 현재 : 팔복동 “정화조 퍼내기”

팔복동은 아직까지도 정화조 시설과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정화조를 퍼내고 있다.

(유기호/칠일경로당)

• 현재 : 팔복동 “구불구불한 도로”

현재 팔복동 마을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있지 않다.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차가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또한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다.

(유기호/칠일경로당)

• 현재 : 감수리 “동네 가득한 묵은지(음식물) 냄새”

㈜삼양사와 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 등이 생기면서 감수리마을의 환경조건이 안좋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멘트공장(한일시멘트전주공장), 연탄공장(전주연탄), 폐차장(그린종합폐차장), 고물상 등이 마을주변에 위치해있다.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은 예전에 “똥공장”이라 하여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이 이곳으로 모였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생겨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날에는 동네에 묵은지 썩는 냄새가 아주 심하다. 또한 도시계획선이 있어 건물을 새로 못 짓게 한다. 인근에 ○○ ○○공장이 들어오면서 논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아무 얘기도 없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언제쯤 개설될지 모른다.

(유영자/감수여자경로당)

• 현재 : 동곡리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네”

동곡리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소방도로도 내준다고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가 시위도 하고 했지만 아직 별

변화가 없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현재 : 구주마을 “불편한 구주마을”

마을 어르신들은 병원과 약국에 자주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다녀야한다. 버스도 예전엔 구주마을 앞으로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아 그 노선이 없어졌다. 지금은 남양아파트까지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야해 불편하다.

(조윤례/구주경로당)

• 현재 : 팔복공단 “생활인구가 줄고 있다”

주요사업이 가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팔복공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건비가 오르고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개성공단으로 이주하다보니 팔복동의 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과거 구술자의 건물에도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어 지하실도 다방이나 음식점 같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없어 이층의 세도 안 나간다고 한다.

(최태림/태림부동산)

• 현재 : 상리 “상리마을의 무허가 지역”

예전에는 이 지역이 공단으로 묶여있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무허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신고만 하면 대부분 고칠 수는 있지만 아직도 힘들다.

(정옥례/상리경로당)

8) 에피소드, 사건, 추억, 인물

• 1980년대 : 유제리 “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돼”

과거 동곡리 앞에서 팔복초등학교(유제리 어귀)까지 이어지는 길가에는 포플러나무가 길게 심어져서 마을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깡패들이 많아 아이들이 하교할 때는 큰 길가(옛 소방서 자리)까지 마중을 나가야 했던 곳이다. “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 돼. 내 딸 금암학교 나왔는데 여그(여기)가 논이 있고 해서 무서워서 뽀뿌라나무(포플러나무)가 있어가지고. (중략) 잠이 깜빡 들어갔고 나갔더니만 딸이 어떤 놈이 따라오더라고. 그 놈이 입 맞추자고 여까지 따라왔다더라고. 내가 그때 부녀회장을 했는데 들개공사를 해서 수지 앞 또랑(시냇물)에다가 애기 빠진 이후로 다리를 놨어. 그래가지고 위에서 버스 내린 데까지 옛날 소방서까지 맨날 마중을 나갔었는데 내가 그날은 못가서 나갔더니 딸이 ‘엄마’하고 불러서 가니까 남자가 따라왔다고 왜 이제 나왔냐고 했다고. 이 쪽에가 유제리 있는 동네까지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웠어. 유제리 여학생도 머슴아들이 따라오고 무술쟁이 집에 여학생이 이모하고 뛰어 들어왔다고 여

학생 뒤에 머슴아들이 세 네명 따라와서 엄마한테 왜 이제 오냐고 했디야."

(정효남/동곡경로당)

• 1980년대 : 팔복동 "매화동 '조씨'"

매화동에 '조씨'라는 사람이 지금의 남양아파트 부지에 뽕나무잎을 주워 누에를 아주 많이 키웠다. 현재는 그것을 다 팔고 시내로 이사했다. (임병근/팔복동)

• 1980년대 : 동곡리 "실개천에 빠진 아이"

하나는 현 하이트맥주 부지(하이트진로 전주직매장)에 과거 구 팔복초등학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전에 동곡리 KT(KT 팔복지사) 앞 실개천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찼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 아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사건 이후에 실개천을 시멘트로 복개공사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동곡리 이야기는 과거 유명했던 미주다방과 형제슈퍼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혜연/신복경로당)

• 연대미상 : 비석날 "개에 물려 죽은 사건"

비석날에서는 애기가 개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 아 저그 저 비석날에서는 개가 애기를 물어 죽였어. 그때도 난리가 났었네. 엄마가 애기 둘을 두고 일을 갔대. 그 큰개가 세바트(?)라는 개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애기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놀았디야. 그래서 개가 들어와서 애기들은 무서워가지고 울고 뛰었는데 그 큰개는 애를 물어 죽였다고 하더라고. 갓난이는 아니고 걸어 다니는 앤디. 째깐한(조그만) 것이 넘어져가지고 있응게 개가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반가워가지고 뛰고 앙앙앙 물었디야. 사람은 무서워서 뛰는디 개는 반갑다고 뛰다가 그 애기가 많이 물렸다더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 그래서 시내로 이사 갔다더라고. (김재순/동곡경로당)

9) 그 외의 이야기

• 일제강점기 : 유상리 "100년의 역사, 유상교회"

유상교회는 설립된 지 약 100여년 가량 된 교회이다. 팔복동과 동산동 인근의 교회는 다 유상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송충덕/유상경로당)

• 2000년대 : 반룡리 "4개 마을 통합 경로당 '용암경로당'"

과거 팔과정 인근의 학산, 비석날, 동곡, 반룡마을을 합쳐 하나의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윤○○라는 반룡리 출신의 시의원이 그 돈을 받아다가 다른 동네에 경로당을 만들었다. (정효남/동곡경로당)

• 현재 : 팔복동 “뚝방의 보신탕”

전주천 뚝방에 있는 보신탕, 삼계탕 하는 음식점이다. 구주경로당 회장인 할머니가 오랫동안 운영해왔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할머니는 남양아파트에 거주하신다.

(노봉순/구주경로당)

• 현재 : 팔복동 “광주○가든”

약 20년 가량 운영된 식당으로 주로 보신탕을 취급한다.

(송충덕/유상경로당)

3. 키워드와 구술 내용으로 본 팔복동의 특징과 기억의 지형

본 장은 앞서 조사하고 수집하였던 기초문헌조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키워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정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부 팔복동의 특징과 기억의 지형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해석과 이야기와 현황들을 기입하여 종합한 부분도 있다. 본 장의 내용은 팔복동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한정된 조사 기간 내에서 진행된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풀어쓴 부분이기에 이를 감안하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적인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전주의 중심적인 공단지역 팔복동

팔복동에는 1963년 이후에 건립된 2개의 공업단지가 있다. 먼저, 1963년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공업이 육성되고 전주도 이러한 과정상에서 팔복동2가를 중심으로 공단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당시, 팔복동2가에 먼저 세워진 공장은 새한제지이다. 본격적인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공사는 1963년에 시작되었으며 1965년부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정부는 이 공업단지에 대해서 지방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전주제지 공장이 성공적으로 입지한 이후 1967~1969년까지 3년간 1.68㎢의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신복마을 방향으로 공단이 확장되었다.

세한제지는 1965년 당시 삼성의 회장인 이병철이 인수를 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1965년 ㈜전주제지 공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회사를 건설하고 주변에는 대규모의 사택도 조성을 하였는데, 그 광경은 현재와 비교하여 사뭇 다르다. 또한 제지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수도 시설의 연결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잘 되고 공장을 세우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대를 높이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주변에서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반대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전주제지의 성공적인 정착이후 팔복동2가와 1가의 공단 지역에는 삼양사, 백양 메리야스, 문화연필 등 지역의 주요 업체의 공장들이 이곳으로 차츰 이주를 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수의 식품, 섬유 공업사들이 팔복동 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공단은 전주 제1공단으로 명명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이어져 왔다.

차츰, 전주 제1공단은 과밀화 상태가 되었으며 추가적인 공단부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팔복동3가 일대를 중심으로 전주 제3공단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약 3~4년간에 걸쳐 새로운 공단 부지 조성 그리고 주요 입주 기업에 대한 공장이 건설되게 되었다. 그리고 전주 제2공단에는 조립을 위주로 하는 금속업체, 제지업체

3곳이 추가적으로 입주하였으며 전라북도 최고의 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1991년 당시의 기록에서 당시 10여 개의 업체가 들어서고 1,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생산규모는 1,050억원 정도라고 하였다.

1970년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서 영남지역 해안과 내륙 쪽에는 다수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지역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전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단지의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1990년대 들어 지역발전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책적으로 호남지역에 정밀화학, 자동차, 금속업체 및 금속 조립 업체 등의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에는 또 다른 공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의 전주 제1공단, 제2공단의 경우는 이미 업체가 포화상태였다. 또한 전주의 도시 규모가 확장되고 당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도심지에 가까이 입지한 팔복동 일대에는 중화학공단이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심지와 많이 떨어진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완주 봉동읍, 삼례읍 일부 지역에 형성된 현재의 전주 제3공단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전주 제3공단에는 KCC 화학,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서기까지 전주 제3공단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패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주 제1공단은 점차 노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광주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공단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제1공단에 위치한 식품 공장 등 다수의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점차 제1공단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제2공단 또한 제1공단과 맞물려 비교적 빠른 시기에 노후화와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고가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공장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제1공단에 비해 노후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팔복동은 전주가 기존의 전통, 문화 중심이 아닌 공업도시로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대표적인 시기는 1970~1990년대 초반이다. 팔복동 공단의 노후화와 쇠퇴과정으로 인하여 공업단지로서의 전주의 다른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탄소산업, 첨단산업이 활성화되고 모든 산업에 문화적인 요소를 입히면서 팔복동의 공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동을 걸고 있다.

2) 농촌에서 공단으로의 ‘천지개벽’ 팔복동

팔복동의 주요한 성격으로서 앞서 공단의 형성 과정과 쇠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팔복동의 공단 형성 이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억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은 수의 면담자들은 공단의 형성과 주거 구역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이주한 분들이 많았으며, 일부 공단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농촌마을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팔복동은 본래 전주군 조촌면 지역으로 『1875년 지방지도 -전주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부 추천리, 상리, 신감리, 감천리 등의 마을 이름이 전해졌다. 그리고 팔복동 일대에는 구주마을 그리고 추천마을 일대에는 주막과 함께 일부 한양으로 이동하는 주요 길목인 호남대로가 확인된다. 현재의 팔복동 일대의 옛 마을들은 주로 지대가 높거나, 용수를 구하기 쉬운 땅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괴촌(塊村)의 형상으로 입지하였을 것으로 추정[33]된다. 그리고 전주천과 만경강의 범람으로 인한 자연제방 그리고 범람원, 배후습지가 넓게 확인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당시 산업의 근간이었던 농업 등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농촌 환경과 팔복동에는 양반계층이 지주로서 이 지역에 주로 기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이러한 옛 가옥들이 거의 사라져서 알 수 없지만, 팔복동의 지명이 유래된 '팔(八)' 자의 경우,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 살던 선비 8명이 과거에 급제한 데에서 유래한 '팔과정' 이라는 정자의 명칭에서 딴 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전주부성의 중심이었던 중앙동, 풍남동 일대에 다수의 양반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지로 지역의 양반계층은 팔복동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하튼, 팔복동은 농촌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800년대 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대 변혁의 과정들을 보인다. 팔복동과 인접한 동산동의 경우, 일본인의 대규모 농장으로 유명한 동산농장(東山農場)이 있었던 곳인데, 당시 동산농장의 규모와 관련된 소작인의 수가 약 1,000여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에서 팔복동 또한 동산농장의 플랜테이션 농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 실제 비공개 자료이지만, 일부 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에서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팔복동4가 일대에서 소작을 하였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제가 당시 소작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본토로 징용을 갔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기억에서는 팔복동의 공단이 들어서기 전 일제강점기~1950년대까지의 일부 기억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 복선화된 전라선 철도 이전의 북전주역, 인근의 동산동 지역에 있는 동산역의 기억을 통해 철도 교통이 삶에 중요해진 상황, 그리고 현재 팔복동주민센터가 있는 신

33) 팔복동의 지형은 황방산에서 시작된 선상지형과 하천의 곡류로 의해서 형성된 충적지형이 만나는 지역으로 이러한 접점을 중심으로 주요 마을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팔복동에 남아있는 과거 마을의 지명은 이러한 지형적인 부분과 연동되어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동이 철도가 놓이면서 커진 이야기 등은 일제강점기에 전라선 철도가 놓이면서 팔복동의 경관과 당시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뽕나무와 인근 지역의 동산동에 잠업과 연결되는 이야기는 잠사의 초기 생산지역으로서 팔복동의 중요성 또한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팔복동에 다수 확인되는 섬유산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전통이든, 우연에 의한 연속성이든지 간에 연결성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팔복동이 전주시에 편입된 것은 1957년으로 다른 완주군 조촌면 지역이었던 동산동, 조촌동보다도 이른 시기에 도시로 편입되었다. 편입 이후 팔복동은 전주 제1공단을 시작으로 하여 제2공단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일부 탄소산업단지로 이어지면서 각 마을이 사라지고 일부 남아있는 마을의 골목과 주택의 모습은 변화하는 등 과거 농촌지역으로의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팔복동4가와 여의동과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자연마을도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과정과 함께 옛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공단만 들어와서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의견 등은 변화하는 도시화, 공업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 그리고 주민들 간의 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들게 한다.

3) 공단의 쇠퇴 그리고 공업단지와 주택지의 경계의 모호함

사실 팔복동은 공업단지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성격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주 지역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공단만이 부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 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의 타 동에 비해서 도로환경, 자연환경과 팔복동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변 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팔복동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시각에서도 일부 알 수 있다. 팔복동을 관통하는 기린대로를 가다보면 종이 혹은 숙성된 막걸리와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이사이 길은 차들로 혼잡하다. 그리고 야간에는 기린대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제외하고는 이동하는 사람이 없어 적막감이 드는 느낌이다. 야간에 공단 주변의 길을 걸어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도 엄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야간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변을 한 번도 둘러보게 되는 등 불안감을 느낀 적도 있다.

이러한 공단 환경 아래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에 아직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인다. 주변은 차들로 인한 매연, 그리고 제지공장에서 넘어오는 알 수 없는 냄새, 타 동에 비해 적은 가로등, 빈 공간에 아무렇게 적치된 산업자재들이 동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전주천과 인접한 곳의 신복마을과 구주마을, 추천마을 일대는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다. 일부 저층의 아파트와 빌라도 보이고 구주마을을 중심으로는 15층 정도의 대형아파트 단지도 확인된다. 마을의 주택과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최소 30년 이상이 된 듯한 풍경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 마을을 벗어나면 주변은 온통 공장들이 보이거나 신복마을 주변에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업사들이 길을 따라 모여 있다. 팔복동의 마을들의 전반적인 풍경은 공업단지 속에 사람들의 거주 공간은 고립된 흡사 섬과도 같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본 조사 과정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일부 주민들은 인근의 시멘트 공장, 자동차 매연, 그리고 일부 산업폐수 처리장, 음식물 및 오물 정화시설 등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고령자가 다수)은 자신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 대한 정(情)과 평생 일궈놓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환경이 열악함에도 이 동을 떠나지 못한다.

현재는 전주 제1공단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단의 노후화와 쇠퇴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사양 산업으로 인한 공장의 폐쇄 그리고 주요 경공업 관련 회사의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이다. 과거에는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의 먼지와 매연 그리고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동산동과 연접한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은 빨래를 널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공장 가동율이 적어 이러한 문제는 약간 완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신복마을의 북쪽, 신복로에는 과거 철로와 관련하여 석탄 공장이 남아있으며 도로를 따라 폐차장,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영세한 사업장 등이 있는데, 이 공간은 면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에 집적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본래 하천변에 연접하여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운영하다 보니, 도로환경과 주변 경관은 많은 부분에서 비정돈된 느낌을 준다. 또한 자동차를 다루다 보니 상당한 매연과 기름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간은 예전에는 야전마을이라는 농촌 마을이 위치하였는데, 소규모 공장 사이에 현재 주민들이 일부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좀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감수마을도 있는데 예전 이 감수마을 또한 야전마을과 동일한 상황이다.

공장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혼재된 양상은 추천마을과 구주마을도 동일하며 최근에는 전주 친환경산업단지 일대의 반용리와 동곡리, 비석날마을, 예암리 일원에서

도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이러한 일부 공장지대 주변의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양상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천마을, 감수마을 등을 중심으로 해피하우스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들은 점차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 참여와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동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팔복동 지역은 현재도 노후화된 공장에 대한 문화적인 활용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공단시설 재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과의 친화적인 공단 조성에 대한 개념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거주 영역이 축소되고 옛 마을의 원형을 잃어가고 주민들과의 반목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타계하기 위해서 팔복동에 대한 전주시민과 관·학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조사와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팔복동 주민들의 삶의 변화

팔복동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공단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초가집의 가옥에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에서 마을은 논, 밭 등을 경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근의 동산동과 삼례 지역과 관련하여 잠업 관련 산업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잠업과 관련된 부분은 동산동에서 누에를 기르고 면사는 삼례를 중심으로 제작하였던 반면에 팔복동은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를 기르고 뽕잎을 생산하는 주요 재료 공급지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농촌의 삶은 공단의 개발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60년대 새한제지를 시작으로 여러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라 팔복동 일대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신복마을 일대는 전라선 철도와 전주 제1공단의 근접성을 인하여 마을의 크기가 커지고 많은 주거지들이 세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1960~70년대에는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물과 함께 양옥들이 들어서게 되고 현재의 골목길도 형성되게 된다. 1970~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직업을 찾아 온 많은 젊은이들이 신복마을 일대에 거주하면서 본래 이 마을을 형성하였던 주민들은 근로자들이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취, 하숙방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계의 일부를 유지하였다.

근로자가 많았던 1980년대는 팔복동 주민들의 호황과 동네의 생기가 넘쳤던 중요한 시기로서 기억의 지형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주시의 구시가지의 성장의 정점과 시가지의 확장과 관련하여 시가지 외곽의 혐오시설과 환경시설들이 팔복동에 입지

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경제성장 과정상에서 배제되었던 공단의 환경정화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팔복동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경제적인 호황과 함께 공해로 인한 삶의 불편을 기억하는 등 복합적인 기억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팔복동의 노동운동과 그에 대한 기억들은 주민들의 삶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중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동운동은 쏘렉스 공장으로 대표되는 데, 장기간에 걸친 농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절규하던 여공들의 이야기들은 과거 이 지역의 서민의 삶과 아픔을 대변해 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삶과 이들과 함께 생계 활동을 이어가는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점차 생활환경과 급여체계가 보완되고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근거리의 마을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좀 더 주거환경이 나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팔복동 일대의 자취방과 하숙집들은 점차 공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득도 줄어드는 양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주 제2공단의 확장, 인근 지역의 자동차 폐차장과 공업사의 집중, 전라선 철도의 복선화와 철로 이전은 팔복동 일대의 공동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IMF 이후에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인하여 제1공단의 업체들이 철수하면서 이러한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게 되며, 지역 내에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마을에는 고령인구가 늘어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의 송천동과 동산동, 덕진동 일대는 주거구역으로서 점차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팔복동은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위성지도와 항공사진 등의 자료만 보더라도 팔복동은 주거지에 둘러싸인 공장의 섬과도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하여 팔복동 주민들은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주변 환경의 열악함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용히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공단의 쇠퇴와 연동하여 지역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관과 학계에서는 늦었지만, 이제야 열악한 환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에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곳을 중심으로 주거개선환경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체 복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폐 공장이 있었던 (구)쏘렉스 공장을 중심으로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간의 재활용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팔복동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팔복동의 공업단지의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팔복동2~4가를 중심으로는 노후 산단에 대한 개선 작업과 친환경복합 산업단지, 인근 동산동과 더불어 탄소밸리 조성 사업들도 진행하고자 한다. 반면에 일부 이러한 공업단지의 재조성 과정에서 그나마 잔존하고 있었던 자연마을과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반용리, 유

상리, 예암리(비석날) 등)

이렇게 팔복동 내에서의 주민들은 현대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모습들이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주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따라 교차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밀한 주민 삶의 방향에 따른 사회학적인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5) 팔복동의 다양성을 찾고 이를 활용하기

팔복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공단지역의 특징,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전주의 외곽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동에 대한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확인과 함께 동의 환경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동에 대한 애착심 고취가 필요하다. 본 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팔복동의 주민의 삶과 공간의 이용과 변천 과정을 통해 차후, 팔복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자 한다.

팔복동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단지역으로서 그리고 공단과 연동된 다양한 사무 및 복합공간으로의 추진이 드러나고 있다. 제1공단의 경우, 현재 팔복예술공장과 철로 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활용, 그리고 기존의 공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지시키기 위한 복합화와 노후시설의 교체 그리고 주민과의 융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발점으로 문화를 결합하여 (구)쏘렉스 건물을 활용하여 팔복예술공장의 활성화를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이 지역주민들과의 함께 상생하고 삭막하였던 공단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기반시설과 인근의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팔복동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공단의 경우는 기존에 유제마을, 비석날마을 등의 옛 마을들이 있었던 곳이다. 제2공단이 조성되면서 이 마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공단을 중심으로 한 도로를 통한 구역으로 재편성되었다. 현재 셰플러코리아, 미래페이퍼, 삼양화성, 휴비스, 모나리자 등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업체의 서비스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유제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덕진경찰서와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이 위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교한 공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형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주택과 주유소, 가구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구획 정리 또한 1공단과 비교하여 잘 되어있다. 하지만 완전한 공단지대로 재편

되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삭막한 환경으로 야간에는 이동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주페이퍼와 서호제지 사이에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유휴공간이 있다. 문화시설로는 미래페이퍼와 삼양사 전주공장 사이에 팔복공원, 그리고 전주제지 내에 전주한지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팔복공원의 경우,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련시설이 확충되어있다. 전주한지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주요한 서책문화를 알 수 있는 박물관으로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가 국립전주박물관보다 더 많은 곳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자원이 있음에도 현재 이들 문화시설은 인근의 팔복동 주민 그리고 전주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관광객의 방문도 적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차후, 제2공단 경우도, 문화가 결합된 복합지역으로서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 관광객이 둘러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팔복동2가 일대의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인근에 현재도 유상마을의 자연마을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유상마을의 동쪽에는 2000년대에 조성된 전주친환첨단복합 산업단지가 있는데 일부는 반용마을 일부를 포함하여 조성되었다. 비교적 현대식으로 조성되고 탄소산업과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장의 대지 조성은 인근의 제1공단과 제2공단과 비교하여 정돈이 잘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하여 공공의 교육기관들도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전주 제2공단과 연접하여 노후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근의 문화시설로는 동곡마을과 유상마을 사이의 높은 지대에 팔과정이 있는데 이 팔과정에 올라서면 공단의 모습이 넓게 펼쳐져 있다. 전주 공단과 산업문화를 둘러보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팔복동2가의 친환경첨단복합 산업단지는 새로운 산업단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인근에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탄소밸리의 ㈜효성공장이 준공되면서 차후, 탄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성에 관한 계획에서 시민들이 신 산업과 관련된 체험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공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는 노후산단 그리고 탄소밸리 조성 과정 중에서 그간 전주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선사시대~조선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억과 장소가 일부나마 시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차후 지속적으로 이 일대에 대한 공단 및 다양한 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생산적인 공간만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조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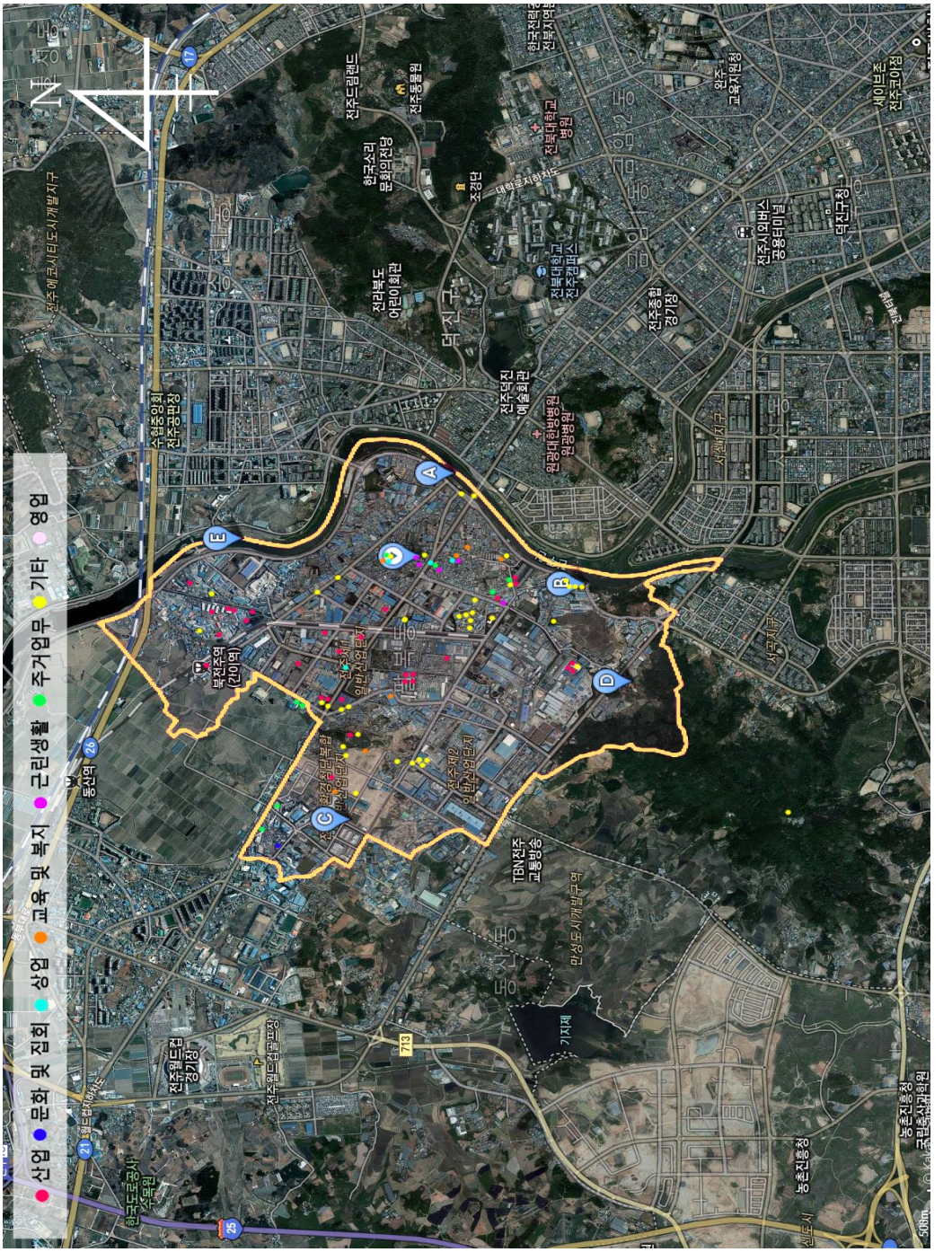
팔복동은 현재의 공단지역이라는 맥락에 가려져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역사·문화에 대

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팔복동은 인근 동산동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다수의 선사시대~조선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산동과 유상리, 노후산단의 비석날, 반용리를 중심으로 청동기, 마한, 백제의 대규모 마을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구석기시대 유적 또한 확인된 유서 깊은 곳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과거 급제와 관련하여 8명의 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팔과정, 추천 이경동의 추천대와 효자의 이야기 등은 일부 우리의 전통적인 효와 관련된 전통문화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전주부성에서 팔복동의 구주마을로 이어지는 옛길과 주막에 대한 사례도 역사가 깊은 팔복동의 또 다른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콘텐츠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옛 서책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전주한지박물관, 근·현대의 잠업과 공단과 그리고 독재와 노동운동의 현장으로서 팔복동의 이야기를 통한 콘텐츠화가 필요하며 차후 단순히 공단으로서가 아닌 사람과 공단의 팔복동으로서 동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Ⅳ. 부록-면담보고서

1. 김경자 면담보고서
2. 김순옥 면담보고서
3. 김재순 면담보고서
4. 김정옥 면담보고서
5. 김준식 면담보고서
6. 노봉순 면담보고서
7. 박근규 면담보고서
8. 박상철 면담보고서
9. 박옥엽 면담보고서
10. 박점순 면담보고서
11. 배춘자 면담보고서
12. 서길섭 면담보고서
13. 소규용 면담보고서
14. 송봉수 면담보고서
15. 송옥순 면담보고서
16. 송충덕 면담보고서
17. 오한길 면담보고서
18. 원혜연 면담보고서
19. 유기호 면담보고서
20. 유영자 면담보고서
21. 이동선 면담보고서
22. 이분례 면담보고서
23. 이쌍지 면담보고서
24. 이옥녀 면담보고서
25. 임병근 면담보고서
26. 정옥례 면담보고서
27. 정찬모 면담보고서
28. 정효남 면담보고서
29. 조영교 면담보고서
30. 조윤례 면담보고서
31. 조춘자 면담보고서
32. 최정오 면담보고서
33. 최태림 면담보고서
34, 한오목례 면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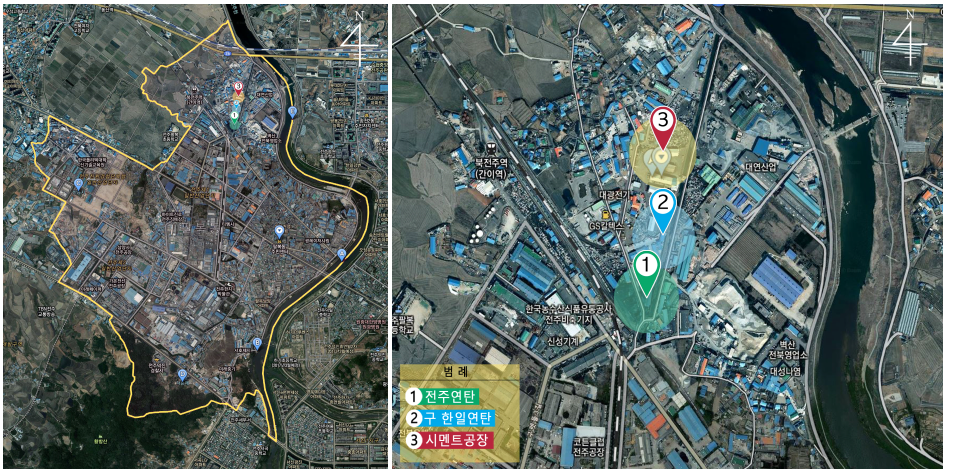
팔복동 이야기 장소도 : 92개의 이야기 공간



팔복동 : 김경자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야전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경자	**성 별**	여
	생년·나이·띠	70세(1947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김경자 어르신이 말하는 팔복동 야전마을 - 시멘트공장			
면담요약	• 시멘트공장 - 야전리 입구에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분진으로 인해 빨래도 쉽게 바깥에 널지 못하며, 하루는 대추를 말려놓았더니 쭈글쭈글한 틈 사이로 시멘트 분진이 섞여 먹지 못할 수준이 되었다. 야전리에 비가 한번 오면 세면가루와 연탄가루가 섞여 내려서 밖에 놔둔 대야가 까매지곤 한다.			

김경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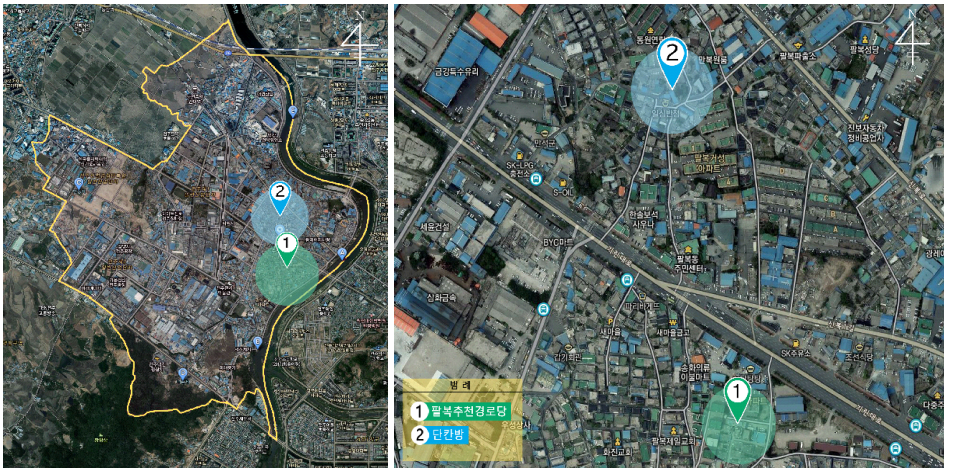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전주연탄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10 전주연탄	- 과거 야전리 입구에는 연탄공장 있었음
2	구 한일연탄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30-12	- 과거 비가 오면 인근 마을마당에 둔 대야가 까매지곤 함

팔복동 : 김순옥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팔복추천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추천대교 근처 마을의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순옥	**성 별**	여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나이,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김순옥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우리 동네 – 단칸방이 많던 동네			
면담요약	• 단칸방이 많던 동네 – 공업단지인 팔복동은 과거 70, 80년대에 공장이 활성화 되었다. 세탁공장 같은 공장이 많아서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많이 올라와 일을 하곤 했다. 당시 팔복동에는 사람이 많아서 셋방살이를 많이 했다. 방은 주로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양식이었다. 특히 신복경로당 앞의 단칸방은 아주 오래된 집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이 중국이나 개성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또한 요즘 차량의 보급이 많이 되고 원룸 및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요가 이동하여 단칸방의 빈 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진	 구술자 김순옥 어르신 외 5명			

김순옥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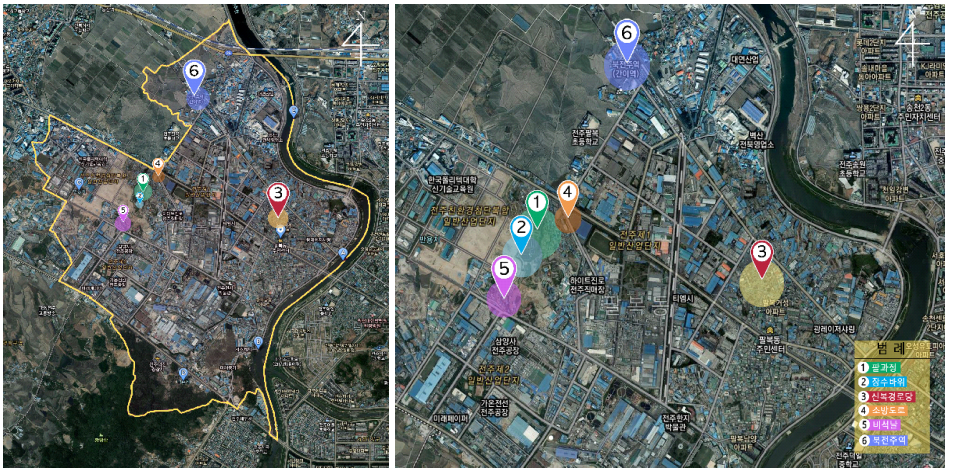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팔복추천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34-4	- 추천대교 근처에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
2	단칸방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2-2 신복경로당 앞	- 신복경로당 앞의 단칸방이 많은 집 - 과거 팔복동의 공장단지가 활성화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칸방에 살았음

팔복동 : 김재순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동곡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동곡마을 조사를 위해 자문을 얻음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재순	**성 별**	여
	출생지	전라북도 진안군	**생년·나이·띠**	77세(1940년생)
	기 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김재순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팔복동 동곡마을 - 마을 뒷산과 큰 바위 - 신복경로당의 정자나무 - 마을을 양분하는 도로 개설 - 비석날에서 일어났던 일 - 북전주역 통학			
면담요약	• 마을 뒷산과 큰 바위 - 동곡마을의 뒷산 팔과정 옆에는 납작하고 높은 바위가 있다. 팔각정을 키우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밀어버리면서 돌을 없애려 했다. 돌이 높은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는데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고인돌인지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장수바위) - 동곡마을의 뒷산은 과거에 꽤 높았다. 하지만 88올림픽 때 산의 흙을 파가고,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도 흙이 필요해 파갔다. 그 때 나온 돌이 고인돌인지 얼마 전 확인하러 왔다고 한다. • 신복경로당의 정자나무 - 과거에 신복경로당 자리에 정자나무가 있었다. 몇 백 년이 된 오래된 나무였는데, 바람에 쓰러져서 꼭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 정자나무를 없애고 동산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신복경로당을 지었다. • 마을을 양분하는 도로 개설 - 마을 사거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다. 이번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곧 없어			

	진다. 소방도로 측량까지는 끝났지만 시에서 아직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 비석날에서 일어났던 일 - 비석날에서는 애기가 개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 “아 저그 저 비석날에서는 개가 애기를 물어 죽였어. 그때도 난리가 났었네. 엄마가 애기 둘을 두고 일을 갔대. 그 큰개가 세바트(?)라는 개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애기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놀았디야. 그래서 개가 들어와서 애기들은 무서워가지고 울고 뛰었는데 그 큰개는 애를 물어 죽였다고 하더라고. 갓난이는 아니고 걸어 다니는 앤디. 째깐한(조그만) 것이 넘어져가지고 있응게 개가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반가워가지고 뛰고 앙앙앙 물었디야. 사람은 무서워서 뛰는 디 개는 반갑다고 뛰다가 그 애기가 많이 물렸다더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 그래서 시내로 이사 갔다더라고.” • 북전주역 통학 - 과거엔 북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많이 했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를 무임승차로 몰래 타는 도둑차를 많이 탔다. 마을 사람들 중 이리고등학교(익산)으로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차를 타고 뛰어 내리다가 그만 크게 다쳐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리신다고 한다.
사진	 구술자 김재순 어르신	 면담장소

김재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팔과정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00-35	- 동곡마을 뒷산의 팔과정
2	장수바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489-4	- 고인돌이라는 말이 있는 바위
3	신복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2-2	- 과거 정자나무가 있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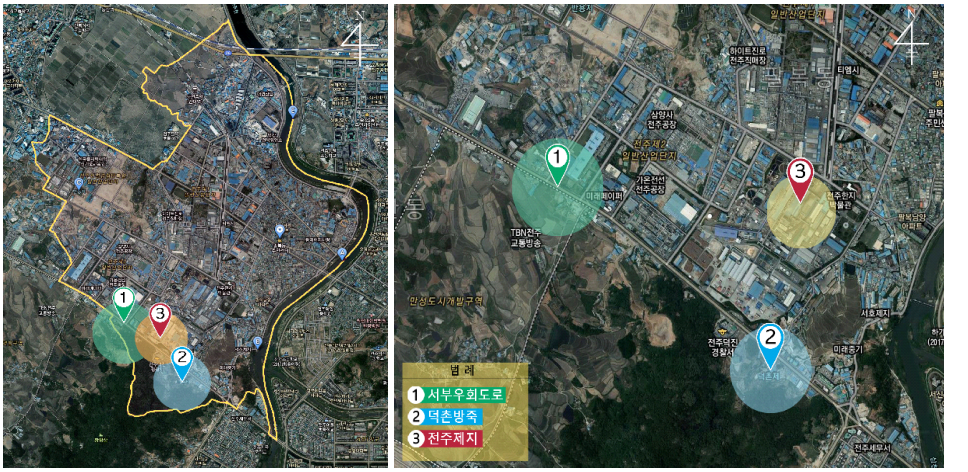
김재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소방도로	시점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3-9 팔복소방파출소사거리 종점 :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67 공단주유소 앞	- 마을을 양분하는 소방도로
5	비석날	전주시 덕진구 예암2길 1-2 일원	- 애기가 개에 물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
6	북전주역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19-20	- 과거 기차타고 통학을 많이 하던 곳 - 과거 학생들이 무임승차를 많이 했음

팔복동 : 김정옥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덕우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정옥	**성 별**	여
	출생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	**생년·나이·띠**	87세(1930년생)
	기 타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팔복동 지역의 과거 - 주변 지형들의 변화 - 전주페이퍼 자매결연			
면담요약	• 주변 지형들의 변화 - 원래 마을에는 도로가 없었다. 과거 전부 산길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서부우회도로가 개통되었다. 그래서 마을이 동과 서로 양분된 것이다. 덕촌방죽은 물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고 산(황방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 있는 형태다. 덕촌은 지금 수도는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다. 그만큼 주변시설이 좋은 여건이 아니다. 과거에는 시장을 남부시장, 중앙시장으로 갈 정도였다. 현재는 삼례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삼례로 장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 • 전주페이퍼 - 1992년부터 구 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와 덕촌마을이 결연을 맺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페이퍼에서 1년에 1번씩 마을 잔치를 열어준다. 마을이 농사짓기 힘든 곳인데 전주천의 물을 덕촌마을까지 끌어다 준 것도 전주페이퍼에서 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물길을 돌렸는지 마을 내 농사가 시원찮아졌다.			

김정옥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서부우회도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온고을로	- 기존의 산이었던 곳을 도로 개통함
2	덕촌방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3-11 팔복산교회 인근	- 덕촌방죽의 물은 황방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고여 있는 형태
3	전주제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전주페이퍼전주공장	- 덕촌마을에 전주천의 물을 길어 제공해주는 기업

팔복동 : 김춘식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용암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춘식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팔복동 반룡리	**생년·나이·띠**	78세(1939년생)
	기 타	연락처, 가족사항, 직업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어르신이 기억하는 마을의 옛 모습 - 마을에 있던 시설물 - 팔과정 - 장수바위 - 당산도랑과 동곡다리 - 고래뜰			
면담요약	• 마을에 있던 시설물 - ‘동사무소’ 현재의 형제후렴광고 자리가 예전에는 팔복동사무소였다. 과거 마을 내에는 막걸리 주조공장도 있었는데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위치해있다. 또한 미주다방, 중앙정육점이 유명했다. 이곳들의 위치는 현재 동곡리 버스정류장(기린대로 경제통상진흥원) 뒤의 2층짜리 건물에 위치이다. 이 건물의 2층에 올라가면 한쪽은 당구장, 한쪽은 다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KCC물류센터 자리에는 과거 삼성레미콘이 있었다. 추억의 장소로는 50원짜리 주먹빵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이곳의 위치는 현재의 용부동산(버스정류장 건너편)자리이다. 또 다른 빵집으로 풍년제과는 옛 코카콜라 옆 건물(맥락상 현재의 팔복동 커피공장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다. 그곳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분점에 보내는 형식이었다. • 팔과정 - 과거에는 팔과정이 현재 위치에 없었다. 과거 팔과정이 있던 일대는 맨산이었다. 또한 동곡리 일대(정수장 밑)에는 예전에 서당같이 공부하			

는 곳이 있었다.

• 장수바위

- 현재 정수장 옆에는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장수바위라 부른다. “장수바위는 장수의 발자국도 있고, 칼자국도 남아 있으며 장수가 똥오줌을 싼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엔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돌이 반으로 갈라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낮잠도 자고, 바위에 올라 앉아있기도 했다.

• 당산도랑과 동곡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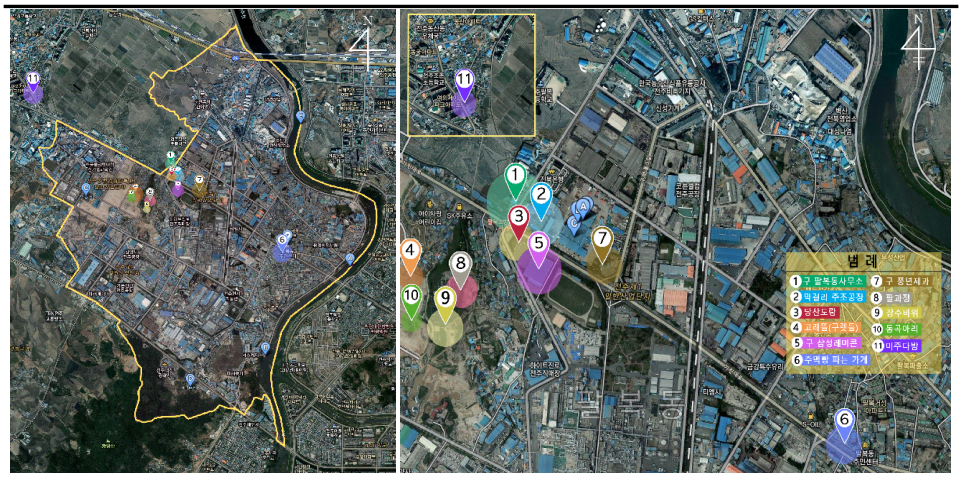
- 옛 주물공장 앞에는 큰 당산나무가 있었고 그 앞에 작은또랑이 있었는데 이를 당산도랑이라 불렀다. 그리고 동곡리 앞에는 동곡다리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 당산도랑 앞은 과거 일본인들이 살적에 길의 폭이 8m되는 길이었는데, 공단 개발로 도로를 넓히면서 다리를 없애버렸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감수리 방향으로 가던 물길을 동산동쪽으로 빠지도록 수로를 틀어버렸다. 또랑(냇물)은 전주천 어귀의 추천대에서 시작해서 구주를 지나 동곡리 옆을 흘러 감수리로 나간다.

• 고래뜰

- 고래뜰(구렛들)은 삼양사 자리를 말한다.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고래가 그곳까지 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복리에서는 예전에 집을 짓는데 땅을 파면 전부 모래만 나와서 모래로만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주조공사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땅을 팠는데, 썩은 나무가 나왔다. 아마 위의 두 사례들은 고대를 거쳐 현재 산이 바다가 되고 지층이 뒤바뀌어서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다.

사진		
	구술자 김춘식 어르신(우)	

김춘식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구 팔복동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1 형제후렴광고	- 과거 팔복동사무소가 있던 곳
2	막걸리 주조공장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0 전주산단꿈나무어린이집	- 과거 마을 내에 있었던 막걸리 주조 공장
3	당산도랑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0 전주산단꿈나무어린이집	- 과거 마을 내에 있었던 막걸리 주조 공장과 인접해 있던 도랑
4	고래뜰(구렛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동곡리 일대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47 휴비스전주공장	- 과거 고래가 이곳까지 왔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 과거 범위가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

김춘식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5	구 삼성레미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KCC 물류센터	- 현재 KCC물류센터 위치에 과거 삼성레미콘이 존재했음
6	주먹빵 파는 가게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3 세종제과	- (세종제과의 공갈빵으로 추정)
7	구 풍년제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00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유한) 인근	- 과거 팔복동에서 기억에 남는 제과점
8	팔과정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00-35 인근	- 과거 팔과정은 현재 위치와 다른 곳에 존재했음
9	장수바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489-4 인근	- “장수바위는 장수의 발자국도 있고, 칼자국도 남아 있으며 장수가 배변활동을 한 흔적도 남아 있다.”
10	동곡다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동곡리 일대로 추정	- 과거 동곡리 인근에 동곡다리가 있었음
11	미주다방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8 미주다방	- 과거 팔복동에서 미주다방이 유명했음

팔복동 : 노봉순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구주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구주마을의 생활모습을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노봉순	성 별	여
	생년·나이·띠	62세(1955년생)		
	기 타	출생지, 가족사항, 직업,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노봉순씨가 이야기하는 구주마을의 모습 - 과거 구주마을의 모습 - 만○집			
면담요약	• 과거 구주마을의 모습 - 과거 구주경로당 앞의 모습은 시냇물이었으나 현재 복개공사를 하고 공장이 들어서있다. • 만○집 - 전주천 뚝방에 있는 보신탕, 삼계탕 하는 음식점이다. 구주경로당 회장인 할머니가 오랫동안 운영해왔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할머니는 남양아파트에 거주하신다.			
사진				
	구술자 노봉순 어르신		면담장소	

노봉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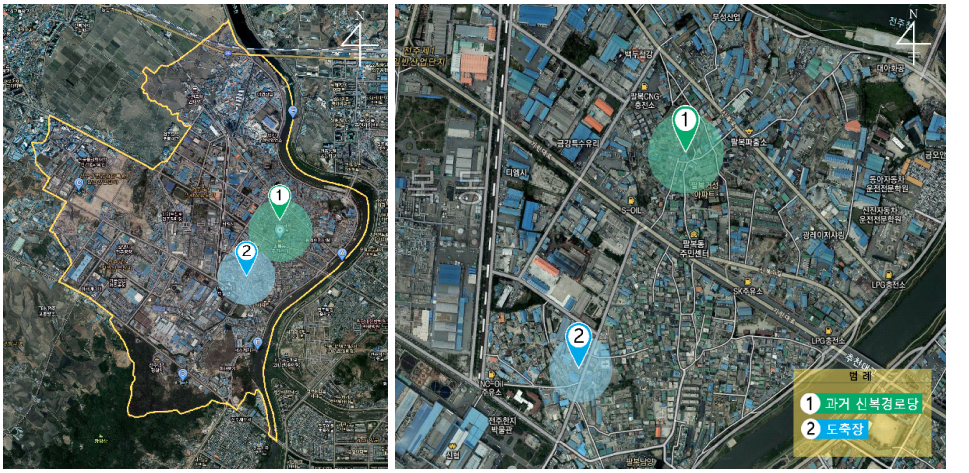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시냇물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76-10	- 과거 구주경로당 앞의 모습은 시냇물이었으나 현재 복개공사를 하고 공장이 들어서있음
2	남양아파트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8	- 팔복동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보신탕, 삼계탕 집의 주인할머니가 남양아파트로 이사하심

팔복동 : 박근규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신복경로당 앞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지역의 개괄적인 특징을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박근규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리	생년·나이·띠	52세(1965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박근규씨의 팔복동에 대한 과거 기억 - 신복리 - 상리			
면담요약	• 신복리 - 현재 신복경로당 앞쪽이 과거에는 산같이 높았고 큰 나무가 존재했다. 당시 시의원(시기 가늠 불가)이 지원을 받아 이곳을 전부 퍼내고 놀이터같이 만들어놓았다. 예전에는 신복리 일대에 사람이 많아 북적거렸다. 단칸방(방 하나, 부엌 하나)을 세놓은 가구들이 많았다. • 상리 - 과거 상리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위치는 현 삼우냉동 부지이다.			

박근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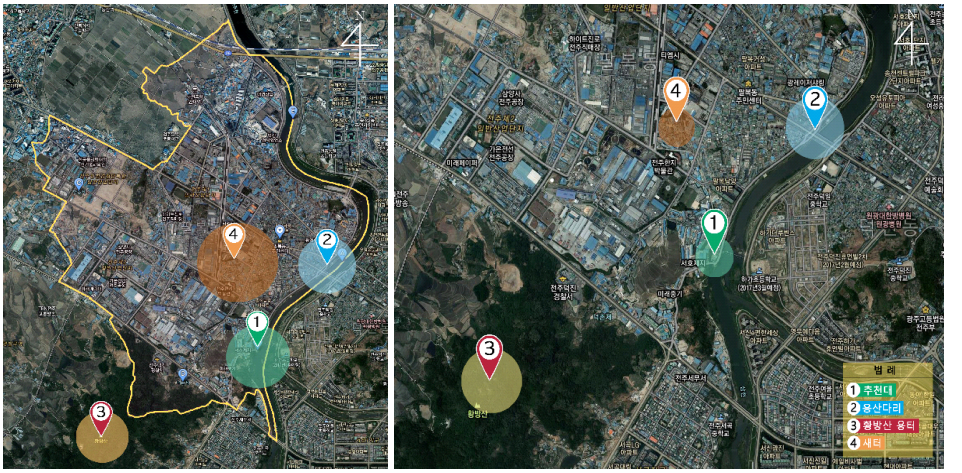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과거 신복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2-2 신복경로당	- 과거에는 인근이 산처럼 높았으며 큰 나무가 존재했다.
2	도축장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29 삼우냉동	- 과거 도축장이 있던 곳

팔복동 : 박상철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팔복동주민센터 회의실			
조사자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노인협의회에 오신 분 중 팔복동의 과거를 많이 알고 계신 어르신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박상철	성 별	남
	생년·나이·띠	86세(1931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팔복동 지역의 과거 이야기 - 추천대의 역사와 그 앞 도로 - 해방 직후 용산다리 일대의 풍경 - 황방산 용터와 용소 설화 - 새터와 매화동			
면담요약	• 추천대의 역사와 그 앞 도로 - 추천대 앞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조(1666년 현종 7년~1726년 영조 2년) 때 숙쟁이(맥락상 숲정이를 의미)에서 추천대, 비비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과거에는 차 한대만 지나갈 정도의 길이었다. 옛날에는 추천대에서 어른들이 공부도 했고, 그 일대는 현재 이씨들의 선산이 있다. 현재 어떤 양반이 이조 때 낙향을 해서 이곳에서 낚시를 했다는 내용의 간판도 있다. • 해방 직후 용산다리 일대의 풍경 - 가운데집(추천대교 인근 족발집 중 하나)에서 쭉 내려오면 경사진 곳이 있었는데 그 밑에도 과거에는 집과 주막이 있었다. 그곳에 조그마한 장터가 있어서 농민들이 채소도 팔곤 했다. • 황방산 용터와 용소 설화 - 전북대학교 옆에 이조 5대조를 모시고 있는 야산에 아버님을 모시려고 송장을 메고 왔었다. 그때 소나기가 내려서 송장이 떨어져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황방산			

	용터라는 곳이 생겼다. 지금은 그 곳에서 물이 나오며, 용이 산으로 올라가서 용소라 부른다. • 새터와 매화동 - 새터의 유래는 상리가 먼저 생기고,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와서 집을 몇 곳 지으니 새로 지은 집이라 해서 새터라고 불렀다. 매화동의 유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매화꽃을 좋아해서 많이 심어놓으니 매화가 많이 피었다 하여 매화동이라 불렀다.

박상철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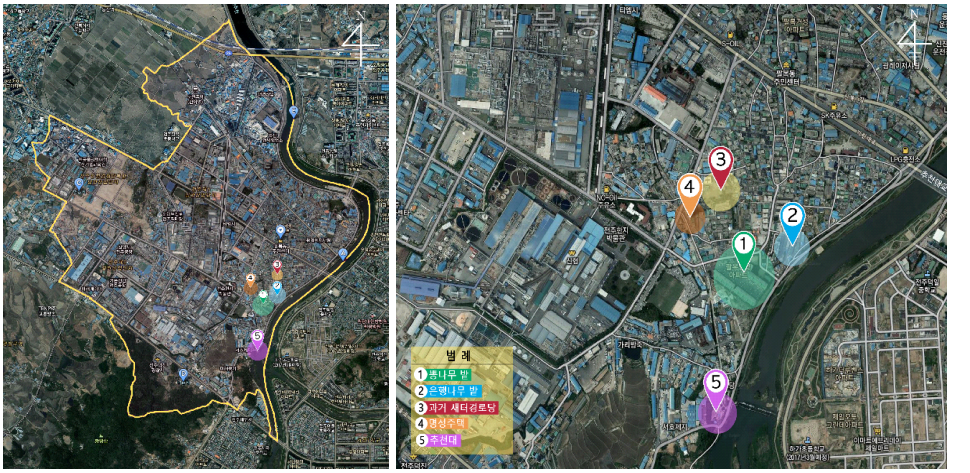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추천대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23 추천대	- 추천대 일대에 이씨들의 선산이 있음
2	용산다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98-3 신복1길 인근	- 과거 용산다리 밑에 집과 주막 그리고 장터가 존재했음
3	황방산 용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황방산	- 용소설화가 있는 곳
4	새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상리 일대	- 상리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새터라는 이름이 붙여짐

팔복동 : 박옥엽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7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새터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새터마을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박옥엽	**성 별**	여
	생년·나이·띠	76세(1941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박옥엽 어르신이 기억하는 구주마을의 변화 - 구주마을의 변화			
면담요약	• 구주마을의 변화 - 30년 전의 추천대는 구주부락이었다. 그리고 구주마을 만복집에서 현재의 남양아파트 일대에는 다 뽕나무 밭이었다. 옛 경로당 앞의 길에서 남양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다있는 원룸단지는 예전에 은행나무 밭이었다. - 현재의 경로당은 구 억수탕 맞은편에서 이전했다. - 마을 인근에는 ‘명성주택’이라는 연립이 가장 처음 지어졌으며 과거에는 추천대 아래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			
사진				
	구술자 박옥엽 어르신 외 3명		면담장소	

박옥엽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뽕나무 밭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8 남양아파트 일대	- 과거 뽕나무 밭이었던 곳
2	은행나무 밭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6 일대	- 과거 은행나무 밭이었던 곳 - 현재는 원룸이 많이 생겨 원룸촌을 이루고 있음
3	과거 새터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44 예빛어린이집	- 새터 경로당은 과거 구 억수탕 맞은편에서 현재 자리로 이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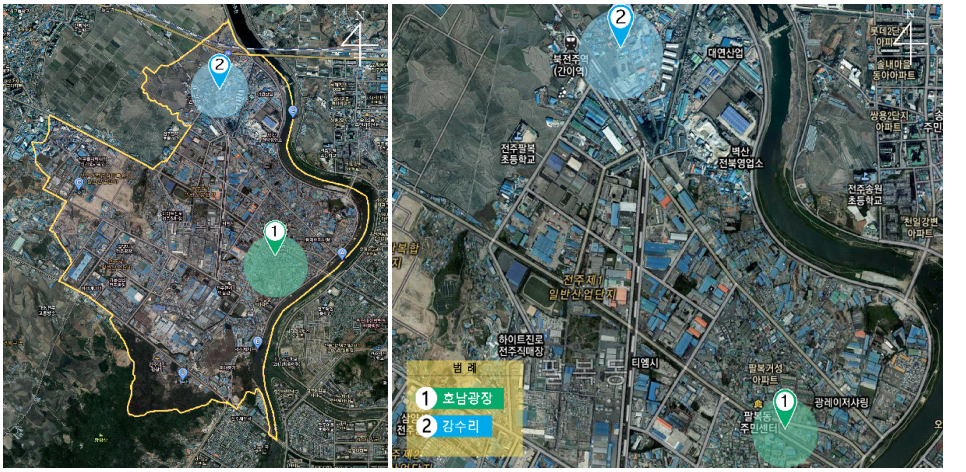
박옥엽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명성주택	전주시 덕진구 팔복2길 3	- 마을 인근에서 명성주택이라는 연립이 가장 처음 지어짐
5	추천대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23	- 과거 물이 깨끗해서 추천대 아래 냇가에서 빨래를 많이 했음

팔복동 : 박점순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팔복추천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추천대교 근처 마을의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박점순	성 별	여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나이,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박점순 어르신이 기억하는 동네 - 침수에 대한 기억			
면담요약	• 침수에 대한 기억 - 과거 몇 년 전에는 도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 위까지 물이 찰 정도였다. “근데 우리 집 앞에는 몇 년 전에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었어. 도로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래. 안 터져도 그냥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서 차가 못 다녔었어. 저기 도로 입구에 호남냉장이라고 있지요? 그 골목에가 전에는 어떻게 물이 차가지고 우리 지하로 막 이만큼 들어와 가지고 막 빼고 그랬어. 물을. 물이 안내려가니까. 감수리 쪽으로 물을 많이 막아버렸대.”			
사진	 구술자 박점순 어르신 외 5명			

박점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호남냉장	전주시 덕진구 추천6길 14	- 과거 몇 년 전 도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 호남냉장 도로 입구까지 물이 많이 찼음
2	감수리	전주시 팔복동4가 166-20 일원	- 과거 매년 발생된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음

팔복동 : 배춘자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야전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배춘자	성 별	여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생년·나이·띠	73세(1944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배춘자 어르신의 팔복동에 대한 기억 - 음식물자원화시설			
면담요약	• 음식물자원화시설 -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감수리에 위치해 있으나 영향은 야전리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앞으로 2년 반 정도지나면 완주군 이서면 인근으로 시설이 옮겨진다. 현재 자원화시설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은 야전리, 감수리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상을 더 많이 이루어진다.			

배춘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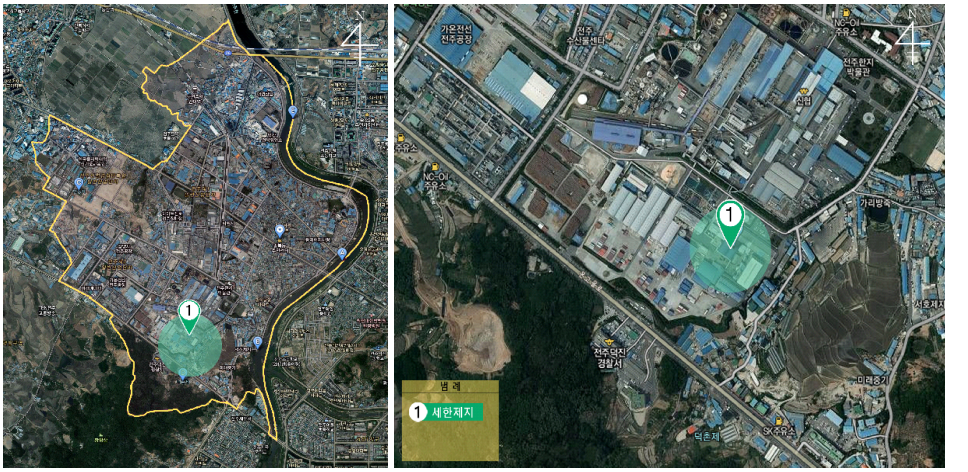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음식물자원화시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로 427 음식물자원화처리장	- 시설이 현재 팔복동 감수리에 있지만 영향은 야전리까지 미치고 있음

팔복동 : 서길섭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전주페이퍼전주공장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지역에 존재하는 공장 중 역사가 오래된 공장근처의 변화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서길섭	성 별	남
	직 업	전주페이퍼전주공장 인사총무팀 과장		
	기 타	출생지, 나이,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전주페이퍼 - 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면담요약	• 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 새한제지(현 전주페이퍼)가 전주에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삼성회장의 영향이 컸다. 답사팀은 팔복동 일대는 저지대로 국제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병철(당시 회장)은 낙후된 전주시에 생산공장을 세워 지방민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황방산 아래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길섭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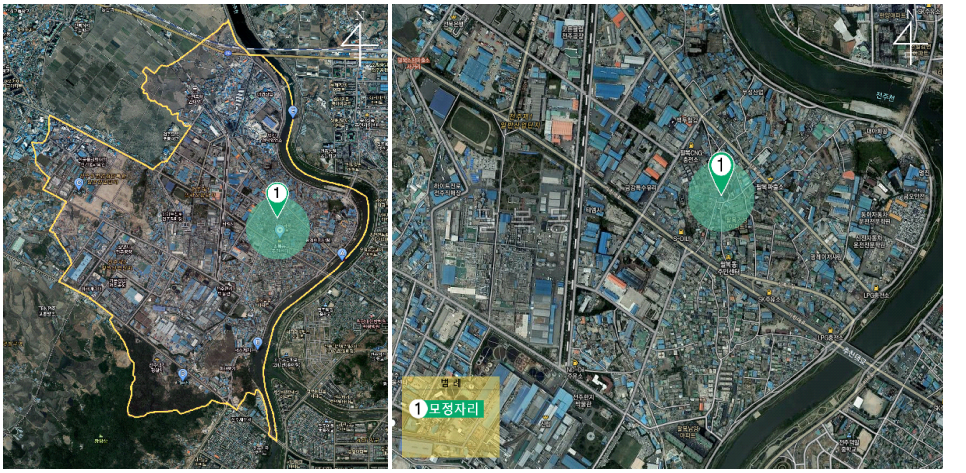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새한제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전주공장	- 당시 회장이 낙후된 전주지역에 생산 공장을 세워 지방민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하려고 함

팔복동 : 소규용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팔복추천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추천대교 근처 마을의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소규용	성 별	여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나이,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소규용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 - 신복리 당산나무터			
면담요약	• 신복리 당산나무터 - 신복리 모정(1.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 2.정자를 일컫는 전라도말.)자리에는 과거 둥구나무가 하나 있었다. 당산나무 역할을 하면서 밥도 지어놓고 막걸리도 뿌리며 당산제를 지냈다. 과거엔 '당산제를 잘못 지내면 누가 죽어도 하나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 돌섬같은 것을 파내고 나무도 베어버린 다음 정자를 만들어 놓았다. 현재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는 공원이 되었다.			
사진	 구술자 소규용 어르신 외 5명			

소규용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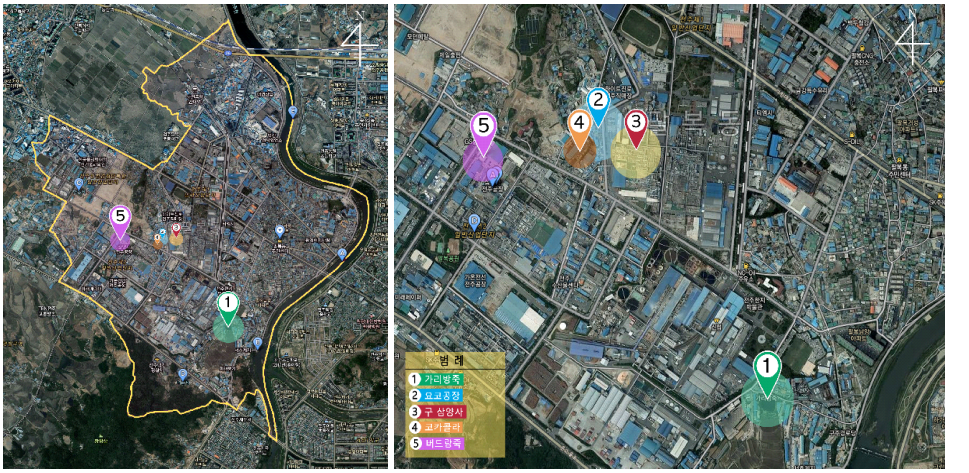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모정자리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2-2	- 과거 신복경로당 앞에는 당산나무 역할을 하던 둥구나무가 하나 있었음 - 현재는 당산나무를 베고 신복공원을 만들어 놨음

팔복동 : 송봉수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칠일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송봉수	성 별	남
	생년·나이·띠	80세(1937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팔복동 지역의 변화 - 가리방죽 - 요코공장과 코카콜라공장 - 유제리와 감천리			
면담요약	• 가리방죽 - 가리방죽은 전주페이퍼전주공장 정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방죽이다. 과거에는 농업용수로 물을 끌어다 썼다. 현재는 방죽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상태이다. • 요코(뜨개옷편직기계의 일본어)공장과 코카콜라공장 - “요코는 스웨터 같은 것을 지칭하는 일본말인데 30년 전만해도 마을에 요코공장이 많았다.” 예전 삼양사(현 휴비스전주공장) 쪽으로 공장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없다. 코카콜라는 구 삼양사 맞은편에 위치해있었지만 IMF 시기에 광주로 이전했다. • 유제리와 감천리 - 유제리는 방죽으로 가는 길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버드랑죽’이라 했었는데 후에는 동네 이름을 유제리로 불렀다. 감천리는 가리방죽의 윗지역를 가르켰다. 현재는 신행리, 감천리, 유제리 이 세 곳이 휴비스 전주공장 제2공단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송봉수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가리방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가리방죽	- 과거 농업용수로 물을 끌어다 썼으나 현재는 방죽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상태
2	요코공장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87 (주)휴비스 전주공장 앞	- 30년 전만 해도 구 삼양사 앞쪽으로 요코공장이 많았음
3	구 삼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87 (주)휴비스 전주공장	- 구 삼양사로 현재는 휴비스전주공장으로 변함

송봉수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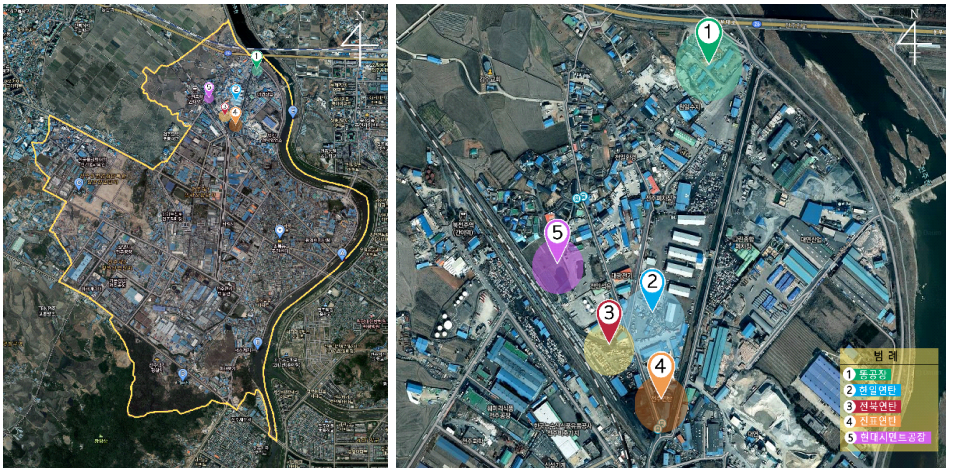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코카콜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87 (주)휴비스 전주공장 앞	- 구 삼양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던 코카콜라공장은 IMF시기에 광주로 이전함
5	버드랑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47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 유제리에 있던 버드랑방죽은 방죽가는 길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현재는 신행리, 감천리, 유제리 이 세 곳이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사라짐

팔복동 : 송옥순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감수여자경노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지역의 옛 모습을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송옥순	**성 별**	여
	생년·나이·띠	86세(1931년생)		
	기 타	출생지, 가족사항, 직업,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송옥순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 옛 모습 - 음식물자원화처리장 -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			
면담요약	• 음식물자원화처리장 - 원래 이곳은 “똥공장”이라 부르던 곳으로,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똥)을 수거하던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든 것이다. 시설이 들어올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밤낮으로 시청 앞이나 마을어귀에서 시위를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시설 인근 두개 마을(감수, 야전)에 영향을 미쳐 시위를 같이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냄새문제였다. 주민들이 소송도 걸었지만 결국 졌다. 시설은 2014년에도 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시설을 팔복동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보상을 해줄거면 가전제품보다 차라리 돈으로 주면 약이라도 사먹는데, 무조건 가전제품으로만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또한 저 시설이 생김으로써 마을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방을 세 내주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시설이 아예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길 바라고 있다. 이 시설이 삼천동으로 이주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삼천동의 시설 예정지 주민들은 이곳(감수리)보다 엄청난 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			

<table>
<tr><td></td><td colspan="2">•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
- 연탄공장은 마을 입구에 있다. 그 전에는 감수리 일대에 3개의 연탄공장(한일연탄, 전북연탄, 진표연탄)이 있었으나 지금은 진표연탄이 전주연탄으로 바뀌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다. 시멘트공장은 감수여자경로당 바로 맞은편에 현대시멘트 공장이 있다. 시멘트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진이 심해 빨래도 함부로 널어놓지 못할 정도다. 어떤 날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코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나오는 것도 봤다.</td></tr>
<tr><td rowspan="2">사진</td><td>  </td><td>  </td></tr>
<tr><td>구술자 송옥순 어르신</td><td>면담장소</td></tr>
</table>

송옥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똥공장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27 음식물자원화시설	- 과거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을 수거하던 곳 - 현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
2	한일연탄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30-12 태일기계	- 과거 감수리 일대의 3개 연탄공장 중 하나
3	전북연탄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21 대성폐차장 추정	- 과거 감수리 일대의 3개 연탄공장 중 하나로 현재 자리로 추정 중

송옥순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진표연탄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10 전주연탄	- 과거 감수리 일대의 3개 연탄공장 중 하나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장 - 진표연탄이 전주연탄으로 바뀜
5	현대시멘트공장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45 현대시멘트전주공장	- 감수여자경로당 바로 맞은편 - 시멘트 공장의 분진이 심해 빨래도 함부로 널어놓지 못할 정도임

팔복동 : 송충덕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유상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송충덕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생년·나이·띠**	75세(1942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마을에 있던 시설 - 북전주경찰서 - 팔복동사무소 - 광주○가든 - 유상교회			
면담요약	• 북전주경찰서 - 1971년도 개설된 북전주경찰서 자리는 현재 주류창고로 쓰고 있다. 원래 있던 경찰서는 서부 우회 도로변으로 이전했다. • 팔복동사무소 - 팔복동사무소는 동곡리 쪽에(현재의 형제후렘광고) 있었는데, 그 인근의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아 신복리로 옮겨진 것이다. • 광주○가든 - 약 20년 가량 운영된 식당으로 주로 보신탕을 취급한다. • 유상교회 - 유상교회는 설립된 지 약 100여년 가량 된 교회이다. 팔복동과 동산동 인근의 교회는 다 유상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사진		
	구술자 송충덕 어르신	

송충덕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북전주경찰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보해양조전주영업소	- 과거 북전주경찰서가 있던 곳. - 북전주경찰서는 현재 서부우회 도로변으로 이전함
2	구 팔복동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1 형제후렴광고	- 과거 팔복동사무소가 있던 곳
3	유상교회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54 유상교회	- 교회가 설립된 지 약 100여년 가량 됨

팔복동 : 오한길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야전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지역 장기 거주자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오한길	성 별	여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생년·나이·띠	79세(1938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야전리 옛 이야기와 지대가 낮은 팔복동 - 야전리 마을 이야기 - 침수에 대한 기억			
면담요약	• 야전리 마을 이야기 -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중 야전리에서 들어와서 쉬면 부자가 되어서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완주군이었으며 감수리와 함께 고랑동에 속해있었는데, 1994년경 팔복동에 편입되었다. 도시가스는 2014년에야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가스가 유입되지 않은 집도 더러 있다. 그리고 야전리는 지하수를 퍼서 마시던 동네였던 만큼 깨끗한 물이 있던 동네이다. • 침수에 대한 기억 -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마을 인근에 보를 열고 닫는 책임자가 문을 닫고 퇴근하지 않아 마을에 물이 넘쳤던 적이 있다. 또한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아 한번 비가 오면 쉽게 물이 찬다. 지금은 감수리와 야전리 일대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하수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사진		
	면담장소 및 구술자	

오한길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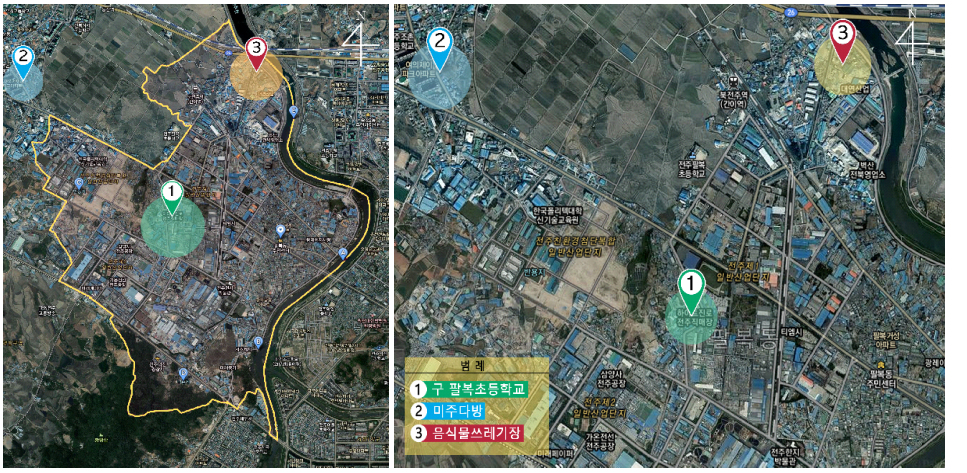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야전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리	-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 야전리에 들어와서 쉬면 부자가 되어서 나간다는 속설이 있음. - 과거엔 완주군이었으나 1994년경에 팔복동에 편입됨
2	야전재해위험지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리	- 2010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 - 2017년까지 야전리의 156만㎡의 면적에 관거정비 및 펌프 설치 할 예정

팔복동 : 원혜연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신복경로당 앞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원혜연	**성 별**	여
	출생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생년·나이·띠**	47세(1970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팔복동 내 마을별 개략적인 지형 - 동곡리 - 감수리와 야전리			
면담요약	• 동곡리 - 하나는 현 하이트맥주 부지(하이트진로 전주직매장)에 과거 구 팔복초등학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전에 동곡리 KT(KT 팔복지사) 앞 실개천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찼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 아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사건 이후에 실개천을 시멘트로 복개공사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동곡리 이야기는 과거 유명했던 미주다방과 형제슈퍼가 있었다는 것이다. • 감수리와 야전리 - 현재 감수리에 음식물 쓰레기장(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서 1년에 1번씩 감수리나 야전리 주민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밥통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을 제공해준다.			

원혜연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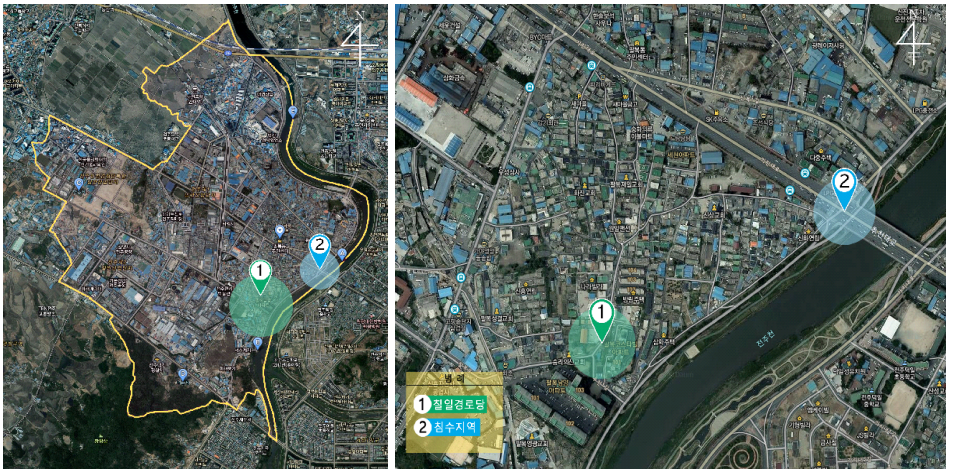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구 팔복초등학교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3 하이트진로전주직매장	- 과거 팔복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곳
2	미주다방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8 미주다방	- 과거 동곡리 어르신들에게 유명했던 다방
3	음식물쓰레기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로 427 음식물자원화처리장	- 현재 감수리에 위치해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팔복동 : 유기호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칠일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유기호	**성 별**	남
	기 타	출생지, 나이,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유기호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 - 칠일경로당 이름의 유래 - 침수에 관한 기억 - 주민들 자비로 관리되는 정화조 - 불편한 도로상태			
면담요약	• 칠일경로당 이름의 유래 - 칠일경로당은 7개의 마을이 협조해 돈을 걷어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칠일경로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 침수에 관한 기억 - 다리(추천대교) 아래가 예전에는 침수지역이었다. 지대가 낮다보니 물이 잘 빠지지않아서 야전리 일대는 침수가 된 적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화동에서 물이 잘 빠지게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다. • 주민들 자비로 관리되는 정화조 - 팔복동은 아직까지도 정화조 시설과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정화조를 퍼내고 있다. • 불편한 도로상태 - 현재 팔복동 마을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차가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또한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다.			

유기호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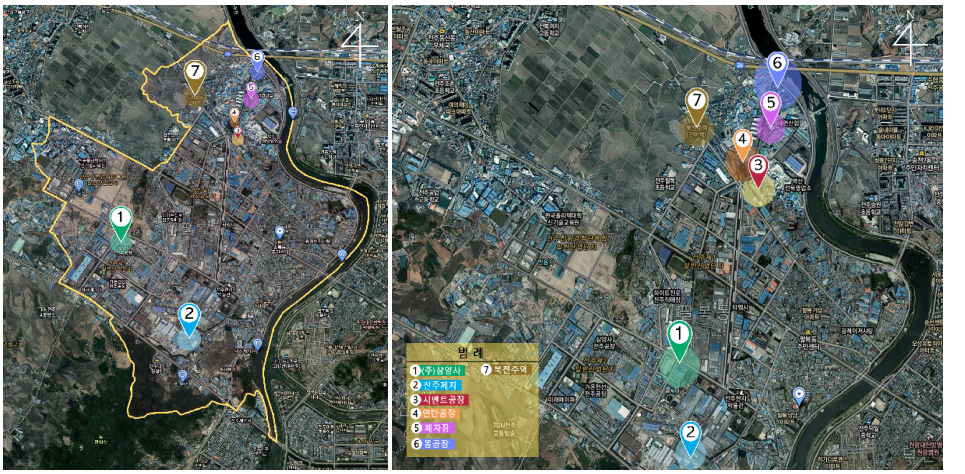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칠일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14 칠일경로당	- 7개의 마을이 협조하여 설립한 경로당
2	침수지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추천대교 일대	- 과거 추천대교 주변 지역은 침수되었던 적이 있음

팔복동 : 유영자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감수여자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감수리 일대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유영자	**성 별**	여
	생년·나이·띠	72세(1945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유영자 어르신의 기억 - 현재 감수리에서의 생활 - 북전주역			
면담요약	• 현재 감수리에서의 생활 - ㈜삼양사와 전주제지(현 전주페이퍼) 등이 생기면서 감수리마을의 환경조건이 안좋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멘트공장(한일시멘트전주공장), 연탄공장(전주연탄), 폐차장(그린종합폐차장), 고물상 등이 마을 주변에 위치해있다.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은 예전에 “똥공장”이라 하여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이 이곳으로 모였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생겨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날에는 동네에 묵은지 썩는 냄새가 아주 심하다. 또한 도시계획선이 있어 건물을 새로 못짓게 한다. 인근에 ○○ ○○공장이 들어오면서 논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아무 얘기도 없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언제쯤 개설될지 모른다. • 북전주역 - 북전주역은 1967년쯤 준공되었다. 지금은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되었다. 사람이 타지 않게 된 지는 약 35년 가량 되어 약 1982년부터이다. 지금은 동산역에서 관리를 하며, 역장은 따로 없다. 철둑 옆에는 나무들이 쭉 - 심어져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심어져 있어 여름에는 덥다. 예전에는			

	그 둑 옆에 도랑이 있었으나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마당까지 물이 넘어왔는데, 하수구 시설을 정비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	
사진	 면담장소	

유영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삼양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47 삼양사전주공장	- 현재 팔복동에 위치한 공장
2	전주제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전주공장	
3	시멘트공장	전주시 덕진구 야전1길 10 한일시멘트전주공장	

유영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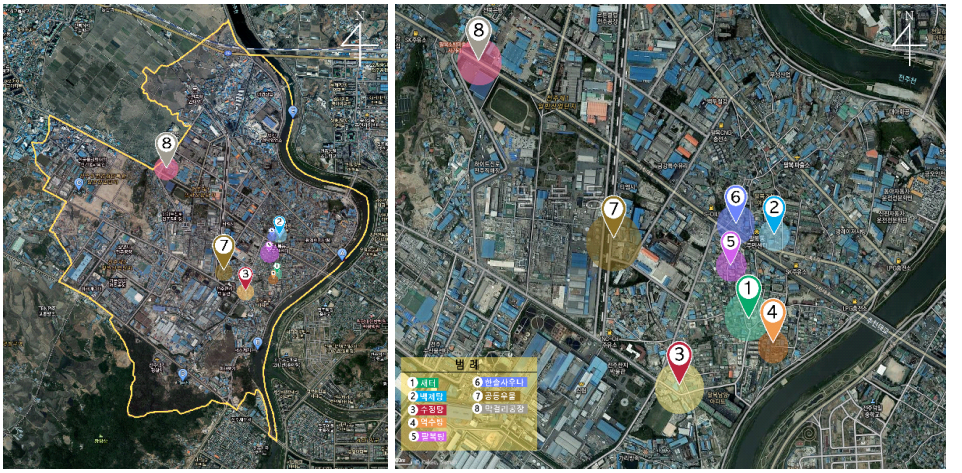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연탄공장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10 전주연탄	- 현재 잔존하는 연탄공장 중 하나
5	폐차장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10-40 그린종합폐차장	- 현재 팔복동에 위치한 폐차장
6	똥공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로 427 음식물자원화처리장	- 전주시에서 처리해야할 음식물쓰레기가 집결되는 곳이여서 “똥공장”이라고 부름
7	북전주역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19-20 북전주역 간이역	- 현재는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 됨

팔복동 : 이동선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38-17 구술자의 집 앞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동선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생년·나이·띠**	70세(1947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이동선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의 과거 - 마을의 유래 - 국민주택과 목욕탕의 위치 - 유제리			
면담요약	• 마을의 유래 - 예전의 신교리는 논이 있었다. 새로 국민주택을 기와집 형태로 20채를 새로 지으면서 신교마을이 형성되었다. • 국민주택과 목욕탕 위치 - 처음 신교마을이 생겼을 때는 국민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전에는 새터에서 살다가 새터가 점점 커지자 새터와 신교로 분할이 된 것이다. 또 팔복동에는 목욕탕이 네 곳이 있었다. 팔복탕, 억수탕, 수정탕, 백제탕이 그것이다. 현재는 한솔사우나가 팔복동에 들어서면서 목욕탕들이 다 사라졌다. • 유제리 - 유제리에 있던 공동우물은 물 상태가 좋아 막걸리공장에서도 갖다 썼다. 현재는 2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졌고, 우물자리는 지금 체육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구술자 이동선 어르신	

이동선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새터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44 예빛어린이집 인근	- 새터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자 신교마을과 분할됨
2	백제탕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2-2 백제목욕탕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 제일 잘 되던 목욕탕
3	수정탕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6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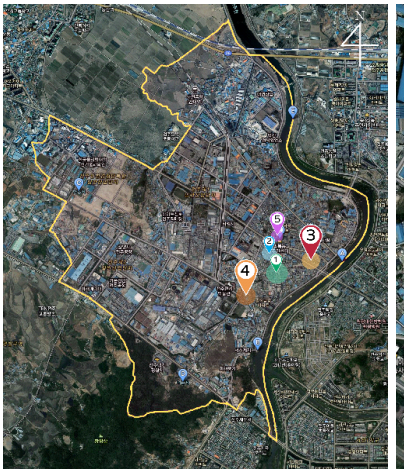
이동선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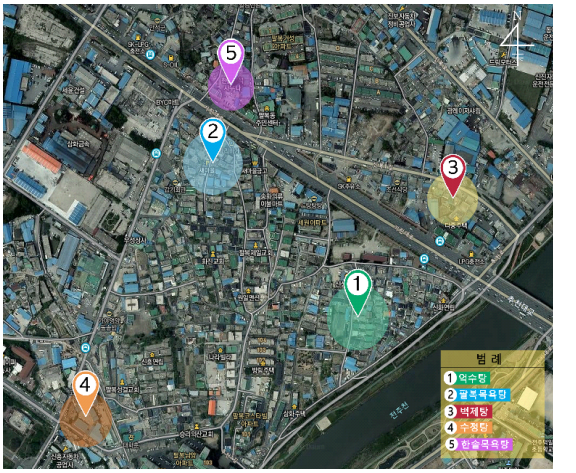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억수탕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44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5	팔복탕	전주시 덕진구 팔복6길 9	
6	한솔사우나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6 한솔사우나	- 현재 근처 목욕탕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목욕탕
7	공동우물	전주시 덕진구 상리5길 8 앞 전주시 덕진구 상리5길 30-6 앞 전주시 덕진구 상리5길 22 앞	-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우물
8	막걸리공장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0 전주산단 꿈나무어린이집	- 마을 내 공동우물의 수질상태가 좋아서 막걸리공장에 길어다 사용함

팔복동 : 이분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팔복추천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추천대교 근처 마을의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분례	**성 별**	여
	생년·나이·띠	81세(1936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이분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팔복동 – 팔복동의 목욕탕			
면담요약	• 팔복동의 목욕탕 – “억수탕 지금 애들 어린이집 쪽에 있었어. 팔복목욕탕은 저기 저쪽에 시식코너 옆에 있어. 백제탕은 그 버스 타는데 있지 거기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었어, 거기에. 또 길 건너서 동사무소 바로 뒤에 거기가 하나 있었어. 수정탕. 거기는 인제 한솔제지 가는데 있어. 컸는데 조금 하다가 망했어. 수정탕 빼고는 장사가 잘됐었지. 나중에는 백제탕이 제일 오래했어. 수정탕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백제탕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녔어. 이제 다 없어지고 한솔 목욕탕 한 개 있지. 거기는 커요, 사우나도 있고.”			
사진	 구술자 이분례 어르신 외 5명			

이분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억수탕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44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2	팔복목욕탕	전주시 덕진구 팔복6길 9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3	백제탕	전주시 덕진구 신복1길 12-2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 제일 잘 되던 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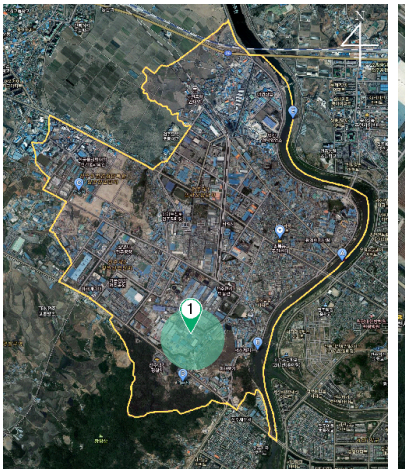
이분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수정탕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6	- 과거 팔복동의 목욕탕 중 하나 - 목욕탕 중 운영을 제일 짧게 함
5	한솔목욕탕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6	- 현재 근처 목욕탕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목욕탕

팔복동 : 이쌍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상리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상리마을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자문을 구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쌍지	성 별	여
	생년·나이·띠	77세(1940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이쌍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상리마을 - 상리마을 봉답			
면담요약	• 상리마을 봉답 - 현재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부지는 과거에 논이었다. 그곳을 봉답이라고 불렀다. 봉답은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이란 말인데, 그 일대의 땅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구술자 이쌍지 어르신 외 3명		면담장소	

이쌍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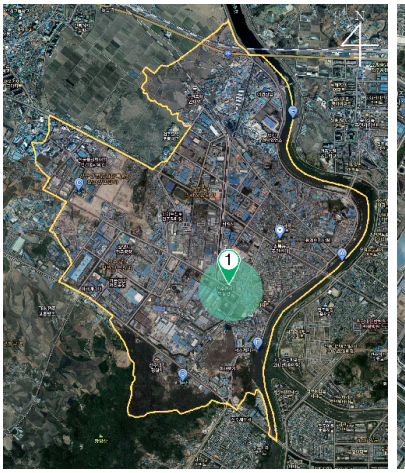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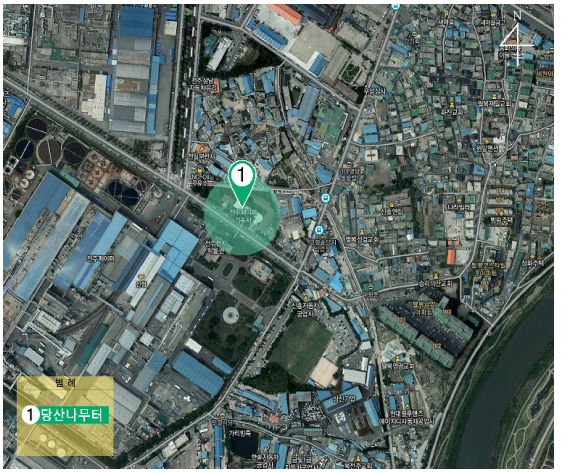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봉답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부지는 과거에 논이었음 - 빗물에 의하여서면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이란 뜻으로 봉답이라고 불렸음 - 그 일대의 땅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었음

팔복동 : 이옥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상리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상리마을의 당산제에 대해 듣기위해 자문을 구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옥녀	성 별	여
	생년·나이·띠	82세(1935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이옥녀 어르신이 기억하는 상리마을의 당산제 - 당산나무와 당산제			
면담요약	• 당산나무와 당산제 - 과거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숙사와 철길(인입선로)이 만나는 교차점에 당산나무가 있었다. 그곳에서 당산제를 지냈으나 이후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이 생기면서 당산나무가 없어졌다. - 당산제는 음력으로 정월 초삿날(초하룻날)에 지냈으며, 그 기간에는 외지인이 들어오면 부정 탄다는 이유로 다른 동네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당산제가 끝난 후에나 마을에서 용무를 볼 수 있었다.			
사진				
	구술자 이옥녀 어르신 외 3명		면담장소	

이옥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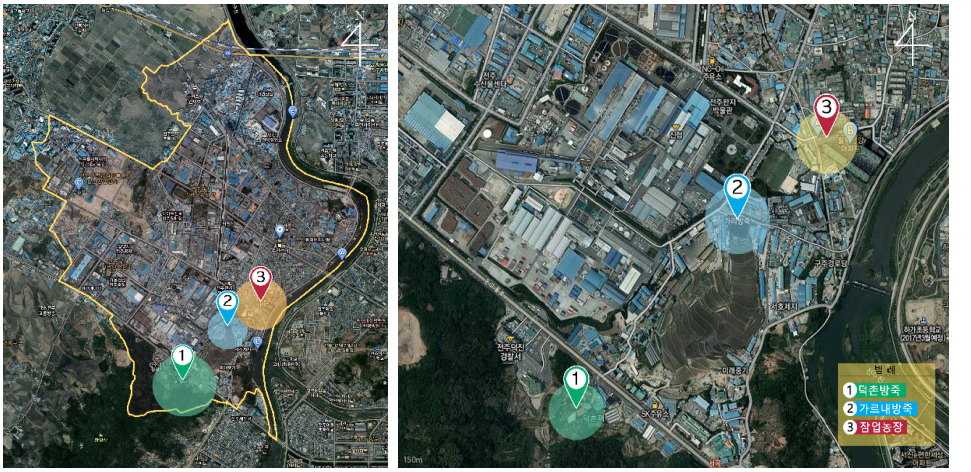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당산나무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46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숙사	- 과거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숙사와 철길이 만나는 교차점에 당산나무가 있었음 - 과거 음력으로 정월 초하룻날 당산제를 지냈음

팔복동 : 임병근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팔복산교회 앞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임병근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생년·나이·띠	66세(1951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과거 팔복동의 모습 - 주변 지형들의 변화			
면담요약	• 주변 지형들의 변화 - 황방산 아래에는 덕촌방죽이 있는데, 이 물은 가르내방죽으로 흐른다. 예전에는 물이 깨끗해서 이곳에서 놀기도 하고 빨래도 했지만, 지금은 밤낮으로 오는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마을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반으로 갈라진 형태이다. 매화동에 '조씨'라는 사람이 지금의 남양아파트 부지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아주 많이 키웠다. 현재는 그것을 다 팔고 시내로 이사했다.			
사진	 구술자 임병근 어르신(좌)			

임병근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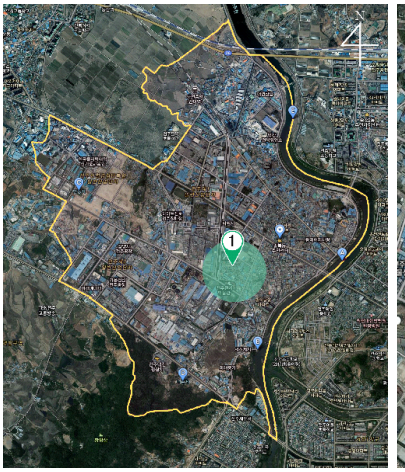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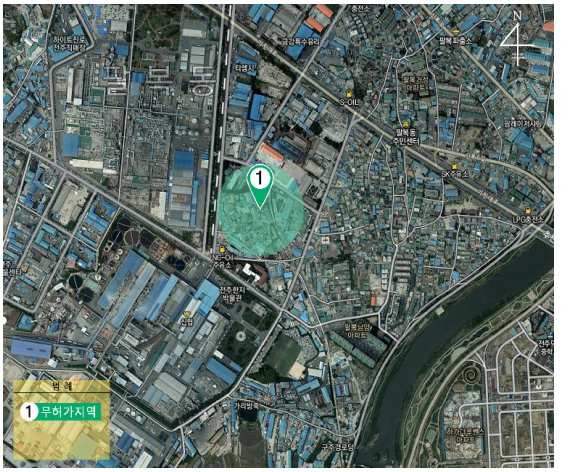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덕촌방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3-11 팔복산교회 인근	- 가리방죽으로 흐르는 방죽
2	가르내방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가리방죽	- 과거 수질상태가 좋아 방죽에서 놀고 빨래도 했음
3	잠업농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8 팔복남양아파트	- 현 남양아파트 부지에 잠업을 하던 매화동 조씨가 있었음

팔복동 : 정옥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상리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상리마을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자문을 구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정옥례	성 별	여
	생년·나이·띠	84세(1935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정옥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상리마을 - 상리마을의 무허가 지역			
면담요약	• 상리마을의 무허가 지역 - 예전에는 이 지역이 공단으로 묶여 있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무허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신고만 하면 대부분 고칠 수는 있지만 아직도 힘들다.			
사진				
	구술자 정옥례 어르신외 3명		면담장소	

정옥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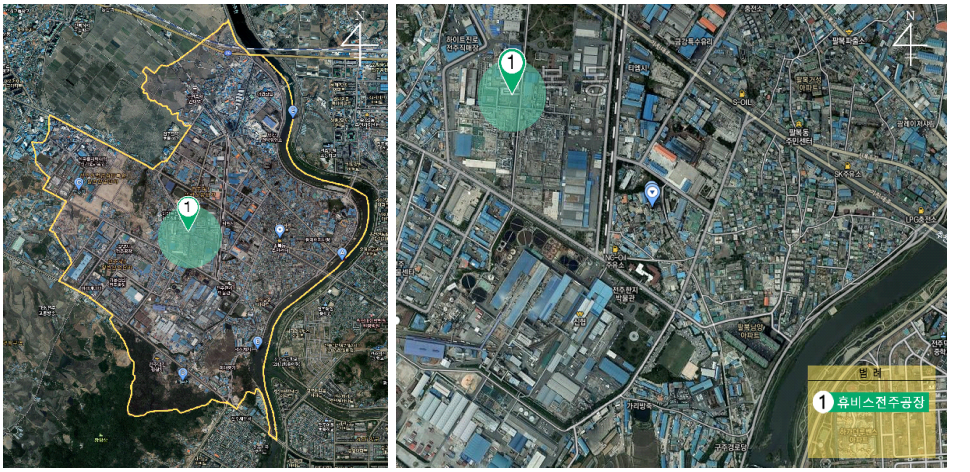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무허가지역	전주시 덕진구 상리5길 8-3 상리경로당 일대	- 과거 상리마을은 공단으로 묶여있었음. 또한 대부분의 주택들이 무허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었음. 현재는 신고만 하면 대부분 고칠 수는 있지만 아직도 힘들다고 함

팔복동 : 정찬모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휴비스전주공장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공장인근의 과거와 현재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정찬모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팔복동	**직 업**	휴비스전주공장 경영지원팀 주임
	기 타	나이,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면담요약	• 공장이 왜 전주로 오게 되었는지? - 삼양사의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본래는 울산에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창업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신의 고향 주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일념으로 울산을 버리고 전주에 공장을 지은 것이다. 현재의 휴비스전주공장은 SK케미칼과 삼양사가 50 대 50으로 합작해서 새롭게 세운 회사이다.			

정찬모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휴비스전주공장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87 휴비스전주공장	- 현재 휴비스 공장 전주점이 위치한 곳

팔복동 : 정효남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동곡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동곡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정효남	성 별	여
	출생지	전라남도 곡성군	생년·나이·띠	83세(1934년생)
	기 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정효남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 - 팔과정과 팔복정수장 - 마을 앞 또랑 - 유제리의 풍경과 현재 - 4개 마을 통합 경로당 -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곡마을			
면담요약	• 팔과정과 팔복정수장 - 동곡리 마을 뒷산에는 팔복정수장과 팔과정이 있다. 팔과정은 과거 팔복동에서 과거급제한 사람이 8명이 나왔다고 해서 팔과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동곡리 사람들은 원래 그 곳에서 일 년에 한번 1월 초하룻날에 행사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한지 3년 정도 되었다. - 마을에서는 원래 팔복정수장에 있는 물을 먹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물은 공단으로 들어가 다른 곳에서 나온 물을 먹는다. • 마을 앞 또랑 - 마을 앞에 있는 또랑(시냇물)은 과거에 농수로였다. 과거 그 곳에서 애기들이 많이 죽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나 지금은 복개 된 상태이다. 복개되기 전에는 시의원이 조그만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복개공사를 한지는 한 5년 남짓 되었다. • 유제리의 풍경과 현재 - 과거 동곡리 앞에서 팔복초등학교(유제리 어귀)까지 이어지는 길가에는 포			

플러나무가 길게 심어져서 마을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깡패들이 많아 아이들이 하교할 때는 큰길가(옛 소방서 자리)까지 마중을 나가야 했던 곳이다.

“무서워가지고 마중 나가야돼. 내 딸 금암학교 나왔는데 여그(여기)가 논이 있고 해서 무서워서 뽀뿌라나무(포플러나무)가 있어가지고. (중략) 잠이 깜빡 들어갔고 나갔더니만 딸이 어떤 놈이 따라오더라고. 그 놈이 입 맞추자고 여까지 따라왔다더라고. 부녀회장을 내가 그때 했는데 그때 들개공사를 해서 수지 앞 또랑(시냇물)에다가 애기 빠진 이후로 다리를 놨어. 그래가지고 위에서 버스 내린 데까지 옛날 소방서까지 맨날 마중을 나갔었는데 내가 그날은 못가서 나갔더니 딸이 엄마하고 불러서 가니까 남자가 따라왔다고 이제 나왔냐고했다고. 이 쪽에가 유제리 있는 동네까지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웠어. 유제리 여학생도 머슴아들이 따라오고 무술쟁이 집에 여학생이 이모하고 뛰어 들어왔다고 여학생 뒤에 머슴아들이 세 네 명 따라와서 엄마한테 왜 이제 오냐고 했디야.”

- 과거 유제리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메우고 제2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 원주민들은 동산촌(동산동)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

• 4개 마을 통합 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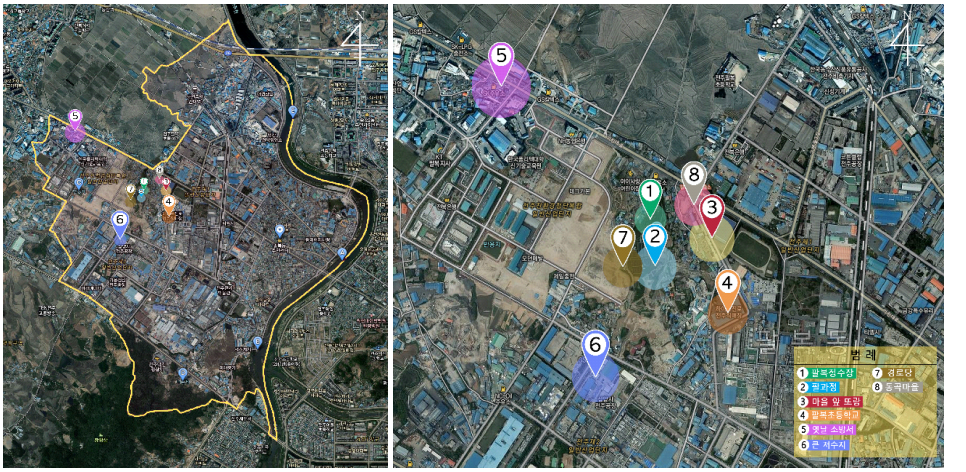
- 과거 팔과정 인근의 학산, 비석날, 동곡, 반룡마을을 합쳐 하나의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윤○○라는 반룡리 출신의 시의원이 그 돈을 받아다가 다른 동네에 경로당을 만들었다.(반룡에 용암경로당)

•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곡마을

- 동곡리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소방도로도 내준다고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가 시위도 하고 했지만 아직 별 변화가 없다.

사진		
	구술자 정효남 어르신(좌)	면담장소

정효남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팔복정수장	전주시 덕진구 반룡2길 1-28	- 마을에서는 과거 팔복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음
2	팔과정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00-35	- 과거 팔복동에서 과거급제한 사람이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3	마을 앞 또랑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10-5	- 과거 농수로였던 수로 - 사고가 많이 일어나 현재는 복개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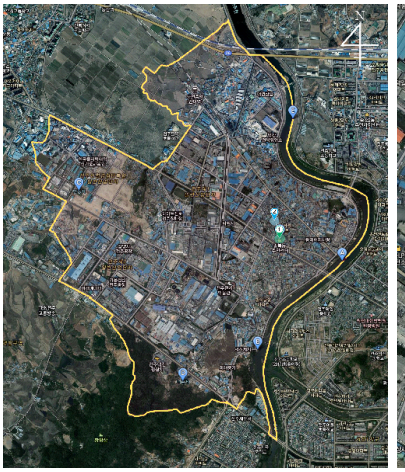
정효남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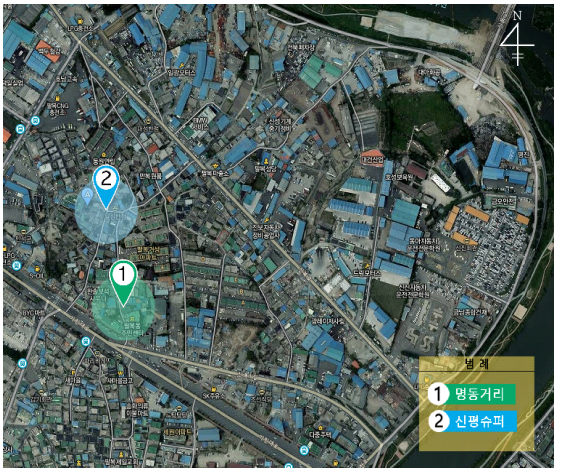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4	팔복초등학교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3 하이트맥주 전주직매장	- 동곡리 앞에서 유제리 어귀에 있는 과거 팔복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길가에는 포플러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었음
5	옛날 소방서	전주시 덕진구 유상1길 6 소방파출소사거리 부근	- 마을에 깡패들이 많아 아이들이 하교할 때 마중 나가야 했던 과거 버스정류장
6	큰 저수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47 전주 제2일반 산업단지	- 과거 버드랑죽 - 저수지가 메워지고 제2공단이 들어서면서 유제리 마을 원주민들은 동산동으로 많이 이주함
7	경로당	전주시 덕진구 반룡2길 44	- 반룡에 만들어진 경로당
8	동곡마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10-5	-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곡마을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음

팔복동 : 조영교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팔복추천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추천대교 근처 마을의 조사를 위해 선정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조영교	**성 별**	여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나이,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조영교 어르신이 기억하는 팔복동 - 팔복동의 명동거리			
면담요약	• 팔복동의 명동거리 - 현재 팔복동주민센터 입구에서 신복경로당까지의 거리를 과거엔 명동거리라고 불렀다. “옛날에 여기 공장 한창 잘 될 때는 여기 앞에 이불가게도 많고, 거기가 옛날에 우리 집 있는 데가 장사가 잘되었잖아. 거기가. 공장 처녀들 많이 있을 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이 골목은 명동거리여, 명동거리. 그랬었어. 그냥. 입버릇으로, 확정이 없었어도 사람들 입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장사가 뭘 사려고 하면 줄을 섰었어. 거기 한 가운데가 우리 집인데. 여기가 명동거리야, 사람들 말이 그랬어. 그냥. 확실한 저기는 없었고. 거기 동사무소에서 그 신평슈퍼 있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됐었어. 전부 그 근방이 그냥 방 한 칸 해가지고 그냥.”			
사진	 구술자 조영교 어르신 외 5명			

조영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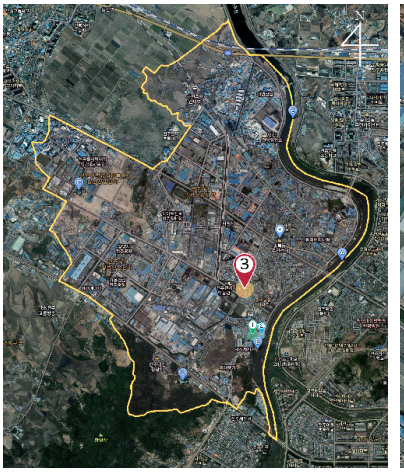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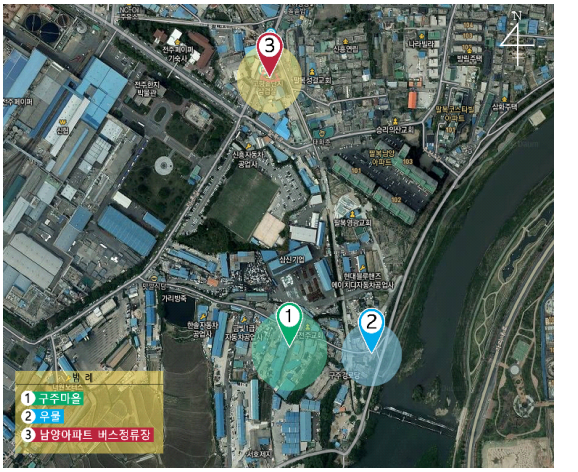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명동거리	시점 :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 팔복동주민센터 종점 :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2-2 신복경로당	- 과거 명동거리라고 불릴 만큼 활성화 되었던 거리
2	신평슈퍼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3	- 과거 명동거리 시절부터 있었던 슈퍼로 당시 상당히 잘되었음

팔복동 : 조윤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구주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구주마을 주민들의 생활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조윤례	**성 별**	여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기 타	나이,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조윤례씨가 이야기하는 구주마을 - 과거 구주마을에서의 생활 - 과거 구주마을의 우물 - 현재 구주마을의 생활			
면담요약	• 과거 구주마을에서의 생활 - 구주마을 사람들은 주로 방석을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다.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어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농사도 짓고, 모도 심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 과거 구주마을의 우물 - 과거 마을에는 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이 한곳 있었다. 그때만 해도 물이 깨끗해서 또랑물(작고 폭이 좁은 개울)에서 쌀도 씻어먹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했었다. 지금은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 현재 구주마을에서의 생활 - 마을 어르신들은 병원과 약국에 자주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다녀야한다. 버스도 예전엔 구주마을 앞으로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아 그 노선이 없어졌다. 지금은 남양아파트까지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야해 불편하다.			

조윤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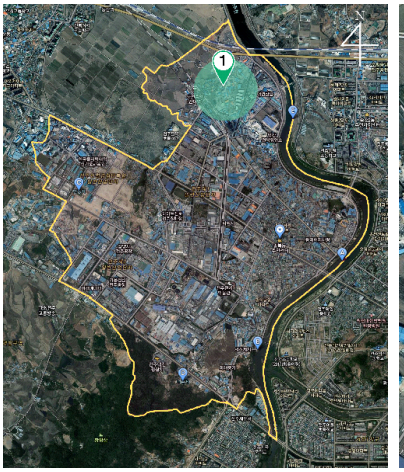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구주마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76-10 구주경로당 일대	- 구주마을 어르신들은 병원과 약국에 자주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해서 불편하다고함
2	우물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76-14	- 구주마을에 뒤웅박으로 길어먹는 우물이 한곳 있었는데 현재 이 위치로 추정 중에 있음
3	남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77-22	- 구주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내에 없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 곳

팔복동 : 조춘자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감수여자경노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조춘자	**성 별**	여
	생년·나이·띠	71세(1946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사진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마을의 유래와 지명 - 마을의 유래와 지명			
면담요약	• 마을의 유래와 지명 - 감수리의 유래는 본래 ‘감수물’이라고 불렀던 지역이다. 그전에는 야전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신리와 신감리로 나뉘었다. 감수리라는 이름은 ‘감수물’에 ‘마을 리(里)’자를 합해 부르는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에는 주막거리가 있었는데 주막거리의 유래는 “큰 둥구나무 옆에 왕인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술을 한잔 먹고 그 사람이 ‘달 감(甘)’자와 ‘물 수(水)’자를 써서 감수물이라고 지었다.” 이곳은 물상태가 좋았고 처녀들이 흉년을 모르는 동네다. 마을을 반별로 구분했을 때 1반은 감수리, 2반은 주막거리, 3, 4반은 상신리, 5, 6반은 샘평리, 7반은 물건너, 8반은 야전리라고 부른다. 물건너는 현재의 7반으로 그곳이 물을 진짜 건너진 않지만 비가 오면 지대가 낮아 방까지 물이 들어가니 높은 곳으로 피난을 나온다 해서 물건너라고 한다. 주막거리는 현재의 2반으로 큰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썩어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렸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대신 평상을 놓아 그곳에서 논다.			

사진	 면담장소	

조춘자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감수리 일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감수리 일대	- 감수리의 유래는 본래 ‘감수물’이라고 불렀던 명칭에서 비롯됨 - 과거 감수리의 수질상태가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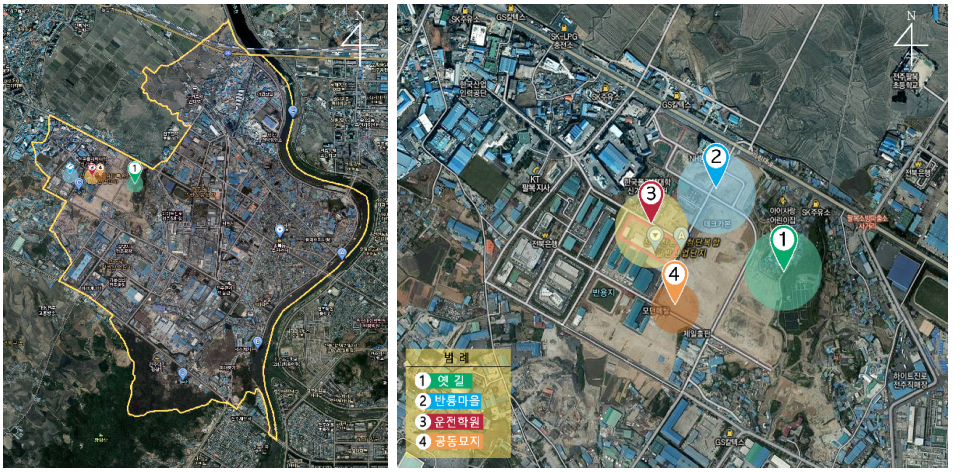
팔복동 : 최정오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용암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박지원, 김혜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최정오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팔복동 반룡리	생년·나이·띠	80세(1946년생)
	기 타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마을의 옛 풍경 - 용암경로당 앞 옛 길 - 반룡마을의 옛 풍경			
면담요약	• 용암경로당 앞 옛 길 - 용암경로당 앞길은 유래는 없으나, 예전 이 마을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도 있었던 길이다. 원래는 이 길이 비석날을 거쳐 유제리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현재는 비석날까지만 길이 이어진다. • 반룡마을의 옛 풍경 - 현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가 들어선 곳에도 반룡리가 약간 걸쳐있었는데, 그곳은 과거에 야산과 운전학원, 공동묘지가 있었다. 현 용암경로당 뒤편의 공원은 원래 야산이 있었고 그 주위로 약 10가구 정도가 살았다. 그리고 산에는 공동묘지도 있었다. 또 교회(팔복중앙교회) 밑에는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 있었다.			
사진				



구술자 최정오 어르신(좌)

최정오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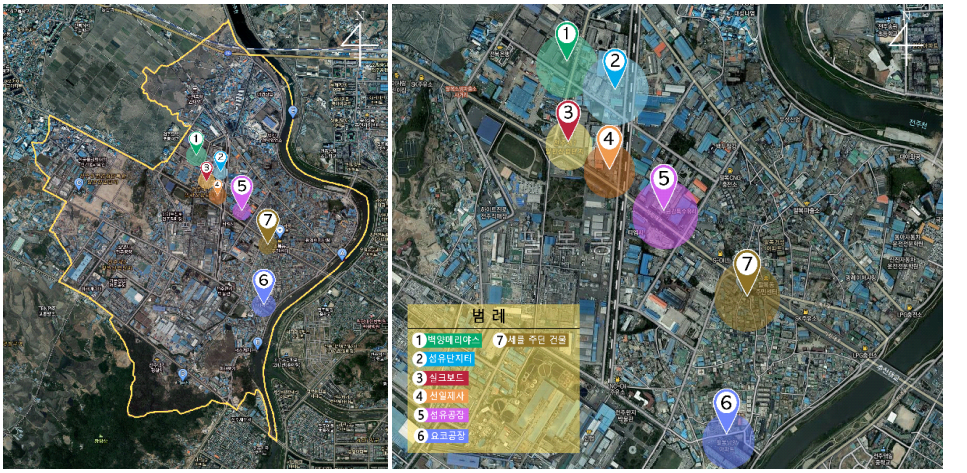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옛 길	전주시 덕진구 반룡2길	- 과거에는 용암경로당 앞에 반룡2길이 개통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개통됨
2	반룡마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반룡리 일대	- 현재 반룡마을의 범위
3	운전학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76-6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	- 과거 이 지역범위 안에 운전학원이 존재했음
4	공동묘지		- 과거 이 지역범위 안에 공동묘지가 존재했음

팔복동 : 최태림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8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태림부동산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팔복동 지역의 과거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최태림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생년·나이·띠**	76세(1940년생)
	직 업	부동산 운영		
	기 타	-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 팔복동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최태림씨가 기억하는 팔복동의 70년대 이야기 - 가공업과 팔복동의 발달 - 팔복동의 현재			
면담요약	• 공장가공업과 팔복동의 발달 - 70년대 팔복동의 주요사업은 가공업이었다. 스웨터, 가발, 요코(뜨개옷 편직 기계의 일본어), 메리야스, 왕골소쿠리나 왕골백을 주로 만들었다. 그 전에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때와 달리 가공업과 수공업이 늘면서 공업단지 전라북도 전주지구에서 사람을 수만 명씩 고용했고, 팔복동에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시기였다. 당시엔 인구가 3, 4만으로 팔복동 주민들은 부수적으로 방세를 받아가며 살았다. • 팔복동의 현재 - 주요사업이 가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팔복공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건비가 오르고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개성공단으로 이주하다보니 팔복동의 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과거 구술자의 건물에도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어 지하실도 다방이나 음식점 같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없어 이층의 세도 안 나간다고 한다.			

사진		
	구술자 최태림 어르신	면담장소

최태림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백양메리야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8-1 ㈜BYC	- 과거 백양메리야스 공장 - 과거 팔복공장단지에 있던 공장 중 하나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2	섬유단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0-14 일대	- 과거 섬유단지터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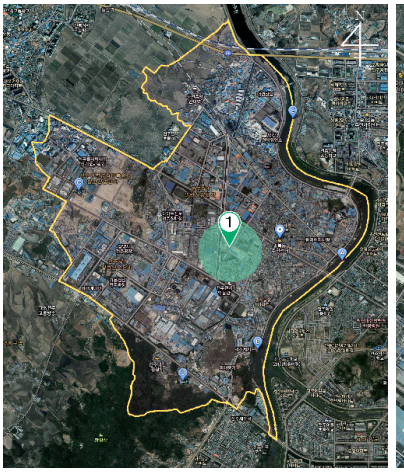
최태림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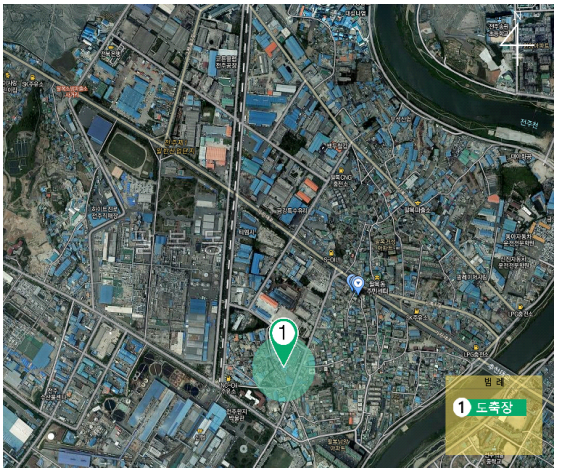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3	실크보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25-1 부근	- 과거 실크보드 공장 - 과거 팔복공장단지에 있던 공장 중 하나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4	선일제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63-1 ㈜동명기계 부근	- 과거 선일제사 공장 - 과거 팔복공장단지에 있던 공장 중 하나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5	섬유공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15-1 ㈜백양 부근	- 과거 섬유공장 자리 - 과거 팔복공장단지에 있던 공장 중 하나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6	요코공장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8 남양아파트	- 과거 요코공장이 남양아파트 부근에 많았다고 함 - 위치는 주민간담회 내용 참고
7	세를 주던 건물	전주시 덕진구 팔복6길 3	- 과거 팔복동에 사람이 많았을 땐 건물에 임대해줄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나 현재는 많이 비어있음

팔복동 : 한오목례 면담보고서

날 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조사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상리경로당			
조사자	김태양, 김혜민, 박지원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상리마을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자문을 구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한오목례	**성 별**	여
	생년·나이·띠	83세(1934년생)		
	기 타	출생지,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면담주제 및 열쇠말	• 주제 : 한오목례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상리마을 - 상리마을의 도축장			
면담요약	• 상리마을의 도축장 - 현재 냉동공장(삼우냉장) 자리는 예전에 소, 돼지를 잡던 도축장이었다. 도축장이 있어 그 앞에는 한우 직판장 같은 고깃집들이 많았다. 과거엔 도축장에서 냄새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없어 졌지만 아직도 가끔 상리에 오는 사람들은 도축장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사진				
	구술자 한오목례 어르신 외 3명		면담장소	

한오목례씨 이야기 속 중요한 기억의 장소





연 번	공간/장소명	위 치 (주소)	공간의 기억
1	도축장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29 삼우냉동	- 과거 도축장이 있던 곳으로 그 앞에는 한우 직판장 같은 고깃집이 많았음 - 현재 도축장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가끔 상리에 오는 사람들은 도축장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음